

인제문화

2011 | 제26집



인제문화원

인제문화

2011 | 제26집



기린면 서리의 빨가는 모습 / 사진 : 최종익 작가

인제문화원

지역문화선언

우리는 지금 거대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 밖으로는 국경과 이념을 넘어선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안으로는 지역주민 스스로에 의한 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진정한 국민복지와 삶의 질에 대한 관심 또한 급속도로 중대하고 있고, 정보화 사회의 진전은 이 모든 것을 촉진하여 근본적으로 새로운 문화적 삶의 양식을 창출해내고 있다.

우리는 이 변화의 시대를 바로 이해하고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의 특수성을 확인하고 지역문화예술을 통한 삶의 풍족함을 창조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제 문화예술은 복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며, 개인에게 있어서도 문화감수성의 역량이 곧 그 자신의 삶의 질의 결정요소임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물질주의 가치에만 치우쳐왔던 자세를 반성하고 국민 모두의 일상적 삶을 문화적으로 충실히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당당한 세계인으로서 살아가는 조건임을 확신한다.

이제 우리는 지역문화시대의 도래를 믿으며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첫째, 우리는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뿌리로 한 문화적 발전을 추구한다.

지역문화의 특수성을 튼튼히 할수록 민족문화의 세계문화의 다양성은 더욱 풍요롭게 될 것이다.

둘째,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은 지역자치의 뿌리이다. 이제 우리의 삶의 터전을 문화적 자존심으로 새롭게 일구는 실천적 운동을 시작하여야 한다.

셋째, 문화적 삶이란 스스로 참여하여 창조하는 삶 그 자체이다. 지역의 재생적 문화단체의 활동이 최대로 활성화되도록 돋는 일이 문화행정의 책임과 의무이어야 한다.

넷째, 국민적 차원에서도 지역문화 진흥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역자치단체의 문화적 발상을 대 전환하기 위해 우리는 실질적인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1995년 11. 1

지역문화행정 전문가 일동

발간사



남덕우 인제문화원 원장

우리 민족은 기록문화가 약하다는 말을 우리 스스로 하곤 합니다. 우리에게 옛 자료가 빈곤한 까닭은 많은 외침을 당해 기록물이 불에 타거나 없어졌고 약탈을 당했기 때문이지 결코 기록에 약한 민족이 아닙니다. 이 사실은 프랑스와 일본이 약탈해 보관하다가 얼마 전에 국내에 돌아온 조선왕실의궤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조선은 왕실의 혼례 같은 큰 행사를 하면 그 행사를 잘 치르기 위해 ‘청’을 설치하고 세세한 도감을 그려 준비했고, 이번에 돌아온 의궤가 바로 그 도감입니다.

이번에 돌아온 의궤 중에 영조가 정순왕후가 될 어린 신부와 혼인하기 위해 그녀의 집에서 데려오는 과정을 담은 것이 있습니다. 백여 미터를 늘어서서 대궐로 향하는 긴 행렬을 보면, 신분과 역할에 따른 의복을 입은 사람들을 적절한 자리에 배치한 모습이 낱낱이 그려져 있습니다. 더구나 필요한 물품이나 준비물을 글로 적어 철저하게 준비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 목록에는 오강과 결례까지 있습니다. 결례까지 적어 놓는 민족이 또 있을까요?

이번에 26번째 발행된 〈인제문화〉는 인제 사람들의 생활상을 담아왔습니다. ‘십 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도 있듯이 우리의 생활상도 급변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생활을 했는지 잊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인제문화〉를 보면 우리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어 비로소 이 책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인제문화〉는 오래될수록 빛을 발하는 자료라 소중합니다.

이번에도 많은 필진이 좋은 자료를 주셨습니다. 문혀 있던 우리의 생활상을 발굴한 분도 있고, 좋은 제안을 하는 분도 있고, 삶에서 겪은 내용을 글로 엮은 분도 많습니다. 모두 오늘을 사는 우리의 진솔한 모습이고, 내일을 살아갈 후손에게는 진귀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글을 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책으로 엮느라 수고한 직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인제문화원은 우리의 삶을 더 깊고 찬찬히 살피어 그 가치를 새롭게 매기고 충실히 기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제문화원 임원회의



인제문화학교 개강식(2011. 4. 7.)

2011 문화사업



정월대보를 맞이 군민바둑대회(2011. 2. 19.).



인제문화학교 수묵화교실.

2011 문화사업



인제문화학교 한글서예교실.



인제문화학교 한문서예교실.

2011 문화사업



인제문화학교 다도교실.



인제문화학교 민요교실.

2011 문화사업



인제문화학교 합창교실.



인제문화학교 영어회화교실.

2011 문화사업



인제문화학교 고전무용교실.



인제문화학교 화훼장식교실.

2011 문화사업



인제문화학교 미술교실.



인제문화학교 실버댄스교실.

2011 문화사업



찾아가는 문화캠프, 3군단 포병여단(2011. 2).



인제고등학교 학생들, 김부대왕각 · 한계사지터 · 한계산성 문화탐방(2011. 5).

2011 문화사업



'찾아가는 문화캠프' 군부대 다도체험.



귀둔리 사물놀이 악기 보급.



천도리에서 접경마을 조사사업으로 주민 인터뷰 중인 인제고등학교 학생들.



정선, 제24회 강원민속예술축제에서 '숯가마등치기' 시현(2011. 9.).



'찾아가는 국악 한마당' 인제실버홈 노인요양원 공연(2011. 10. 7).



제2회 인제군 사물놀이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덕산리울림파'(2011. 12. 9).



애향원, '찾아가는 문화캠프' 비누방을 공연(2011. 12).



문화유적탐방으로 양양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관람.

2011 문화사업



거제포로수용소, 부산-거제 문화탐방(2011. 5.).



경기도 여주지역 문화유적지 탐방.

목차

제1장 향토사

강원도 인제 남면 동학사 고찰 / 한승봉	22
박대감사당제를 민속 문화축제로 활용(제안) / 박광택	50
매운탕과 어죽/ 정무교	83
인제의 옛 모습/ 정무교	108

제2장 기고문

죽어가는 하천생태계 되살리자 / 오정진	126
생명순환농업(자연농업)/ 계신일	129

제3장 향토문화

제10회 환경부 장관배 전국여성환경백일장

인사말 / 문부자	139
심사평 / 최인홍	140
도량의 지렁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 고미령	143
유년의 끌 / 김영옥	147
곶감 / 엄혜주	151
냉장고 버려지다 / 원영애	153
황태/ 심금련	155
유년의 끌 / 김진숙	157
정겹던 그때를 그리며 시작 / 박선애	158

점봉산 / 신윤라	161
보리밭 / 조은희	163
10미터 안개 속 / 손혜자	165
내린천의 거미와 선녀 / 정선숙	167
숲을 만드는 낭군 / 전숙자	169

제9회 환경부 장관배 전국여성환경백일장

곰배령 / 정클잎	172
밭고랑을 쓸고 가는 어머니 / 박지영	174
내, 어머니의 뜰 / 신윤자	176
나무에 걸린 폐비닐 / 금시아	177
가을 / 민경녀	178
소라껍질 / 손혜자	180
자연 / 임창선	181
자연과의 약속 / 박돈녀	182
그해 여름 - 태풍 / 신성자	185
할머니의 들꽃 / 박선애	188
웃음 띤 북어 / 박소민	190

향토문예

자족의 용심(自足의 用心)/ 한용운 시인	191
기다림 / 박돈녀	196
라다크에서의 생일 파티 / 최용건	199
갓골엔 지금 겨울 속 / 정기현	202

아들을 버스에 태워 보내고	203
내린천 강 둑에 서서	204
따뜻한 손 / 박돈녀	205
봄바람 / 이애란	206
가을청취	207
떡	208
당신의 떨이오니	209
어느날	211
나비	212
기룡산(야생화)	213
힙강을 이루는 / 원영애	214
입춘 / 이영애	215
여름, 그 햇살 아래서 / 박영식	216
가을이 끝나갈 무렵/ 심미경	217
미안하다. 우리 꽃 / 정순덕	218
어느날 문득 거울 앞에서	219
명자꽃(산당화)	220
후회 / 허계홍	221
타인의 웃음	222
삶을 위로하다	223
사랑 안에는 / 한용운	225
春 三 月	226
후 조 (候 鳥)	227

제4장 임서전

출품자 명단	230
인사말씀	231
임원현황	256
원고모집	258
편집후기	259

제1장



향토사

Inje Culture

강원도 인제 날면

동학사(東學史)에 대한 고찰

- 유적과 인물을 중심으로 -

한승봉 · 인제문화원 향토사연구소

목 차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II. 인제의 동학사(東學史) 관련 유적

1. 동경대전(東經大全) 간행소
2. 동학경전(東學經典)
3. 해월(海月) 최시형(崔時亨) 펴신지

III. 강원 인제의 동학사(東學史) 관련 인물

1. 김연국(金演局)
2. 김계원(金桂元)
3. 김병내(金秉鼐)

IV. 결론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강원도 인제 지역 최시형의 행적과 동학 기념물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여 교육대학원에서 수차례의 논문심사를 받은바 있었다. 그러나 대학원에서 학업을 7년 동안이나 진행하며 논문 수정을 반복하였음에도 정작 논문을 제출하고 보니 서투르고 미숙한 부분이 눈에 많이 띄게 되었다. 강원 인제 남면 동학사(東學史)와 관련해서는 동학 2대 교주 해월 최시형이라는 인물에 대한 행적 연구에 치중하여, 1894년을 전후하여 전국적으로 20만이 넘는 신도를 확보하였던 민족종교인 동학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 할 수 없었다.

이와 함께 특히 인제지역의 동학관련 인물과 남면 신남리와 갑둔리 그리고 상남면 김부리 등 동학관련 유적지에 대한 연구가 매우 미흡하였다 것이 사실이다. 이에 기회가 주어져 부족한 자료를 보충하고 관련 연구를 수행하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지역향토사 연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함은 물론, 애향심을 갖게 해주고 나아가 올바른 국가관 형성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여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인제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경진판 동경대전으로 불리는 1880년 경진년 6월에 최초로 동학의 경전인 동경대전이 간행된 지역이다. 그 후 1888년과 1890년에도 인제출신 동학교도들에 의해 동경대전이 중간, 재간행 되었다는 기록이 각종 동학 관련 사료에 많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제 남면 갑둔리에서 최초로 간행되었다고 동학관련 사료에 기록으로 전해지는 경진판 동경대전은 2010년 가을까지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고 있었다.

그런 연유로 ‘강원도 인제 지역 최시형의 행적과 동학 기념물 연구’라는 제목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나서도, 정작 논문의 핵심부

분이라 할 경진판 동경대전과 관련한 부분과 경진판 동경대전 간행이 강원도 인제군 남면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에 대한 역사적 배경과 동학교단사에 있어서 인제읍의 위치와 인제사람들에 대한 연구가 빠져있어 아쉬움이 남아 있었다.

동학의 발상지인 경주지역이나 동학교도들에 의해 최초로 무장봉기가 일어난 천라도 지역이 아닌 강원도 인제지역에서 최초로 동경대전 간행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배경과 동학사에 많은 영향을 끼친 인제출신 인물들의 자료를 모으고, 이를 바탕으로 동학농민운동이 시발점이 되어 1919년 3월 기미독립만세운동과 1960년 4.19 혁명,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1987년 6.10 민주항쟁에 이르게 된 우리나라 민중운동의 뿌리를 자료로 정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세습왕조와 양반을 중심으로 한 계급사회를 국가권력의 근간으로 하던 조선 왕조가 문을 닫고,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대한민국으로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에는 많은 민초들의 희생과 눈물을 토대로 한 슬픈 역사가 있었다. 이러한 역사위에 대한민국이 오늘날 세계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부유한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육은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변질되어 학교교육의 기본이자 국민교육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역사교육을 등한시하고 있어, 근현대사를 포함한 관련 연구자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역사가 이런 대접을 받고 있을 마당에 향토사연구는 더 이상 말할 나위도 없다.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지역향토사를 연구 발굴하고 관련 문헌과 자료수집 정리에 의한 체계적인 연구로, 초등학생들과 중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향토사 과목 강의를 위하여 석사학위 논문에서 빠진 동경대전 간행 관련 부분과 인제지역의 동학사 관련 인물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게 된 것이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경진판 동경대전 간행경위와 최초로 동경대전 간행이 인제지역에서 이루어지게 된 배경, 그리고 동학사에 많은 영향을 끼친 인제출신 인물들에 대한 연구로 범위를 정하였다. 이를 위해 지난 2010년 ‘새로 발견된 목판본’인 동경대전 인쇄본이 최초의 동학경전 인쇄본인 ‘인제 경진판 동경대전’으로 확인 판명되기까지의 과정과 판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동학교단과 동학사에 많은 영향을 끼친 인물로 동학의 3대 교주인 의암 손병희, 송암 손천민과 함께 삼암(三菴)으로 불리며 2대 교주인 해월 최시형을 그림자처럼 수행하고 따라다녔던 구암 김연국에 대한 인물사 연구를 진행하였다. 아울러 1895년부터 기록된 사료로 정부기록보존소에 남아있는 동학농민운동 관련 재판자료에 강원도 출신으로 유일하게 기록이 남아 있는 인물인 김계원에 대한 연구도 병행하여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에 덧붙여서 구암 김연국의 삼촌으로 1888년 동학경전인 무자판 동경대전 간행을 주도한 김병내에 대한 인물사 연구도 병행하였다. 동학을 창도한 수운 최제우의 둘째 아들 세정의 처당숙이기도한 김병내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인제지역에 대한 동학의 전파와 남접과 북접간의 관계에 대한 부분도 함께 연구를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II. 인제의 동학사(東學史) 관련 유적

1. 동경대전 간행소

해월(海月) 최시형(崔時亨)이 1880년 경진판 『東經大全』을 간행하였던 인제군 남면 갑둔리는 1970년대에 군사훈련장으로 징발한 후 마을주민들을 모두 이주시

키고 공사를 실시하였다. 경전(經典)간행소가 설치되었던 김현수(金顯洙)의 집은 인제군 남면 갑둔리 341번지로 실재하고 있는 것이 문헌과 지적도 등 관련 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東經大全』이란 명칭은 동학의 경전(經典)을 모두 빼침없이 모아서 엮은 책이라는 뜻으로서 대신사(大神師) 수운(水雲) 최제우(崔濟愚)가 혼신을 쏟아 손수 지은 글들을 모은 것이다. 대신사 수운 최제우는 1860년 4월 5일 동학을 창도하여 다음해인 1861년부터 포교를 하였으나, 1863년 12월 관헌에 체포되어 1864년 3월 10일 순도하였으므로 종교를 창도하고 포교 활동을 한 시기는 3년여에 불과하였다.

이 기간 동안 동학의 포교를 위해 동학의 핵심사상을 담은 글로서 한문체와 가사체로 발표하였는데, 그중 한문체로 된 글만 모아서 엮은 책이 바로『東經大全』이다. 대신사 수운 최제우가 체포되어 대구에서 참형을 당할 적에 그가 지은 동학경전과 저작물들이 함께 불태워 없어지거나 소실이 되어버린 후, 해월 최시형은 스승이자 교조인 대신사 수운 최제우의 동학경전 간행에 대한 명교를 받들고자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東經大全』과 『용담유사』를 간행하게 된 경위에는 몇 가지의 설이 있으나 개략적으로 경주판(慶州版) 『東經大全』발문(跋文)에 의하면 대신사 수운 최제우가 계해년(癸亥年)인 1863년 가을에 제자인 해월 최시형에게 경전을 인쇄 간행하도록 명교를 내린 것에 의해서리는 설이 현재로서는 지배적이다.

해월 최시형은 교조(敎祖)의 명교에 따라 경전 간행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으나, 그해 12월 10일 수운 최제우가 관에 체포되며 모든 것이 중단되었다. 그로부터 동학경전이 다시 발간(發刊) 작업에 착수되어 각판을 하고 인출되기까지는 무려 17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던 것이다.

경전을 간행하라는 교조의 명교가 내려진 후부터 실제로 간행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된 연유는, 2대 교주인 해월 최시형이 그 기간 동안 무수히 많은 일들을 겪으며 전국을 돌아다니며 은신과 피신을 하는 과정을 반복하였기 때문이

다. 그 과정에서 ‘최 보따리’라는 별명을 얻으며 끝없는 포교활동을 펼쳐 전국적으로 20만에 가까운 교세를 확장할 수 있었다.

동학은 수운 최제우가 창제한 순수 민족종교(民族宗教)로서 국권(國權)이 외세에 침탈당하였을 때에는 많은 구국지시를 배출하여 동학농민전쟁과 3.1기미독립만세운동으로 그 정신이 이어졌다. 안으로는 부패한 정권을 몰아내고 밖으로는 외세의 침략을 물리쳐 민족자주에 기인한 평등과 인내천 사상을 기초로 민권회복운동의 장엄한 기반에 커다란 공헌을 하고 활력을 불어넣었던 정신적 근원이었다.

인제군 행정에서는 이러한 뜻 깊고 역사적인 동학정신의 산실이라 할 수 있는 인제 경진관 『東經大全』간행소 터 현장에 ‘경진관 『東經大全』간행기념비’를 세워, 민족종교로서의 부흥을 기하고 나아가 민족의 호국의지와 통합의지를 굳건히 하자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역사적 사료를 발굴하여 뒷받침하고자 경진관 『東經大全』간행소가 설치되었던 인제군 남면 갑둔리 341번지 김현수(金顯洙, 字致雲) 생가 터 일대에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인제군 남면 갑둔리 341번지 경진관 『東經大全』간행소 터에 대한 여러 문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 지정이 어려운 이유는, 이 지역이 군사시설인 전투훈련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정별하였기 때문으로 경진관 『東經大全』간행소 터가 지방문화재로 지정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또한 간행소 터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고 있으므로 관계전문가와 자료 수집을 통한 재조사가 이루어져 마땅히 문화재로 지정되어야 할 것이다.

인제군에서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하여 천도교 중앙총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경진관 『東經大全』간행지 기념비 건립 예정지인 강원도 인제군 남면 갑둔리 341번지 일대에 기념비를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이 지역이 대부분 국방부의 소유이며 군사훈련장과의 관계 등 재검토가 필요하여 동학 유적지로 지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구를 진행하며 군사훈련장이 들어선 이후에도 최근까지 남면 갑둔리에 거주

하였던 원주민들을 만나 김현수 생가 터에 대해 고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다. 이들과 만나는 과정에서 대화를 녹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진판『東經大全』경전간행소인 김현수 생가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고자 노력하였다.

경진판『東經大全』간행소 터로 전해지는 인제군 남면 갑둔리 341번지에 대한 위치는, 경진판『東經大全』간행에 직접 참여하였던 김현수의 후손이 할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가옥을 보존하여 왔기에 가능하였다고 전해진다.

2. 동학경전(東學經典)

동학의 경전(經典)은 한문경전인『東經大全』과 한글로 써여진 경전인『용담유사』가 있다.『東經大全』에는 포덕문(布德文), 논학문(論學文), 수덕문(修德文), 불연기연(不然其然)까지 4편의 글(文)과 좌잠(座箴), 탄도유심급(歎道儒心急), 팔절(八節) 등 시문(詩文)들이 수록되어 있다.¹⁾ 이 글들은 대신사(大神師) 수운(水雲) 최제우(崔濟愚, 1824~1864)가 1860년 음력 4월 5일에 ‘개벽’(開闢)의 신념체계인 무극대도(無極大道)를 깨달으며 동학을 창도한 후 신도들을 가르치기 위해 손수 집필한 것들이다.²⁾

동학이 널리 전파되고 신도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사람이 손으로 써서 동학의 경전을 보급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대신사 수운 최제우는 자신의 가르침을 담은 경전이 많은 신도들에게 나누어지게 되면서, 오류가 없도록 인쇄본을 만들어 보급하라는 명령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스승의 명교(命教)를 받은 동학 2대 교주 해월(海月) 최시형(崔時亨)은 경전을 판본으로 만들기 위해 준비를 하였으나 1863년 12월 10일에 좌도난정(左道亂正)의 죄목으로 대신사 수운 최제우와 많은 신도들이 체포, 처형되며 중단되었다.

1) 표영삼,『동학1-수운의 삶과 생각』, 통나무, 2004

2) 상계서, _____, ___, __

교조인 대신사 수운 최제우의 순도이후 동학은 교세가 일순 약해지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동학경전 인쇄 계획은 잠시 접어두게 되었다. 이후 몇 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며 관의 지목도 수그리지고 동학을 따르는 교인들의 숫자도 늘어나게 되어 동학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게 되었다. 그러나 경상도의 동학교인 이필제가 1871년 3월 영해(寧海)에서 교조신원운동(教祖伸冤運動)을 일으켰다가 실패하는 바람에 많은 신도들이 죽음을 당하며 동학은 다시 한 번 큰 시련을 겪게 되었다.

이때부터 해월 최시형은 전국을 떠돌며 피신을 하게 되었으며 1876년경에는 경상도 동해안과 강원도에까지 동학이 전파 되었다. 1880년에 이르러서는 교단이 안정되고 자금도 만들어져 그간 미루었던 동학 경전간행을 실행하게 되었다. 1880년 경진년(庚辰年) 5월에 인제군 남면 갑둔리 김현수(金顯洙, 字致雲)의 집에 경전간행소를 차리고 『東經大全』 간행작업에 착수하여 6월 14일 인쇄를 마치고 다음날인 15일에 경전간행 고천식을 치렀다.

대신사 수운 최제우의 명교가 내려진지 18년만의 일이며, 이때 만들어진 『東經大全』을 경진년에 인제에서 인쇄되었다고 하여 ‘인제 경진판’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러나 인제 경진판 『東經大全』을 최초로 목판본으로 인쇄하였다는 기록상으로만 존재할 뿐 판본 실물은 보존되지 않고 있었다. 『崔先生文集道源記書』에 의하면 1880년(庚辰年) 5월 9일에 수운 최제우의 문집을 만들기 위해 경전각판소를 인제 남면 갑둔리에 차려놓고, 개간(開刊)에 들어가 한 달여의 작업 끝에 음력 6월 14일 인출(印出)하게 되었다고 전한다.

『海月先生文集』에 의하면 이때 간출된 『東經大全』 부수가 100여부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경전간행을 위해 힘쓴 신도들의 공적을 기록한 별공록(別功錄)을 만들었으며 15일 아침에 봉고의례(奉告儀禮)를 엄숙히 봉행하였다고 기록이 남아 있다. 그러나 간행된 지 130년이 넘도록 나타나지 않고 있던 인제 경진판 『東經大全』은 2007년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에 기증된 어느 독립운동가의 유품 속에서 발견 되었으며, 관련 연구자와 학계의 고증을 거쳐 2010년 10월 ‘새로 발견된 목판본’

이 인제 경진판 『東經大全』으로 확인되었다.

한양대학교 윤석산 교수는 ‘새로 발견된 목판본’이 인제 경진판이라는 이유로, ‘새로 발견된 목판본’에서는 ‘논학문’을 ‘동학론’이라고 표기하고 있는데, ‘동학론’이라는 제목은 초기동학 문서에서 나오는 이름으로, ‘새로 발견된 목판본’ 외에는 이전의 어느 판본에서도 사용되지 않았던 제목이다. 또한 ‘새로 발견된 목판본’은 다른 판본들에 비해 잘못된 표기가 많았고 고자(古字)로 표기된 부분 역시 많았다. 이와 같은 점이 ‘새로 발견된 목판본’이 가장 오래된 초기 동학의 판본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것이 윤 교수의 주장이다.³⁾



동경대전 『東經大全』 경진판 판본

3) 윤석산, 「천도교 경전과 범설에 관한 고찰」, 천도교교수회, 2010

인제 경진판『東經大全』이 절판되자 인제집(麟蹄接)의 김병내(金秉鼐, 字는 光文)는 1888년(戊子)에 『東經大全』을 중간했다. 김병내는 인제군 남면 무의매리 사람으로 대신사 수운 최제우의 둘째 아들 최세청의 처당숙이며 학식도 높았다. 무자판『東經大全』은 ‘누락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간행한 판본으로 보인다. 현재 천도교중앙총부에 원판본이 보존되어 있으며, 정선에 사는 유시현(劉時憲, 實常)의 후손인 유돈격(劉墩格)이 필사본을 소장하고 있다. 『東經大全』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한정된 시간에 소개할 수 없는 것이라 생략하겠다.

3. 해월 최시형 피신지

1)느릅정이(楨木亭)

해월 최시형은 1894년 9월 18일 청산 소사전(小蛇田) 문바위골에서 일본에 항거를 하기 위하여 총 기포령을 내리고, 임실 조항리에서 동학농민군을 몸소 지휘하는 등 수많은 고초를 겪으며 동학농민군과 전투를 함께 한지 3개월 만에 동학농민전쟁의 종료를 선언하였다. 해산된 동학농민군은 관군과 일본군의 추격을 피해 깊은 산이나 인적이 드문 곳으로 찾아다녀야 했으며 해월 최시형도 눈 쌓인 산길을 타고 피신을 하여야하는 몸이 되었다.

그해 12월 24일 해월 최시형과 의암 손병희가 이끌던 동학농민군은 충주 외서촌 되자니 마을에서 마지막 전투를 벌였다. 무극 방면에서 추격해 온 청주(淸州)의 관군들과 일병(日兵)들과의 최후의 일전에서 완전히 패하게 된 후, 해월 최시형은 제자인 의암 손병희를 비롯한 동학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각자 나누어서 피신하도록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관군과 일본군의 포위망을 어렵게 뚫고 빠져나온 해월 최시형과 그 일행들은 북쪽으로 발길을 재촉하며 깊은 산중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충주의 북쪽 지역으로는 원주, 횡성, 지평, 홍천, 인제 등 태백산맥 줄기를 타고 마을이 이어져 피신하여 숨을 곳을 찾는 것이 용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기록에 의하면 해월 최시형은 손병희, 손병흠, 손천민, 김연국 등 제자 일행과 함께 홍천에서 잠시 머물다가 이듬해인 1895년 1월 현재 인제군 남면 유목정 마을인 느릅정이에 있는 동학교도인 최영서(崔永瑞)의 집에 도착하게 되었다.

해월 최시형은 12월 24일 충주 와서촌을 출발하여 추운 날씨와 추격을 피하며 고생한 끝에 인제군 남면 느릅정이에 도착하게 된 것이다. 느릅정이에 관하여 전해지는 기록을 원문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布德 26年(1895) 乙未 正月에 神師 麟蹄郡 崔永瑞家에 潛居하사 孫秉熙,
孫秉欽, 孫天民, 金演局으로부터 道理를 講하시다.



느릅정이(유목정) 전경

인제군 남면의 느릅정이를 은신처로 삼고 난후 해월 최시형은 외부출입을 일절 하지 않고 은둔생활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인제는 초기 동학의 포교과정에서 많은 동학교인의 이름과 활동이 기록에 전할만큼 동학의 교세가 탄탄한 지역이었으므로, 인제집에서 해월 최시형의 은둔생활을 뒷바라지 하는 것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전하고 있다.

하지만 해월 최시형이 머물렀던 동학교인 최영서의 가정형편 역시 가난한 형편이기는 마찬가지여서 항상 먹을거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한다. 이에 손병희, 손병흠, 손천민, 김연국 등 제자들이 멀리까지 나가서 경제활동을 하여 스승의 어려운 생활을 조력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 다른 기록에는 이중훈(李鍾勳)이라는 인제집의 동학교인이 논 10두락을 팔아 의복과 돈 200냥을 해월 최시형의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기부한 것이 전해지고 있다.

『천도교창건사』에 남아있는 해월 최시형의 인제군 남면 느릅정이에서의 생활상에 대하여 살펴보면 “군자·환란에 처하여는 환란의 도를 행하며 곤궁에 처하여는 곤궁의 도를 행함이 가하니 제군은 모두 天理에 순응하며 기회를 기다리라”고 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해월 최시형은 자신의 총 기포령 발동으로 인하여 수많은 동학교도들이 동학농민전쟁에 참가하여 목숨을 잃게 된 일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하였으리라 생각된다.

이와 함께 해월 최시형이 느릅정이에서 지낸 1년여의 기간 동안을 환란의 도(道)와 곤궁(困窮)의 도(道)를 스스로 체험한 기간이라는 것이 『曹錫憲歷史』⁴⁾에 기록되어 있는데

지난해 납화석(臘晦夕)에 이 땅(인제 느릅정이)으로 왕립하신 후 지금까지 문 밖에 나가지 않고 오는 사람만 만나보니 이는 수옥(囚獄)이나 다름이 없었다. 고 남아있다.

4) 『曹錫憲歷史』



느릅정이(유목정) 항공사진

2) 성황거리(서낭거리)

성황거리 또는 서낭거리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해월(海月) 최시형(崔時亨)이 인제 남면 갑둔리에 은거하며 보낸 1년여 동안 그의 행적을 설명하는 가운데 자주 거론되는 지명이다. 성황거리나 서낭거리로 이름을 달리하는 연유는, 마을의 전래신 양인 성황신(또는 서낭신)을 모시는 성황당을 서낭당으로도 부르고 있기에 성황당이 있던 곳이므로 성황거리로 부르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래 인제군 남면 갑둔리는 원갑둔리와 성황거리(서낭거리)를 포함하여 수거재 서쪽일대를 부르는 지명이다. 성황거리의 위치는 남면 갑둔리 김현수 생가 터에서 5킬로미터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인제군 상남면 원갑둔리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다.⁵⁾ 서낭⁶⁾이란 옛날사람들이 큰 나무에 신이 있다고 믿으며 마을신을 모셔두고 길을 지나가다가도 예를 표하고 지나가며, 일 년에 한, 두 번씩 제사를 지내기도하고 집안에 우환이 있거나 마을에 흉한 일이 생기면 찾아 와서 빌기도 하던 곳이다.

원갑둔리의 서낭은 예전 갑둔초등학교 운동장이 있던 곳에서 서쪽에 있었다고 한다. 그 자리에 매우 큰 엄나무가 서있었다고 전해지는데 언제 어떻게 없어졌는지는 모르나 나무 밑둥의 크기가 열두 사람이 둘러 앉아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크기였다 한다. 또한 베어낸 엄나무로 만든 뒤주를 가지고 있던 갑둔리 주민에 대한 이야기도 남아 있는 것으로 미루어, 일제강점기에 민족의 구심점인 우리나라의 전래 신앙을 말살하려는 일제의 간계에 의한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었다.



인제군 남면 갑둔리 구 갑둔초등학교 모습

5) 『인제군사』, 제2편 향사, 1996, 230쪽

6) 『인제군 유적, 지명, 전설』 2007 향토사료집, 인제문화원, 205-206쪽

III. 인제의 동학사(東學史) 관련 인물

인제는 동학(東學)의 최고 경전인 『東經大全』을 3차례나 주관적으로 간행한 지역으로 동학교단사와 동학관련 사료인 시천교역사, 최선생문집 등에 기록되어 있다. 동학 교조(敎祖) 수운(水雲) 최제우(崔濟愚)가 1860년 음력 4월 경주 용담에서 동학을 창도한 후, 1863년 그가 순도하자 해월(海月) 최시형(崔時亨)이 2대 교주로 뒤를 이었다.

그 후 1905년 의암(義菴) 손병희(孫秉熙)에 의해 천도교로 개칭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자주 거론되는 이름이 있는데 그가 구암(龜菴) 김연국(金演局)이다. 구암 김연국은 해월 최시형의 제자 중 가장 측근에서 해월 최시형을 보필하였던 사람이다. 1898년 해월 최시형이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교수형으로 순교하고, 이미 스승인 해월 최시형으로부터 도통을 이어받은 의암 손병희가 동학의 3대 교주가 되었다.

스승으로부터 도통을 전수받은 의암 손병희는 1905년 12월 1일 동학을 천도교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후 1910년에 창간된 천도교회월보를 보면 당시 인제의 천도교 교세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삼을 수 있게 되었다.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에는 최초 동학의 조직의 근간이 되었던 접과 포를 기준으로 하여 수많은 인제접의 교인들이 포덕사, 종법사 등의 직책을 갖고 활약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인제지역의 탄탄한 교세를 바탕으로 하여 3차례나 경전을 간행하는 역사적 위업을 이루어 낼 수 있었으며, 2차 농민봉기이후인 1894년 12월부터 다시 기는 몸이 된 해월 최시형이 중앙에서 파견된 관군과 일본군의 추적을 피해 인제에서 수년간 피신과 은신을 거듭할 수 있었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지역에서 해월 최시형이 행하였던 포교과정 전반과 경진판 『東經大全』간행을 전후하여 인제와 관련한 행적을 살펴보았다. 또한 동학농민전쟁 이후에 인제에서 피신하였던 지역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특히 인제

에서 그를 따랐던 동학교인 구암 김연국과 김계원(金桂元), 김병내(金秉鼐) 등 동학교인들에 대하여 세부적인 자료조사를 병행하였다.

1880년 경진년에 최초로 『東經大全』을 간행하게 되었던 것과 1888년 무자년에 『東經大全』이 중간(重刊) 되었던 지역이 인제군 남면 갑둔리이며, 이러한 배경에는 인제지역의 탄탄한 동학교세를 발판으로 활발한 포교 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이다. 해월 최시형이 포덕활동을 펼쳤던 중심에 인제가 있었던 것과 그들을 따르던 많은 교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향토사에 근거한 인물학습의 대상으로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김병내(金秉鼐)는 수운 최제우의 둘째아들인 세청의 처당숙으로, 동학이 혈연과 지연을 이용한 포교 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제군 남면 무의매리에 살던 기록이 남아있는 김병내는 구암 김연국의 삼촌으로 금번 연구로 그에 대한 미흡한 부분을 문헌자료로써 보충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강원도 출신으로 유일하게 동학농민전쟁과 관련하여 총독부 재판기록이 남아있는 인물인 김계원(金桂元)에 대하여도 반드시 연구가 필요하다.

1. 구암(龜菴) 김연국(金演局)

구암 김연국은 인제 남면 신월리 출신이며 조실부모하여 숙부인 김병내의 집에서 살았다고 한다. 고향을 떠나 처음 살게 된 곳이 영월과 정선지역이었으며 생활이 매우 곤궁 했었다고 전한다. 해월 최시형이 영월, 정선 인근에서 포교활동을 하던 1870년경 동학에 입도하였던 숙부의 영향으로 구암 김연국도 동학에 입도하였다. 당시 구암 김연국의 나이는 16~7세였으며 이때부터 해월 최시형을 평생 동안 모시고 다녔다.

구암 김연국은 해월 최시형의 핵심적인 제자 중의 하나로 의암 손병희, 송암(松菴) 손천민(孫天民)과 함께 이른바 삼암(三菴)으로 불리기도 했다. 구암 김연국은

1871년 이필제(李弼濟)의 난(亂)을 겪은 해월 최시형이 경상도와 강원도 등으로 숨어 다니며 포교하던 무렵 동학에 입도하였다고 전해진다.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숙부댁에서 자랐으나 생활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못했다고 한다.

구암 김연국은 해월 최시형 사후에 동학을 천도교로 개명(改名)한 동학 3대 교주 의암 손병희와 함께 여러 분파로 나뉘어지게 되는 동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천도교로 개명 이후 한동안 의암 손병희와 함께 하다가 나중에는 일진회의 이용구와 활동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유로 구암 김연국이 친일파로 분류되어 그에 대한 평가가 의암 손병희에 미치지 못한 것이 아닌지 생각하게 되었다.

해월 최시형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필하던 구암 김연국이 해월 최시형의 중요한 측근으로 등장하는 시기는 1883년경이며 이때부터 구암 김연국은 동학교단의 핵심적인 인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구암 김연국은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인 1893년 1월 광화문 복궐상소(伏閣上疏) 당시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활약하게 되었다.

기록에는 상소를 주도하는 소수(疏首)가 박광호(朴光浩)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원래는 구암 김연국이 소수를 하게 되었는데, 상소를 하면서 소수를 잘못하면 죽게 되는 수도 있다고 하여 박광호가 소수를 대신 하였다. 그런 연유로 구암 김연국은 봉소수(奉疏者)가 되었고 손천민은 제소(製疏)로서 상소문을 작성했다고 한다.

구암 김연국이 동학농민전쟁에 참가한 것은 9월의 2차 기포 때였다. 구암 김연국은 황하일, 권병덕과 함께 충북 보은에서 동학농민군을 일으켰으며, 동학농민전쟁이 끝난 후 원주에서 해월 최시형이 체포될 때까지 측근으로 머물렀다. 구암 김연국은 피신 중이던 1896년 1월 해월 최시형으로부터 도호(道號)를 하사받기도 하였으나 이후의 종교 활동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⁷⁾

구암 김연국은 해월 최시형의 제자 중에서 첫째 제자이었기로 동학농민전쟁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동학교단이 겪게 되는 내분과 갈등의 중심부에 서게 되었다.

7) 「천도교회사초고」

해월 최시형은 동학농민전쟁 이후 피신을 다니던 중인 1897년 12월 제자인 삼암 중 한사람인 의암 손병희에게 도통(道統)을 전수하였다.

의암 손병희는 1901년에 일본으로 망명을 결심하고 구암 김연국과 함께 가려 하였으나 망명을 거절하고 남아있던 구암 김연국은 체포되어 3년 7개월 동안 투옥되었다. 당시 구암 김연국은 의암 손병희의 망명 권유에, 자신은 대도(大道)의 명을 받은 몸이므로 책임이 막중하여 일신의 편안함을 찾아 나라를 버리고 망명할 수가 없으니 갈려면 혼자서 가라고 말했다고 한다.

1904년 망명생활을 마치고 일본에서 돌아온 의암 손병희는 이듬해에 동학을 천도교로 개명(改名)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용구, 송병준이 천도교에서 탈퇴하고 시천교(侍天敎)를 만들었다. 의암 손병희는 1907년 8월 천도교 대도주(大道主) 자리를 구암 김연국에게 물려주었으나, 구암 김연국은 1908년 1월 대도주 자리를 내어놓고 천도교에서 탈퇴하여 시천교로 들어가 대례사(大禮師)가 되었다.

이때부터 구암 김연국은 친일(親日)활동을 하였다는 불명예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으며 죽는 날까지도 오명(汚名)을 벗지 못하였다. 구암 김연국은 시천교에 들어간 이후에도 이용구와 갈등을 겪다가, 충남 계룡산의 신도안으로 내려가 스스로 상제교(上帝敎)를 창도하고 교주(敎主)가 되었다. 충남 계룡산 신도안으로 내려온 것은 그가 가진 종교 지향적 성향과도 관련이 있었던 듯하며, 상제교를 천진교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이후 동학대종원이라는 명칭을 쓰게 되었다.

구암 김연국의 첫부인은 해월 최시형의 서녀(庶女)인 곡강 배씨였으며 다음으로 두 명의 부인을 더 두었다. 곡강 배씨 부인은 결혼 후 몇 개월 살지 못하고 대를 이을 후손이 없이 사망하였고, 그 후 문화 유씨와 김해 김씨 부인이 구암 김연국의 후사를 이어 나가게 되었다. 구암 김연국은 의암 손병희와 함께 동학 정신의 계승이라는 면에서나 동학사(東學史)에 남긴 발자취로나 반드시 인물사(人物史)를 정리하여야 할 인물이다.

인제지역 향토사 연관 자료 수집을 위하여 관련 사료들을 살펴보다 구암 김연국

이 강릉 김씨 한림공파의 후손임을 알게 되었다. 강릉 김씨 대동보를 보관하고 있던 인제주민의 도움으로 대동보에서 구암 김연국이 인제사람이라는 것을 족보상으로 확인하였다. 구암 김연국은 1944년 음력 8월 7일 사망하였고 그의 묘는 충남 계룡산 신도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제군 남면 무의매리에 살던 김병내는 구암 김연국의 속부로서 구암 김연국의 부친인 김병두와 김병내가 형제간이라는 것이 기록상으로 확인되었으나, 김병내는 족보에 올라 있지 않은 것을 강릉 김씨 족보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강릉 김씨 한림공파 대동보를 토대로 구암 김연국을 중심으로 한 가계도는 아래와 같다.

강릉김씨 족보⁸⁾

매월당 김시습

|
[子] 익회(益淮)

|
[子] 도지(道之)

|
[子] 경로(慶魯)

|
[子] 학종(學宗) 학성(學聲)

병두(秉斗)

|
[子] 연기(演杞) - 태경(台卿) 일경(鎰卿)

[子] 연국(演局) - 천경(天卿)

덕경(德卿) - 진묵(振默) - 명기(明起)

병내(秉鼐) 남면 무의매리 거주.

水雲 崔濟愚의 둘째 아들 세정의 처당숙.

병정(秉鼎) : 인제 접주

8) 강릉 김씨 한림공파 대동보

2. 김계원(金桂元, 啓元)

김계원은 총무처 산하 정부기록보존소에 보관되어 있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재판소인 법무아문 권설재판소에서 작성한 재판기록에, 강원도 사람으로서 유일하게 동학농민활동과 관련한 기록이 남아 있는 인물이다. 연구를 진행하며 공초기록으로 불리는 재판기록과 함께 판결문에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적혀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인제출신으로 인제집 동학교인 중에서는 교주인 해월 최시형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필하였던 기록이 시천교역사(侍天敎歷史)와 최선생문집(崔先生文集)에 남아있다. 동학이 관(官)의 지목을 피해 점조직 형태로 전파되어 동학교인들도 같은 접주를 통해 입도하지 않은 이들은 서로 몰랐을 정도로 철저하게 개인의 이름이나 신상정보 등이 보호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연유로 해월 최시형을 가장 근접거리에서 모시고 다녔으며 각종 의식 제례에서 중요 직책을 맡아 수행하였음에도 기록상으로는 자세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인제지역과 관련된 동학농민운동 연구가 이루어진 전례가 없어 그의 행적이나 생몰관계에 대한 문헌도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판결문을 통하여 알 수 있었던 사실들은 동학농민운동의 핵심적 지도자인 전봉준, 손화중 등에 대해서는 극형을 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장흥의 이방언과 금구의 김방서 등 지방단위 지도층에 대해서는 대부분 무죄방면을 시켰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는 갑오개혁정부가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한 자들을 포용하는 정책을 펼쳐 지지기반을 확보하려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전국적으로 동학농민운동과 관련하여 재판을 받은 숫자는 170여명으로 그 중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하여 죄를 받은 김계원에 대한 판결부분이 남아있었다. 김계원은 강원 인제 남면 건달동 사람이며 78세의 농민으로, 비류(匪類)를 체결(締結)하여 인심(人心)을 난혹(亂惑)한 죄를 저질러 곤장 100대를 때린 후에 3,000리 밖

으로 유배를 시킨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기록만으로는 어느 곳으로 유배를 보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동학농민운동 관련기록 이전에 김계원에 대한 기록은 위에서 언급한 해월 최시형과 연관된 부분이다. 김계원에 대하여 「海月先生文集」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토대로 살펴보면, 己卯年인 1879년 3월 9일 해월 최시형이 그를 따르는 강시원(姜時原), 김연국과 함께 영월 거석리(舉石里)에 있는 노정식(盧貞植)의 집에서 잠을 자다 이경(二更)에 즈음하여 수운 최제우 대신사의 꿈을 꾸게 되었다.

그리고 이튿날인 3월 10일 영월을 출발하여 정선 유시현의 집에 들른 후 인제 남면 갑둔리의 김현수(金顯洙)의 집으로 옮겨가서 제사를 올렸는데, 제사를 올릴 때 초헌(初獻)으로 김계원(金桂元, 啓元)⁹⁾이 아현(亞獻)은 장춘보(張春甫)가, 종헌(終獻)은 김치운(金致云, 김현수)이 참여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때 당시 초헌을 맡았던 김계원과 동학농민전쟁 관련 공초에 기록되어 있는 인제군 남면 건달동에 거주하며 63세이고 농업을 하는 사람으로 비류를 결성한 죄목으로 처벌을 받은 김계원이 동일 인물일 수도 있다는 착안을 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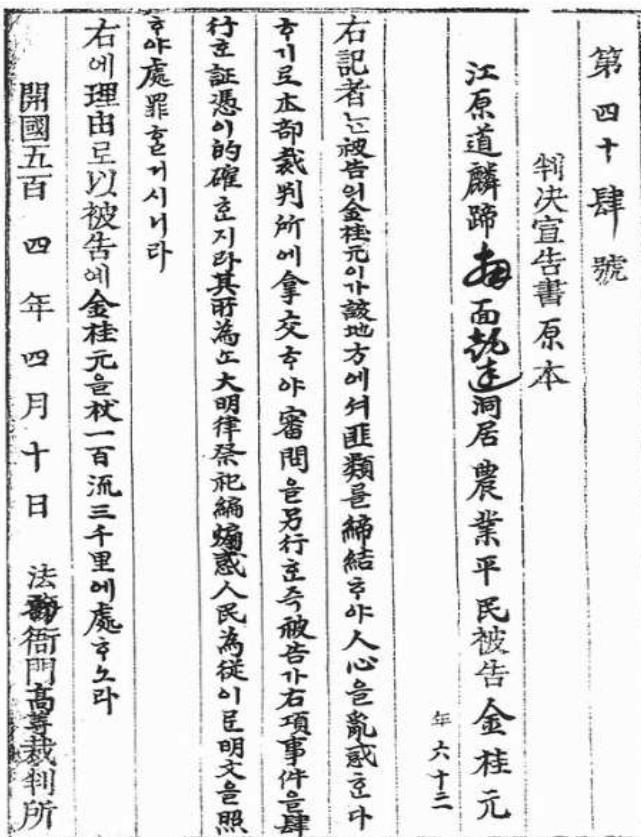
이와 같은 생각이나 의문점이 여기까지 닿은 데에는 『海月先生文集』이나 『崔先生文集道源記書』에서 동일한 특정인의 이름이나 특정 지명(地名)이 한자(漢字)를 서로 다르게 표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런 가운데 김계원이라는 이름이 서로 다르게 漢字로 표기되어 있지는 않았는지 유념하여 살펴보게 되었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 김현수의 집에서 제사를 올렸고 종헌으로 김치운이 참여하였다고 기록되어, 한 사람은 집주인으로 나와 있고 다른 사람은 제를 지낼 때의 종헌으로 서로 다른 사람이 참여 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김치운의 致雲 또는 致云은 김현수의 字 즉, 어릴 적 부르던 이름을 일컫는 것이며 이것조차 漢字로 옮겨서 기록하면서 雲을 云으로 기록하는 등

9) 薛東寬, 『해월선생문집』번역 해제, 406쪽

원문 자료에 따라 漢字를 달리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김계원 판결선고서

3. 김병내(金秉鼐)

김병내(金秉鼐)는 인제군 남면 무의매리(舞依梅里, 무매리(舞梅里), 무의내리(舞依內里)) 사람이다. 자(字)는 광문(光文)이고 구암 김연국의 부친인 김병두(金秉斗)의 동생으로서 구암의 김연국의 삼촌이다. 그의 업적은 1888년 무자년(戊子年)

에 『東經大全』을 중간(重刊)한 것이 무자판 『東經大全』발문에 경전 간행을 주도 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후에 간행된 경전은 발문에 더 이상의 기록상으로 남아 있지 않아 확인할 수는 없지만, 2년 후인 1890년 병인판(丙寅版) 『東經大全』의 간행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였을 것이 분명하다.

무자판(戊子版) 『東經大全』으로 불리는 1888년에 중간이 이루어진 목판 인쇄본은 2010년 10월 독립기념관에 기증된 ‘새로운 형태의 판본’이 인제 경진판 『東經大全』으로 확인되기 이전까지는 최초 『東經大全』판본에 가장 가까운 판본으로 인정되고 있었다. 도울 김용옥이 도울심득 『東經大全』에서 그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한양대학교 윤석산 교수가 학술발표회에서 ‘새로 발견된 목판본’을 인제 경진판 『東經大全』으로 확인하며 논란은 일단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알려진 대로 김병내는 대신사(大神師) 수운(水雲) 최제우(崔濟愚)의 둘째 아들인 세청(世淸)의 처당숙(妻堂叔)이며 학식이 상당히 높았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다. 김병내는 인제군 남면 갑둔리와 상남면 김부리 지역에 산재한 마의태자 관련 유적과 연관이 깊은 강릉 김씨이며, 이와 같은 사실은 강릉 김씨 한림공파 족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삼국사기를 집필한 김부식이 강릉 김씨 5대손이며 김병내는 34대손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신사 수운 최제우의 큰아들 세정(世貞)은 인제사람 장춘보(張春甫)의 인제 귀둔리 집에 은신해 있다가 체포되어 1872년 1월 양양 관아(官衙)에 하옥되었다. 이후 김병내는 수운 최제우의 차남인 세청과 그의 처가 식구들을 영월 영춘현(永春縣) 장간지(獐間地)로 피신시켰다. 김병내는 이들과 함께 은신을 하였다가 이듬해인 1873년 가을에 다시 관의 추격을 받게 되면서 완전히 행적을 감추게 되었다.

무자판(戊子版) 『東經大全』은 어디서 중간(重刊)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으나, 인제집에서 김병내가 주도하고 많은 도인들의 협력으로 중간된 것으로 전해진다. 무자판 『東經大全』판본 발문이 남아 있어 경전 간행의 경위와 간행 순서, 간행 참여자를 알 수 있었다. 발문 기록에 ‘누락된 글과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라는

내용으로 보아, 앞서 이루어진 3차례의 경전간행 과정에서 잘못된 오류를 바로잡고자 간행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었다.

김병내의 주도로 중간 간행된 무지판『東經大全』의 원본은 서울 종로구 경운동 천도교중앙총부에서 보관하고 있으며, 해월 최시형과 함께 수운 최제우의 제자였던 유시현(劉時憲)의 후손이 필사본을 소장하고 있다. 정선에 거주하는 유시현의 후손 유돈격(劉墩格) 家에 보존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2010년 여름 정선과 영월 지역의 동학 유적을 답사하던 한양대학교 윤석산 교수에 의해서 확인되었다.¹⁰⁾

인제집의 김병내가 주도하여 중간 간행한 무지판『東經大全』은 도을 김용옥 교수가 그의 저서 도을심득『東經大全』에서 언급된 것과 같이 판각되어진 글씨가 투박한 모습이지만, 지난해 ‘새로 발견된 목판본’인 인제 경진판『東經大全』의 잘 써여진 글씨로 세련된 모습과 비교하여 정감이 가는 판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책 내용에서 밝힌바 있다.¹¹⁾

하지만 여러 문헌상에 구암 김연국과 조카 당숙지간으로 기록되어 있는 김병내는 그의 본관인 강릉김씨 문중에서 만든 족보에서 이름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대한 연유도 추후 향토사 연구과정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IV. 결 론

이상과 같이 인제 남면 갑둔리 동학 유적과 인제 출신으로 동학과 농민운동에 지대한 공로를 세운 인물들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한정된 시간과 자료만으로 150년 역사에 빛나는 동학교단사 전체를 아우를 수는 없는 것이었으며, 동학 교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종교적인 부분과 동경대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접근이

10) 윤석산, 「천도교 경전과 법설에 관한 고찰」, 천도교교수회, 2010

11) 김용옥, 도을심득 동경대전(1), 218쪽~222쪽, 통나무, 2004

어려웠다는 것을 부연하고자 한다.

다만 본 연구의 목적이 인제출신의 동학관련 인물과 이들에 대한 잘 알려지지 않은 사료들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민들에게 향토사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이었음을 다시 밝혀두고자 한다. 동학 2대 교주 해월 최시형의 은신과 피신이 시발점이 되어 동학의 교세가 마른 잎에 불을 불인 듯 전체로 퍼져나갔던 1890년 대 인제의 지역향토사를 살펴보는 계기도 마련되었다.

1894년에 일어난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현재 사회의 인식은 너무나 빈약하다. 국사니 역사니 하며 확고히 정해지지 않은 우리나라 역사관련 교과이름부터 문제가 있다. 교육현장에서조차 농민전쟁이나 농민혁명, 민란 등의 용어로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919년 기미독립만세운동을 시발점으로 우리사회 의 커다란 변혁과정의 중심에 함께한 우리나라 민중운동의 근간이 되었던 동학농민운동이 수모를 겪고 있는 것이다.

그간 동학농민운동은 반봉건 농민운동으로 평가되어 참여자들이 왕조와 정부에 무장대항한 죄인으로 여기어 졌었음은 사실이다. 그러던 중 지난 2007년 동학농민 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한 이들에 대한 신원이 이루어졌다. 뒤늦게나마 선조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법률은 만들어졌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연구나 국가 전체로 보았을 때의 평기는 매우 미흡한 현실이다.

동학경전을 간행할 정도로 신도들의 교세가 인제에서 최초로 동학경전이 간행 되어 동학정신의 뿌리를 굳건하게 하는 모태이자 산실의 역할을 하였던 인제에, 동경대전 간행이 최초로 이루어진지 130여년이 지나도록 이를 기리는 작은 기념비 하나가 세워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 안타깝고 부끄럽다.

이제라도 동학농민운동 당시 자신들의 죽음이나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참여하였던 지역출신 인물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있어야 한다. 동학농민운동 참여 자들의 후손들도 찾아내어 조상들이 나라를 위해 얼마나 큰일을 하였는지 제대로

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동학농민운동 정신을 어떻게 계승하고 실천해 나갈 것인지도 고민해보아야 한다.

앞으로의 과제는 이미 전국적으로 20여 지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각종 동학농민운동관련 선양사업들과 연계한 인제 남면 동학유적에 대한 보존과 선양사업이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다. 인제군은 2001년부터 추진되다가 중단되고 말았던 사업인 동경대전 간행소터 유적지 기념비 건립사업을, 지난 3월부터 재추진하여 인제 남면 갑둔리에 동경대전 간행소 유적지 기념비를 세우는 사업을 검토 중이다.

이에 덧붙여 추진되어야 할 일들은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빛나는 지역향토사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고 가꾸어야 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가칭 인제남면동학유적보존선양사업회를 발족시켜서 보다 체계적인 동학농민운동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행정에서 연구비나 보조금을 지원 받는 성격의 기구로 만들어져서는 안된다.

정부나 기관 주도의 향토사연구는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면 연구도 함께 중단되어 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들을 미리 차단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도 재단법인 형태의 연구기관으로 인제지역 동학농민운동 관련 연구나 사업이 시작되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이와 함께 일자리창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 형태로의 업무추진도 고려해 보아야할 부분이다.

향후 관련 연구 성과나 결과물에 따라 인제남면동학유적보존선양사업회 주도의 전국적인 사업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전북 정읍에서 열리는 ‘황토현동학축제’나 전북 고창의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기념제’와 충북의 보은취회를 기념하는 보은동학제 등의 예를 들어도 그러하다.

인제의 경우에는 동학농민운동선양사업과 맥락을 같이 하여 매년 음력 6월 15일에 1880년 음력 6월 15일에 해월 최시형이 하였던 동경대전 간행 고천식을 재현하는 것을 시작으로 동학유적지 순례를 겸하여,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인제동학축제를 개최하는 방안을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동학정신이야말로 오늘날 대한민국

을 있게 만든 민중운동의 근간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양사업과 동학유적지 정비사업과 같은 업무의 추진 주체는 지역문화원이 주도가 되어 추진해야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문화원도 문화관광부서로 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전체적인 사업을 하는 단체이므로, 동학유적지 정비와 선양사업, 지역향토사 연구를 위한 별도의 예산배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내어 놓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강원 인제 남면 갑둔리 동학유적지 선양보존 사업과 지역향토사연구 방향은 ‘사회적기업’을 모태로 하는 것이다. 해당지역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법인 단체가 연구를 수행하고, 최초의 동학 경전 간행을 기리는 학술행사나 선양사업을 축제형태로 주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졸고를 마치는 바이다.

참고문헌

1. 자료

東經大全

曹錫憲歷史

崔先生文集道源記書

천도교회월보 제59편

천도교창건록 제1집

吳尙俊, 本教歷史

李敦化, 天道教創建史, 天道教中央宗理院, 1933

吳知泳, 東學史, 永昌書館, 1940

東學農民戰爭史料叢書 29, 待天教 宗繹史, 史藝研究所

2. 연구 단행본

김득광, 『한국종교사』, 대지문화사, 1963

박맹수, 「해월 최시형의 초기행적과 사상」, 『청계사학』3, 청계사학회, 1986

강원도사, 역사편, 강원도 1996

인제군사, 인제군, 199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1997

유동식, 「풍류도와 한국의 종교사상」,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7

부산예술대학 동학연구소, 『해월 최시형과 동학사상』, 예문서원, 1999

한국동학학회, 「동학의 문화유적순례II(강원지역)」, 동학연구 9~10, 2001 349쪽~390쪽

김용옥, 도을심득 동경대전(1), 통나무, 2004

표영삼, 『동학1-수운의 삶과 생각』, 통나무, 2004

김삼웅, 종교, 근대의 길을 묻다 - 사건으로 본 한국의 종교사, 인물과 사상사, 2005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 「동학농민혁명사일지」, (주)계문사, 2006

강원문화재대관, 도지정편II, 강원도

3. 연구 논문

강기영, 동학의 시대적 배경과 성격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박맹수, 최시형연구-주요활동과 사상을 중심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1995

원영환, 강원도지방의 동학과 동학혁명, 강원문화사연구 제5집, 강원향토문화연구회, 2008

윤석산, 천도교 경전과 법설에 관한 고찰, 천도교교수회, 2010

박대감사당제를 민속 문화축제로 활용(제안)

박 광 택

민속신앙은 우리민족의 소중한 문화자산이며 미풍양속입니다.

그러나 개신교를 비롯한 많은 종교가 들어오고 사회가 첨단과학문화사회로 바뀜에 따라 수많은 민속 문화 가 이미 잠식 되었고 일부 명맥을 유지해오던 당제도 완전히 잠식될 위기에 있음을 안점으로 민속신앙의 표본인 기린의 박대감사당제를 민속 문화축제로 활용함으로서 지역소득원의 기회로 삼고 이를 바탕으로 민속 신앙문화를 계속 유지계승 확대발전시키고자 함에 기린의 민속 문화축제 활용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2010. 6.

목차

- I. 박대감사당제를 민속문화축제로 활용제안
- II. 박대감사당제의 본질
- III. 인제의 민속문화
- IV. 민속신앙에 대한 견해
- V. 창말(현리)의 환경(環境)
 - 1. 산천(山川) 환경
 - 2. 시대적(時代的) 환경(기린면沿革)
- VI. 박대감 의 인물
- VII. 박대감사당제(朴大監祠堂祭)
 - 1. 제(祭)의 명칭
 - 2. 마을신앙제(信仰祭) 와 문중향사(門中享祀)
 - 1) 박대감사당
 - 2) 마을사당제
 - 3) 문중향사
- VIII. 영험담(靈驗談)
- IX. 하마로(下馬路)의 전설실화(傳說實話)

I. 박대감사당제를 민속문화축제로 활용제안

1. 착안점

민속신앙에 의한 당제(堂祭)는 인격신을 모신 사당제 와 자연신을 모신 서낭당(성황당), 산신당 등이 있다. 인제는 이러한 민속신앙문화가 가장 발달 하였던 지역이다. 자연환경이나 역사적, 지리적, 교통 환경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주어진 여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실존인물의 신위를 지역마을의 수호신으로 신봉한 예는 많지 않다. 기린의 박대감 이라고 이름 한 인물은 고려사가 기록한 실존인물로서 당시의 업적과 환경이 시대적, 지리적으로 부합되는 인물이다. 생시에 나라에 충신이며 기린지방을 외부침입으로부터 수호하고 안위 와 질서를 평정 하는데 선정(善政) 함으로서 죽은 후에도 이 지방 사람들이 박대감이라 이름하고 사당을 건축하여 기린지방의 수호신으로 위패를 모시고 “박대감사당제”를 지내온 세월이 700년이다.

수많은 영험과 전설실화를 남기고 전쟁과 혁명을 겪으면서 긴 세월을 지켜왔다.

그러나 개신교를 비롯한 많은 종교가 들어오고 사회가 첨단 과학문화사회로 바뀜에 따라 수많은 민속 문화가 이미 잠식 되었고 일부 명맥을 유지해오던 당제도 완전히 잠식될 위기에 처하고 있음에 안점을 두었다.

이는 민속경연대회에 사당제 및 하마로의 전설실화를 스토리공연 형식으로 출연 할수도 있을것이다.

2. 목적

- 1) 현세대와 후세대에 조상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풍요로운 현실 속에서 과거를 잊고 살아가는데 대한 반성의 기회를 제공한다.

- 2) 잠식되어가고 있는 민속신앙을 다시 조명함에 있어 인물신을 지역의 수호신으로 신봉하는 “박대감사당제”를 마을신앙의 표본으로 삼아 그 소중한 문화적 가치를 계속 승화 발전시켜 보전하기 위함이다.
- 3) 기린면을 “박대감마을”로 특색을 홍보하여 인제지역 소득원의 기회로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속 확대발전시키고자 함에 있다.

3. 주어진 환경

1) 자연환경

설악산을 접하여 점봉산, 방태산 등 유명한 산이 있는 하늘이 내린 첫 동내가 기린면이고 여기서 발원하여 한강으로 흐르는 내린천이 있다. 흐르는 물을 따라 펼쳐지는 풍경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그야말로 공기 좋고, 물 좋고, 경치 좋고, 인심 좋은 곳 기린은 우리나라의 정자(亭子)이다. 여기에 방동약수는 심메마니의 전설을 품고 중생들에게 손짓하며, 인접 한 곳에 방태산 휴양림이 있다.

2) 역사적 환경

고구려와 신라시대에는 삭주(춘천)의 영속으로 기지군(基知郡)이었고, 고려태조 23년(904)에 기린현이 되었으며 지금의 인제읍 귀둔리에 치소(治所)가 있었다. 조선태종13년(1413)에 치소를 방동리 방골로 옮겼는데 방동약수와 방태산휴양림 입구의 방태천 삼거리이다. 역사적으로 계속 춘천의 영속이었던 행정구역이 1906년 왜정치하에 처음으로 인제군 기린면으로 편제 되면서 치소(면사무소)가 현5리 덕교(덕다리)로 이전 되었다가 1917년 행정 신관제 시행과 함께 면사무소가 지금의 현1리(창말)로 옮겨졌다. 1945년 일본으로부터 해방 되었으나 미국과 소련의 신탁통치협약에 의하여 38도선으로 인제군이 양분됨으로 기린면은 홍천군에 편입되었다. 1950년 한국전쟁을 거쳐 1953년 당시의 점령지 상태로 휴전이 되어 인제

군전역이 수복됨에 따라 기린면은 1954.2.20일 다시 인제군으로 환원 되었다.

3) 교통 환경

지금은 도로사정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수도권에서 인제읍까지는 고속도로와 4차선도로가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있고 기린으로 가는 길은 수려한 경관이 있어 관광효과가 있다. 또 홍천에서 상남면을 거치는 길도 두 가지길이 있는데 아홉싸리고개와 행치령 고개에 얹힌 전설을 타고 가는 재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경관도 매우 좋다.

방동약수와 방태산휴양림이 있는 방동리와 진동계곡을 거쳐 양수발전소와 양양으로 가는 그 경치가 지루함을 잊게 하고 귀둔리를 거쳐 한계령 정상에 이르는 길 또한 관광의 1번지이다.

이러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멀지 않은 시기에 서울 양양 간 고속도로가 개통 될 예정이다.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기린은 인제 나들목이 된다. 서울에서 한 시간 거리다.

“박대감사당제”를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면 수도권은 물론 전국의 관광객을 불러 들일 수 있다.

4. 축제 실행의 과제

관광객을 불러 들여 그들에게 팔 수 있는 특산품과 먹거리, 체류할 숙소 등을 개발 하는 데는 행정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기린농협에서 생산 공급하는 “내린천두부”는 일품이다.

우리 콩 재배를 장려하여 수매하고 판로를 개척 하여 질 좋은 순 우리 콩 두부를 대량 생산 좋은 가격으로 판매 한다면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 1) 인제에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특산품이 없다. 북면의 황태가 전부다.
인진쑥, 치커리, 고랭지채소 등을 들 수 있으나 그 인지도가 부족하며 산채나물의 저장과 재배기법을 개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 2) 축제의 장에서 입장료나 이용료를 징수 할 수 있는 시설상품 개발과 인제관내 읍, 면이 함께 참여 하여 농악 등 볼거리를 제공 하는 문제. 연예인은 아니라도 관내 예술단체 공연, 사물놀이 같은 학생동아리공연, 어린이 그림그리기(시상), 백일장(시상) 등의 유치에 관한 사무.
- 3) 역사와 자연환경을 접한 인제관내의 관광지를 연계하는 관광 로드를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방안의 연구.
- 4) 축제장소, 시설, 배치, 주차장, 숙박시설, 안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 5) “박대감사당제” 재현의 연출인사와 출연인에 관한 일. 홍보방법 등

5. 축제의 방법과 진행

- 1) 개막 전일 오후 박대감사당에 예전의 제례(祭禮)로 제를 올린다.
축문은 축제를 개막한다는 내용을 포함 한다.
사당제 재현은 축제가 열리는 동안 매일시행하면 좋을 것이다.
하마로의 전설실화 재연은 스토리공연으로 연출 할 수 있을 것이다.
- 2) 진행은 유사한 축제의 진행방법에 준하여 한다.

II. 박대감사당제의 본질

1. 신격 : 인물신(人物神) – 인격신(人格神)의 실존인물

2. 인물 : 박원굉(朴元泓) (改名: 光挺 門中史推定 1246-1310)

고려 원종조(1259-1274)에 문과급제. 충열왕5년(1279) 원나라에 들어가 왕명 수행. 중서문하성 찬성사(정2품)에 오름. 1281년 부친(삼중대광 문하성 찬성사(정1품) 춘성부원군 문의공 朴恒)께서 서거하심에 정치에 회의(懷疑)를 느끼고 조정을 떠나고자 하니 충열왕(1274-1308)이 기린현(치소 귀둔리)에 만호로 임직케 하였다. 문무를 겸한 공은 동해안 양양지방으로부터 침입하는 왜구를 물리침으로서 지역 수호와 안위에 힘썼다. 재세당시(在世當時)에는 나라에 충신으로 선정(善政)하였고 지역방위수호에 헌신함으로서 서거 후에도 지역사람들이 지역 수호신으로 예경(禮敬)하여 사당을 지어 향례(享禮)하고 “박대감”이라 존경함에 700년이 흘렀다.

3. 사당 : 박대감사당(朴大監祠堂)

박대감사당은 최초의 건축규모를 상고 할 수 없으나 서거(逝去) 직후부터 지역사람들이 신봉(信奉) 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분명한 것은 옛날부터 이 지방 사람들이 이 수호신으로 박대감사당제를 지내왔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현존하는 사당은 1915.3.12일(상량문)에 건축 된 것이다. 아무렵 배위이신 나주 정씨(삼중대광 可臣의 딸) 할머니당(堂)이 하마로 옛길로 동천(東川)에 이르는 길 가 언덕에 목재판자로 건축 되었다. 1950.6.25사변당시 할머니당은 소실되었고 박대감사당도 크게 훼손되어 이기룡 면장 재임당시(1945-1960) 면에서 중수하였는데 상량목은 본래의 것이다. 이는 필자(1941생)의 선친과 조부로부터 구전 된 것이며 필자도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 조부를 따라 목견(目見)한 사실이다.

현재 사당내에 신위(神位)와 제단(祭壇) 등 석물(石物)은 1997. 7월 필자가 종친 회도유사(宗親會都有司)로 재임 당시 주관하여 묘성(墓城)을 치수(治修)할 때 아울러 설치 한 것이다. 이는 조상의 위폐를 모시고 제를 올리는 당 내부(堂内部)를

정화(淨化)하고 위폐가 없어짐을 방지하기 위함 이었다. 예전에는 지위(紙位)나 목재위패(木材位牌)를 모셨는데 자주 없어졌다. 무속인들이 모셔 가는 것 같았다. 창말(현1,2,3리)에는 옛날부터 서낭당이나 산신당이 없다.

4. 박대감사당제와 문중향사(門中享祀)의 관계

문중에서는 향사일 새벽 도가에서 제물을 준비하였음을 미리 고하기 위하여 도가 주인이 간단한 제물을 준비하여 부정한 사람의 목격을 피해 사당에 다녀온다.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한다. 문중에서는 사당에서 제사하지 않는다. 사당은 지역민들이 수호신을 모시고 제사하는 당집이고 문중에서는 묘제로 하며 사정에 따라 재실(齋室)에서 제사를 지낸다.

1972.7.24일 3군단사령부 이전부지에 소재하던 묘를 사당 인근으로 이장함에 따라 문중에서 치산사업을 하는 등 향사를 묘제로 제사함에 따라 이를 보는 마을 사람들이 마을사당제가 문중제로 변한 것으로 인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70년대 이후 창말에서 제비를 거두지 않고 사당제를 지내지 않는 것 같다.

또 새마을운동은 민속신앙의 침체에 원인이기도 하다.

아주 옛날은 잘 알 수 없으나 이기룡 면장 임기(1945-1960) 당시에는 면장이 구장(이장)회의에서 제일(祭日)을 정하고 제비는 창말 구장이 주관하여 거두었으며 제수준비는 이 마을 부인회(부녀회)에서 하였다.

5. 사당제의 참여범위

면장이 제삿날을 결정하고 사당제의 초헌관이 되며 각 구의 구장들이 참여 하였던 것으로 보아 면단위의 사당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참여 주민들은 거의 창말 사람들이었다. 제가 끝나면 주민들이 장터거리에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한

바탕 축제의 장을 펼쳤다.

이 시기에 다른 각 마을에서는 서낭제를 지냈다. 이상의 내용은 필자(1941생)가 알고 있었던 사실이다.

III. 인제의 민속문화

1. 현황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주민소득을 증대 시킬 수 있는 축제를 개발하여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실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북면의 황태축제와 남면의 빙어축제가 있으나 이는 기상악화 등 자연현상에 의하여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인제군은 민속문화가 발달한 고장이다.

인제군사(1996)는 민속문화편에 전통의례와 세시풍속을 소개했고 생업민속으로 민속경연대회에 출연했던 갈이남박 만들기, 뗏목, 바지개선질군, 숫굽기, 와승냥간베림질, 심메마니 등을 들었고 생활민속으로 가마니짜기, 김장, 그네, 다리미, 맷돌, 물방아, 빨방아, 배틀, 구수분틀, 장승과 민속놀이 및 오락을 소개했다. 민속신앙으로는 대감성황제(권대감제, 박대감제), 산신제, 기우제, 무후사제, 김부대왕동제 등을 들었고 구비전승으로 읍면별 전설과 민요를 소개했다. 여기서 권대감제와 박대감제를 성황제로 제목하였는데 이는 옳지 않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성황(城隍)은 서낭의 원말이고 “서낭”은 성황의 속어로서 서낭신이 붙어있다는 식물(장수목)을 뜻한다. 이는 자연신(自然神)으로서 자연신을 모신 건축물을 성황당(城隍堂)이나 “서낭당”이라고 한다. 죽은 사람의 위패(位牌) 즉 신주(神主)는 인격신(人格神)이며 신주를 모신 집은 사당(祠堂)이나 묘(廟)이다.

박대감신(朴大監神)은 인격신이며 고려사에 기록 되어 있는 실존인물로서 인물

신(人物神)이다. 신격(神格)이 바뀐 것이다.

따라서 제(祭)의 명칭은 단순한 동제(洞祭)가 아니라 제격(祭格)이 면단위의 수호신(守護神)으로서 박대감사당제(朴大監祠堂祭)이며 이지방 기린사람들이 지방수호신으로 신봉(信奉)하는 민속신앙제(民俗信仰祭)이다.

2. 민속신앙의 조사와 기록의 필요성

1) 마을신앙의 과거와 현재

조선시대 산곡간(山谷間)에서 농사하는 사람들의 신앙은 조상신이었다. 재화(災禍)로부터 보호 받기위한 무당은 경제적 부담이 커졌다. 어떤 대상(對象)을 믿고 의지 하려는 정신적 인간심리에 의하여 정해진 신에게 그들은 안녕 속에 부와 자손, 무재, 무병, 장수를 소원하고 빌었다.

신은 엄정(嚴正)하고 선(善)했다. 그래서 그들은 신의 이치(理致)에 반하면 벌이 내린다는 것도 안다. 삶의 도리에 어긋남이 있으면 스스로 잘못의 용서를 신께 빌었다. 신을 믿고 의지하며 마음을 다스려 선한 삶을 살려했다.

마을이라는 집성사회에서 그들은 그 안에서 서로 돋고 의지하며 공동으로 신께 소원을 빌고 신의 이치와 삶의 도리에 어긋남을 상호견제하고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저지른 자는 마을에서 축출하기도 했다.

신은 자연신이거나 인격신이거나 가상신이거나 그들이 그들 마을의 수호신을 정하고 제사하여 신봉하는 것이다. 이것이 마을신앙이다.

마을신앙은 협동심을 높여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 했을 것이다.

민속신앙은 한국전쟁 당시를 정점으로 60년대에 들어 개신교를 비롯한 많은 종교가 번창하고 새마을운동의 확산과 첨단과학의 문명시대로 전환하는 시대사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지금은 침체의 길을 가고 있다.

2) 조사 기록의 필요성과 과제

민속신앙은 우리민족의 문화이며 미풍양속이다.

인물신을 모신 사당이나, 서낭당이나, 산신당 이외에도 살고 있는 집터의 토지신, 집의 용마루, 부엌, 굴뚝, 장독대, 변소에도 신이 있었다. 이러한 신들은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과 가슴속에 신앙심의 전부였다. 이를 잡신에게도 빌었다. 잡신들을 달래거나 물리치는 영험을 가진 사람을 “복술”(卜術)이라 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미 많은 신들이 우리 곁을 떠났고 사당, 서낭당, 산신당 같은 당제는 드물게 마을에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을제사도 그 본래의 신앙제와는 인식을 달리하는 제사로 변질되거나 급속히 사라져가는 실정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소중한 우리 문화가 사라지는 것이다.

당국에서는 시급히 조사 기록하여 후세들이 그 자취만이라도 짐작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또 이러한 조사과정에서 드러나는 대표성이 있는 민속신앙은 선별하여 심도 있게 그 내용을 조사하고 이를 활성화 하여 소중한 우리 문화가 일부라도 표본적으로 전승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IV. 민속신앙에 대한 견해

인간은 누구나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 누군가 그 위기로부터 구해 주기를 갈구(渴求)하게 된다. 평온한 삶의 환경에서 부(富)와 자손번창, 무재(無災), 무병, 장수(長壽)를 소원한다. 더 나아가 내세(來世)에 까지 그러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어떤 대상(對象)을 믿고 의지하려는 정신적(精神的) 인간심리(人間心理)가 작용 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와 같은 소원을 이루어 주거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믿는 정신적(精神的) 신(神)에게 제를 올리며 소원을 기원(祈願)한다.

마을이라는 집성사회에서 그들은 그 안에서 서로 돋고 의지하며 공동으로 신께 소원을 빌고 신의 이치와 삶의 도리에 어긋남을 상호견제하고 돌이킬 수 없는 큰 잘못을 저지른 자는 마을에서 축출하기도 했다.

신(神)은 자연신(自然神)이거나 인격신(人格神)이거나 그들 마을의 수호신(守護神)을 정하고 제사 하며 신봉(信奉)하는 것이다. 이것이 마을신앙이다.

우리나라는 삼국시대에 불교가 전성하는 가운데 무당(巫堂)이 있었으며 이 무당은 지금도 흥행한다.

무당은 무당인(巫堂人)을 중심으로 하는 정령신앙(精靈信仰)의 종교적 형태를 사마니즘(shamanism)이라 하는데 이는 천계, 지상계, 지하계의 세계관을 가지고 지상계에 있는 인간이 생활의 재화(災禍)를 면하려면 신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아무나 신과 접속 할 수 없으므로 직업적인 인간과 신과의 중간적 매개자로서 무당이 있게 된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대체로 불교에 이어 유교가 발달 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승유정책(崇儒政策)을 씀으로서 유교가 발달 하였는데 천주교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조선 말기부터 개신교 등 신교가 많이 들어와 크게 확산하고 있다.

유교는 공자(孔子)를 시조로 정교일치(政教一致)를 주지(主知)로 하는 교로서 특출한 학문의 지식으로 선정(善政)하고 후세에 가르침을 남긴 선인(先人)들의 인물신(人物神)과 조상신(祖上神)을 신봉하는 교이다. 각 지방에는 이와 같은 선인들의 신위를 모시고 춘추 제향(祭享)하는 향교(鄉校)가 있는데 지금은 학문을 가르치는 제도의 기능이 침체(沈滯) 되어있다.

조선시대 산촌사람들에게 무당은 경제적 부담이 크게 작용했다.

그래서 마을신앙은 주로 산간마을에서 유교와 더불어 발달하였는데 전성기는 조선중기부터 60년대 새마을운동 확산시기까지이고 더불어 지금은 여러 가지 종교의 확산으로 침체(沈滯)의 기로(岐路)를 가고 있다.

V. 창말(현리)의 환경(環境)

1. 산천환경(山川環境)

인제군 기린면 현리의 위치는 위도상 대략 동경 128도 19분 북위 37도 75분에 위치한다.

박대감사당이 위치한 현 1,2,3리는 옛부터 창말(滄村)이라 했다. 물 건너 앞산은 창암산(滄岩山)이다. 그 앞을 흐르는 지금의 내린천은 창말앞강이라고 말했다. 물이 차다는 창천(滄川:찬내)이다.

내린천은 근래에 사회발전을 위한 홍보차원에서 지어진 이름이다. 기린은 오랜 옛날부터 계속하여 춘천의 속현 이었다.

1906년 왜정치하에 처음으로 춘천속현을 벗어나 인제군 기린면으로 편제 되었는데 당시 치소(治所:면사무소)는 지금의 현5리 덕교(德橋:덕다리)에 있었다. 이 지역은 동천(東川)의 섬(島)지역이었다. 그래서 다리가 큰 다리, 작은 다리 두 개였다. 또 이곳에 장이 섰다 해서 장거리라고 불렀다.

덕다리는 동쪽과 서쪽에서 내려오는 냇물이 합하는 지역이다. 동천(東川)은 점봉산 자락의 진동리와 방태산 자락의 방동리에서 흘러 내려오는 방태천이다. 숫물이라했다. 서천(西川)은 방태산 서쪽 끝자락과 상남면 미산리에서 하남을 거쳐 서비수마을(西湖)로 흘러내려오는 상남천이다. 암물이라했다. 산에 올라 내려다 보면 물의 색깔이 달랐다. 동천은 맑고 서천은 약간 붉은색을 띤다. 색깔이 다른 이수물과 암물이 현5리 덕교(德橋:덕다리)마을 앞에서 혼인하여 물이 차다는 창천(滄川)을 이루어 흐르면서 다른 세천(細川)을 합하여 인제읍 합강리에 이른다.

합강리에서 북천을 만나 소양강을 이루고 춘천에서 화천과 합하여 북한강이 되며 남한강과 합하여 서울 한강으로 서해에 이른다.

고대로부터 1906년까지 계속하여 춘천의 인근지역인 홍천, 양구, 화천을 제외

하면서도 기린을 춘천의 영속으로 하고 있었음은 정치, 경제, 국방 분야에 그만큼 중요한 지역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특히 산림자원의 뗏목운반은 물길이 아니면 한양에 도달하기 어려웠던 사실을 중시한다.

간혹 창밀의 창자를 倉으로 쓰는 것은 고려시대에 군량미를 저장하던 미창(米倉:곡식창고)이 있던 마을로 인지하기도 하는데 당시의 치소가 귀둔리에 있었고 물길의 중요성과 농사환경으로 보아 인지도가 낮아 보인다.

2. 시대적 환경 (기린면 연혁)

기린은 고구려시대에 기지군(基知郡), 통일신라시대에도 삵주(朔州:춘천)의 속현으로 기지군 이었으며 서기904년(고려태조23년)이후 기린현이라 하여 안변도호부 춘주(춘천)군 속현으로 하여 치소(治所)를 귀둔리에 두었다. 조선시대에는 1413년(태종13년)이후 기린현이라 하여 춘천군도호부 속현으로 하여 치소를 방동리 방골에 두었다.

1895년(고종32년)도호부를 관찰부로 개칭하고 다음해인 1896년 8월 전국 23부를 13도로 나누어 강원도 관찰부 춘천군 속면으로 하였다가 1906년 왜정치하에 인제군 기린면으로 편제되면서 유사이래 처음으로 춘천속현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면사무소를 현5리 덕교(덕다리)로 이전 하였으며 1910년(한일합방 융희4년) 관찰부가 도청으로 개칭되고 행정신관제 시행과 함께 1917년 치소도 현재의 창말로 이전 하였다.

1945년 7월 포스담선언으로 동년 8월 15일 우리민족은 일본으로부터 해방 되었으나 남북을 미국과 소련군이 진주하고 미소군사령관의 신탁통치협약에 따라 1945.9.2일 북위 38도선에 인제군이 양분되어 기린면은 같은해 9.18일 홍천군에 편입 되었다. 우리민족의 맹렬한 반탁운동에도 불구하고 12월 알타협정에 의하여 5년간 미소양국이 신탁통치를 하는것으로 국토가 분단되고 신탁통치가 종료되어

야 할 시기인 1950.6.25일 소련의 조정으로 북한이 사변을 일으켜 동족상잔의 비극을 안은 채 1953.7.27일 다시 휴전이 성립되어 국토분단이 정전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으나 인제군 전역이 휴전선 이남으로 수복됨에 따라 기린면은 1954.2.20일 홍천군으로부터 다시 인제군으로 환원되어 오늘에 이른다.

VI. 박대감의 인물

박대감은 고려사에 “이름은 원광(元泓)이고 후에 광정(光挺)으로 고쳤다.”라고 기록 하였다. 춘천박씨세보사(春川朴氏世譜史)에 공은 고려 고종33년(1246)경 지금의 춘천시 신북읍 발산리에서 고려 삼중대광 문하성찬성사 춘성부원군 문의공 박행(朴恒1227-1281)의 아들로 탄생하였고 역사적 사회 환경 등을 고려하여 충선 왕2년(1310)을 전후하여 서거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은 고려 원종조에 문과급제 하여 관직이 중서문하성평장사에 이르렀고 충열왕 5년(1279)3월 원나라에 들어가 왕명을 수행 하였으며 왕을 충성으로 모시다가 부친이 돌아가심에 정치(政治)에 회의를 느끼고 조정을 떠나고자 하니 충열왕 (1274-1308)이 금부(金符:금옥쇄를 찍은 교지)를 사하여 당시 안변도호부 춘주(춘천)군속현인 기린현(基麟縣)에 만호(萬戶:충열왕때 몽고식 軍制:군사령관)로 임직 케 하였다. 문무를 겸비한 공은 동해안 양양지방으로부터 침입하는 왜구를 물리침으로서 지역수호와 안위에 힘썼다. 당시에는 나라에 충신이며 서거 후에는 이 지방의 수호신으로 후세사람들이 예경(禮敬)하는 인물이다.

기린지방에서의 재세당시 기록이 없어 자세한 내용을 기술 할 수 없으나, 이와는 달리 인제군사 등 향토지에 조선개국당시 이성계에 순응하지 않고 출사하지 아니하여 삭틸관직 평민으로 하여 기린지방에 귀양을 왔다느니 하는 기록을 계속 함은 심히 유감 된 일이다.

박대감이 서거 한 것은 1310년을 전후 한다. 이성계는 공께서 서거한 후 1335년

탄생 하여 1392. 7. 17일에 조선 태조왕위에 오름으로서 연대가 전혀 맞지 않는 이 야기를 최근에 발행하는 인제군지에 까지 계속 필사하여 기록하고 있다. 역사가 왜곡 된 이야기는 반드시 시정 되어야한다.

이는 아무리 전설이라 하더라도 사실로 인지할 우려가 있고, 후세에 대한 교육적 측면에서도 매우 우려되는 바이다. 전설은 전설대로 기록 하더라도 올바른 기록이 있어야 한다. 인제군 관내에서 잘못 된 기록으로 발행된 문헌은 기린향토지(1977과 그 이전 향토지), 인제문화, 인제군지(1980과 그 이전 군지)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1996년 발행 된 “인제군사”에 기록 된 “민속신앙 박대감제”의 p. 915 와 “구비전승 하마로와 박대감” 의 p. 953 을 지적 하는 바이다.

따라서 인제군이나 인제문화원은 향후 발행 될 군지 및 각종 문헌편집에 속고 (熟考)하여야 할 일이다.

VII. 박대감 사당제

1. 제(祭)의 명칭(名稱)

“인제 사람들의 마을신앙”(2009.12. 이학주 著, 인제문화원 발행)에서 “박대감 서낭제”라는 명칭에 대하여 먼저 의견(異見)을 말하고자한다.

마을사람들이 서낭제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기록으로 전하게 되는 서적의 제명(題名)은 바르게 표기 되어야 한다.

신(神)은 자연신(自然神)과 인격신(人格神)으로 구분하고 자연신은 산(山), 수(水), 수목(樹木) 등 유형신과 형체를 볼 수 없는 가상신(假像神)으로 구분 할 수 있다.

표준 국어대사전(1990. 이승녕 감수, 한영출판사)에 의하면 성황(城隍)은 서낭의 원말(原語)이며, 서낭은 성황의 속어로서 서낭신이 붙어 있다는 식물(대체로 長壽木)을 뜻한다. 즉 자연신이다.

사당(祠堂)이나 묘(廟)는 신주(神主:죽은 사람의 위폐)를 모셔놓은 집을 뜻한다. 인격신(人格神) 즉 인물신(人物神)을 모신 집이다.

따라서 박대감의 위폐를 모신 집은 사당(祠堂)이므로 “박대감 서낭제”는 옳지 않다. 역사적 실존 인물의 신위를 자연신으로 오인하거나 신격(神格)이 변질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문중에서 지내는 제를 “박대감제”라 칭하고 있으므로, 지역 사람들이 지방수호신으로 위폐를 사당에 모시고 신봉하는 제는 “박대감사당제”가 바른 명칭이다. 사당 내에 설치되어 있는 제단에도 “사당”으로 각자(刻字) 되어있다. 서낭제와는 엄격히 구분 되어야 한다.

2. 마을신앙제(信仰祭)와 문중향사(門中享祀)

“인제 사람들의 마을신앙”의 기록은 문중에서 행하는 향사(享祀) 즉 박대감제와 마을사람들이 신봉하는 사당제를 구분하지 못하고 혼동하고 있다.

이는 사실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제보자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접수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1) 박대감 사당

박대감 사당은 최초에 언제 건축되어 제를 지내왔는지는 상고하기 어려우나, 서거 직후부터 지역 사람들이 신봉 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분명한 것은 오랜 옛날부터 이 지방 사람들이 수호신으로 신봉하여 왔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옛날에는 현존하는 규모의 사당이 아닌 초라하고 작은 규모의 사당이었을 것이다.

현존하는 박대감 사당은 1915.3.12일(상량목)에 건축 된 것이다. 1906년 기린면 이 인제군에 편제 되고 1910년 관찰부가 도청으로 개칭되고 1917년 면사무소가 행

정신관제 시행과 함께 덕교로부터 창말(현리)로 이전 되는 시기이다.

사당은 건축 후부터 1960년대까지 면장이 현관이 되어 제사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필자(1941생)가 이기룡 면장 임기(1945.10.24-1960.6.6)에도 계속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박대감 사당이 건축되는 무렵 배위이신 할머니당(나주정씨4세 삼중대광 可臣의 딸)이 하마로 옛길로 동천(東川)에 이르는 길가 언덕에 건축되었다. 박대감 사당이 면 단위와 창말의 제당이라면 할머니당은 하마로 마을의 제당이었다. 할머니당은 판자로 지은 비교적 작은 당집으로 기억된다. 이러한 사실들은 필자의 선친(덕준 1922-1998)이 구전(口傳)한 것이며 1950.6.25사변(事變)전 필자가 어린시절 조부 (용달 1892-1950 事變殉國)를 따라 목견(目見)한바 있는 기억이 있다.

사변 당시 할머니당은 소실되었고 박대감 사당도 크게 훼손되어 이기룡 면장 재임 당시 면에서 중수하였는데 상량목은 본래의 것이다.

사당 내에 신위와 제단 등 석물은 1997. 7월 필자가 문중 도유사로 재임 당시 주관하여 묘성을 치수할 때 아울러 설치 한 것이다. 이전에는 당제를 지낼 때 지위(紙位)나 목재위패(木材位牌)를 모시고 지냈는데 해마다 수일 후에는 위패가 없어졌다. 아마도 무속인들이 위패를 모시고 간 것으로 추측된다.

2) 마을 사당제

가) 문중제와의 혼동

박대감 사당제는 면단위에서 박대감을 지방수호신으로 신봉하는 제이며 아울러 창말의 마을신앙제이다. 문중제와는 다르다.

1970년대 이후 점차 토착민은 줄고 많은 외지인이 이곳에 정착하고 기독교 신봉자가 늘어남에 따라 자연히 마을신앙의 신앙심이 식어가고 있다.

1972년 3군단사령부가 하마로로 이전함에 따라 묘성이 마을사당 뒤편으로 이장되었고 문중에서 묘제를 지내며 묘성치수사업을 하는 등 문중행사가 계속 됨에 따라 마을사람들이 마을신앙제가 문중제로 변한 것으로 인지하는가 하면 토착민의 세대가 바뀌고 이 지역에 정착한지 오래되지 않은 사람들의 인식이 더욱 그러하다.

문중에서는 도가에서 정성으로 제물을 준비하였음을 미리 고하고 저 도가주인이 간단한 제물을 준비하여 부정한 사람의 목격을 피해 제사일 새벽에 사당에 다녀온다. 그 외에는 문중에서 사당에 제사하지 아니한다. 문중에서 신위와 제단 등을 석물로 설치 한 것은 조상의 위폐를 모시고 제사하는 마을사당의 환경정화와 위폐의 없어짐을 방지하고 조상의 안식을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그 외에는 마을의 사당제 행사에 관하여 아무런 관련이 없다.

창말은 박대감 사당 외에는 신봉하는 산신당이나 서낭당이 없다. 그래서 주민들은 마을에 유일한 박대감 사당을 서낭당이라 말 하는 것이다. 무후제는 자식 없이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는 위안제이며, 거릿고사는 도깨비 등 잡신들을 위로하여 쫓아내고 한판 놀이판을 벌이는 축제이기도 하다.

1970년대 이후에는 박대감 사당제가 그 본연의 빛을 잃어 가고 있다. 다만 근래에 면장이 현관이 되어 박대감을 주신으로 하고 방태산, 점봉산, 태봉산의 산신과 기린을 수호하는 모든 신께 기린면 무사고 기원대제를 봉행하였을 뿐이다.

창말을 제외한 인근마을이나 면내 각 마을에서는 산신당이나 서낭당에 제를 지내고 있으나 많은 마을에서 역시 그 빛을 잃어가고 있다.

나) 제의 내용

60년대 까지는 면장이 현관이 되어 창말 사람들이 제를 지냈으나, 새마을운동이 확산되면서 70년대 이후 마을에서 제비(祭費)를 거두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마을 신앙제인 박대감 사당제를 지내지 않는 것으로 생각 된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마을사람이거나 외지사람이거나 문중후손이거나 무속인 이거나 누구든지 사당에 정성을 드리고 소원을 빌고 있다.

“인제 사람들의 마을신앙”(이학주 지음, 인제문화원 발행)이 조사하여 기술한 제사의 준비 및 진행에 관한 내용은 거의가 문중향사 준비절차이다. 제보자 중 박주국씨와 박산진씨는 문중인원으로서 현리 창말의 박대감사당제의 본질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문중제와 마을 사당제를 혼동하고 있다.

타성인 김은필 노인회장의 제보가 마을사당제의 준비절차에 근접 한다.

① 마을제사의 준비

ⓐ 제의 날짜와 시간

제의 날자는 면장이 구장(지금의 이장)회의에서 최종 결정했다. 이른 봄 농사일이 바쁘게 시작되기 전 길일을 택하여 당해 연도에 지역의 무사 안녕과 풍요를 기원했다.

제사시간은 대체로 사시(已時 : 09시-11시)가 된다.

ⓑ 제관과 도가 선정

현관과 축관, 집사자는 제관이라 하여 면장과 현리구장을 비롯한 참석구장이나 제례에 밝은 사람을 선정 한다.

도가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고 부인회(지금의 부녀회)에서 제수를 준비했다. 제수재료는 해마다 미리 정갈하게 따로 보관해 둔다.

ⓒ 제비와 제물

면단위의 제이지만 참석하는 사람들은 주로 창말(현리)사람들이며 창말의 마을 사당제이기 때문에 창말에서는 호구별로 제비를 거두었다.

음식을 많이 장만 하는 것은 제를 지낸 후 나누어 먹기 위해서다.

(이 시기에 다른 마을에서는 서낭제를 지낸다.)

제는 농사일이 시작되는 시기여서 마을사람들이 모두 모여 제를 올리고 정답을 나누며 술과 음식을 배불리 나누어 먹는다. 축제의 날이다.

④ 제수 준비

제물은 주로 돼지를 잡는다. 사당제 당일 아침 일찍이 남자들이 잡는다.

제단에는 돼지머리만 올렸다.

돼지 잡는 일 이외의 제수준비는 부인회에서 한다.

편(떡), 메(밥), 탕, 나물 3가지, 과일, 그리고 북어포와 정갈하게 빚은 제주(술)이다. 일제시대에는 사가에서 술을 빚을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양조장에 주문을 했다.

떡과 밥은 마을사람이 모두 먹을 수 있는 충분한 량을 하는데 제단에 올릴 메밥을 따로 지을 때에는 부정하지 않게 보관 되었던 쌀과 새벽에 정갈하게 길어 온 물로 하는데 솔뚜껑을 열어보지 않고 짓는다. 떡은 시루떡을 하는데 붉은 팥고물을 한다. 잡귀들을 물리치는 방법이라 했다.

⑤ 금기 방법

제수준비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부정을 탄 사람은 스스로 제사가 종료 될 때 까지 제사와 관련 된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를 어기면 재앙이 따른다고 했다. 제사가 종료되고 음식을 먹을 때는 같이 한다.

금줄은 제삿날을 정한 날부터 사당문 앞에 쳤다. (문중제의 도가에서도 제사일 보름 전부터 울타리 출입문에 쳤다.)

금줄은 원새끼를 꼬아 소나무가지, 숯, 한지를 접어 끼운다. 부정한 사람의 출입을 금하는 것이다. 제사가 끝나면 거두어 태운다.

② 마을제사의 진행

ⓐ 제의 절차

제삿날을 받으면 면에서 주관하여 사당과 주변지역을 청소한다.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제관과 구장, 마을반장, 어르신 등 15명 내외가 사당으로 올라가고 나머지 마을사람들은 장터거리에서 음식을 나누어 먹을 준비를 하며 제가 끝나기를 기다린다.

제사는 집사자가 제물을 단에 진설하면 초현관(면장)이 나아가 향을 피우고 1배를 한 다음 끓어앉아 술을 올린다.

현관과 참사자(參祀者) 전원이 부복(俯伏)하면 축관이 축을 고하고 참사자들은 재배한다.

아현관은 창말(현1리) 구장이 되며 종현관은 제사 시작직전에 참사자중에서 선정한다. 현작의 방법은 고축 절차가 없을 뿐 초현의 방식과 같이 한다.

현작이 끝나면 참사자 전원이 재배하면서 축문을 태운다. 그러므로 축문의 내용은 때에 따라 조금은 다를 수도 있었을 것이다.

따로 소지를 올리지는 않았다.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사당에 가서 소원을 빌며 소지를 올렸다.)

초현관은 현작 하였던 술을 들고 나아가 사당의 네 기둥 주춧돌에 나누어 부으면서 “대감님께서 면민이 평안히 잘 살 수 있도록 항상 보살펴 주십시오.”라고 기원 한다.

고수레는 하지 않고 음복을 하기 전에 제물을 조금씩 떼어 한지에 싸서 제당 문간 옆에 놓아둔다. 수부(守夫:지킴이)를 대접하는 것이다.

음복은 제관이 순서에 따라 먼저 하고 참사자 모두가 한다.

마지막으로 금줄을 태우고 나면 “박대감 사당제”의 제례가 모두 끝난다.

마을사람들이 기다리는 장터거리에 제관과 참사자들이 도착하면 면장이 제의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선언하고 당부의 말과 함께 위로를 하고 즐겁게 먹으며 하루를 지낼것을 말한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정답을 나누며 한해농사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하루를 보낸다.

④ 축문

축문은 보존되지 않았다. 축문은 당시의 기원하는 내용에 따라 조금씩 다를수도 있다. 축문은 헌작이 끝나면 소지를 올렸다.

다음의 축문은 “인제사람들의 마을신앙”에 기록된 것을 몇 자 수정하여 기록한 것이다.

사당제축(祠堂祭祀)

維 歲次 干支 某月 千支朔 某日 千支
麒麟面長 ○ ○ ○ 虞告于
鄉土守護之神麗朝朴大監奠靈 氣序流易
時惟孟春 祈願誠施 鄉民泰安 雨順風調
百穀豐登 百災不侵 官民和合 面內亨通
謹以酒果 庶羞陳此 于神尙饗

유 세차 간지 모월 간지삭 모일 간지
기린면장 ○ ○ ○ 건고우
향토수호지신여조박대감전령 기서유역
시유맹춘 기원성시 향민태안 우순풍조
백곡풍등 백재불침 관민화합 면내형통
근이주과 서수진차 우신상향

〈축문을 해설하면 다음과 같다.〉

한해가 바뀌어 모년 모월 모일입니다. 기린면장 ○○○는
이 지역 주인이시며 수호신이신 고려조의 높으신 박대감님께
삼가 고하옵니다.

계절이 흐르고 바뀌어 때는 초봄입니다.

정성 드려 바라는 것은 이 지역 백성들이 평안하고
비오고 바람 부는 것이 순조로워 온갖 곡식이 풍년이 들며
온갖 재난은 침범하지 못하게 하여주시고
관민이 화합하여 기린면이 잘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삼가 술과 과일과 여러 가지 제수를 이에 진설 하였습니다.
신께서 흠향 하시옵소서.

3) 문중향사(門中享祀)

문중향사는 마을사람들이 지방수호신으로 신봉하는 사당제와는 그 본질이 다르다.
승조정신(崇祖精神)에 의하여 조상의 유훈과 유덕을 기려 자손 대대로 전승하고
종친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가문의 창성함을 기하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박대감 사당제를 재조명하고자 하는 여기에서는 문중향사의 내용이나
절차 등에 대하여 요점만을 간단히 소개 하고자 한다. 문중에서는 “대감시제” 또는
“대감제”라고 한다.

가) 제일(祭日)

제일은 음력으로 한다.

옛날에는 시제(時祭)라 하여 춘(3.3일) 추(9.9일)에 묘제(하마로 소재)로 봉행
(奉行) 하여 오다가 왜정이후 년1회 10.1일에 문중제례 의식에 따라 묘제로 봉사
(奉祀)하고 있으나, 근래에 일기 등 사정이 있을 때에는 서리 소재 재실(齋室)에서
지내기도 한다.

다만 10.1일은 박대감의 선친이신 춘천박씨 중시조(고려 삼중대광찬성사 춘성

부원군 문의공 박항) 향사일임을 감안하여 1989.4.30일 문중규약을 개정하여 10.2 일에 봉사한다.

옛날에는 교통 불편으로 춘천과 기린의 묘제 참여가 어려워 각 지역후손들이 같은 날 봉행하였던 것이다.

나) 도가

도가는 하마로 묘하 우측 50여보 위치에 재실(齋室)이 있었고, 재실에 거주하는 후손으로 지정되어 있었다.(1910년대 부터 1971년 3군단기지관계로 묘이장시 까지는 공의 29세손 종혁과 그자손이 도가로 봉행하였다.)

1972-1990년에는 서리에 있는 박대감위토를 경작하여 생활하던 타성(他姓)의 엄도준이 도가로 봉행 하였다

1991년 이후에는 신미세보(辛未世譜)발행과 병행하여 서리41-3번지에 재실을 신축하고, 31세 종손 박수환이 거주 하면서 도가로 봉행하고 있다.

제사의 준비, 금기사항, 제사절차 등은 문중의례로 진행한다.

다) 제례절차(祭禮節次)

50년 전만 하여도 참여인원이 후손은 물론 마을 사람들까지 200여명 이었다.

음식은 가장 큰 돼지를 잡고 (제상에는 네모진 커다란 편육을 올린다) 편(떡)은 쌀 1가마 이상을 하며 제상에 올리는 떡은 한 그릇이 쌀 세발이며 두 그릇을 고여 놓는다. (배위는 나주정씨 가신(可臣)의 따님이시다)

여러 가지 과일(대추, 밤, 배, 감, 잣)을 비롯한 약과, 다식, 과질은 고임새로 하고 여러 가지 어물과 여러 가지 전과 전병, 여러 가지 나물, 삼탕(어탕, 육탕, 소탕)을 진설하고 면과 편, 매를 순서대로 올린다.

흘기에 의하여 향사 하지는 않으나 묘성에 모여 현관을 정하고 집사자에 의하여 진설이 끝나면 시간은 대략 10시가 된다.

처음에 향을 피우고 참사자 전원이 분향배례를 한다.

집사자가 3번 수저를 하고 면과 쟁을 올리면 젓가락을 면에 꽂고 초현관(종손)이 나아가 술을 올리고 재배할 때 참가후손 전원이 부복한 가운데 축관이 독축을 한다.(축문은 일반적인 묘제축문과 같다.) 초현관이 올렸던 술잔을 물리고 나오면 아현관이 나아가 술을 올린다. 이때 집사자는 편에 청을 바르고 젓가락을 걸친다. 현관이 재배할 때 참가자 전원이 함께한다. 현관이 잔을 물리고 나오면 종현관이 나아가 술을 올리는데 술잔에 가득 채우지 않고 조금 부족하게 따른다. 이때 집사자는 메와 국쟁을 올리고 숫가락을 국쟁그릇에 담갔다가 메에 꽂는다. 젓가락은 어물이나 다른 음식에 걸쳐놓는다. 현관과 참가자 전원이 재배하고 현관이 나오면 시간여유를 조금 가진 연후에 제주인 종손이 다시 나아가 준비된 첨작잔으로 종현 때 부족하게 부었던 잔을 집사자로 하여금 가득 채운다. 이때 집사자는 국쟁을 물리고 승늉을 올리며 메에 꽂았던 숟가락으로 메를 세 번 떠서 승늉에 말고 메그릇 뚜껑을 반만 덮는다. 젓가락은 다른음식에 옮기어 놓는다. 집사자가 이와같은 일을 하는 동안에는 현관은 제상앞에 끓어 앉아 기다렸다가 일어나 재배하면 참사자들도 같이한다. 현작이 모두 끝나면 집사자는 메뚜껑을 완전히 덮고 수저를 모두 거둔다. 현관이 나란히 앞에서고 모든 참가자들이 함께 재배를 한다. 재배하는 동안 집사자는 거둔 수저를 모아 쥐고 시저그릇에 세 번씩 세 차례 정저를 한다. 마지막 순서로 축문을 태워 소지를 올린다. 이때 모두는 재배한다.

제례가 모두 끝이 나면 현관이 나란히 끓어 앉아 집사자가 건네주는 술잔을 받아 음복을 한다. 현관의 음복이 끝나면 참가자 전원에게 음식이 제공되고 음식을 먹으면서 후손들은 정담을 나누며 종친회를 한다.

라) 축 문 (祝文)

문중에서 대감시제를 봉행할 때 고하는 축문은 축 가례(祝 家禮)에 기록되어 있는 통상적인 축문을 인용하여 매년 새로 써서 고하고 제례의 끝 순서로 축문을 태워 소지를 올린다.

다음에 기록 한 축문은 2009년 음력 10월 2일 서리 재실에서 제를 봉행할 때 고한 축문이다.

〈대감시제 축문〉

維 歲次 己丑 十月 丙寅朔 初二日 丁卯 三十一世 宗孫 壽煥

敢昭告于

顯 三十代祖考 高麗大臣 門下平章事 府君

顯 三十代祖妣 平章事夫人 羅州鄭氏 氣序流易

霜露既降 追遠歲時

不勝感慕 謹以清酌

庶羞祇薦 歲事 尚

饗

유 세차 기축 10월 병인삭 초2일 정묘 31세 종손 수환

감소고우

현 삼십대조고 고려대광문하평장사 부군

현 삼십대조비 평장사부인 나주정씨 기서유역

상로기강 추원세시

불승감모 근이청작

서수지천 세사 상

향

〈축문을 해설 하면〉

흐르는 해가 바뀌어 기축년 10월인데 초하루일진은 병인이고

초2일 정묘일에 31세 종손 수환이 삼가고 하옵니다.

고려대광문하평장사의 벼슬을 하신 30대조 할아버님

평장사부인이신 나주정씨 30대조 할머님

계절이 바뀌어 어느덧 찬 서라와 이슬이 내렸는데

먼 옛날 그 당시를 생각하니
감동되어오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삼가 맑은 술과 여러 가지 음식으로 공경하여
올해에도 제사를 드리오니 흠향 하옵소서.

영험 담(靈驗 談)

〈묘소앞에 빨래낼면 없어졌다는 이야기〉
〈호환(虎患)에 갈 사람을 살려준 이야기〉
〈묘 이장할 때 도저삽날 부리진 이야기〉 등
박대감의 영험담은 “인제군사” 등 “민속지”에 전하고 있고 “인제사람들의 마을신앙” p.92-101에 기록되어있다.
여기에 필자가 어렸을때 조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한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사당앞에 있는 나무 베려다 화를 당한 이야기

1920년대에 있었던 이야기이다.

박대감 사당이 있는 창말의 청년들이 농한기를 맞아 사랑방에 모여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한 청년이 박대감의 여러 가지 영험담을 이야기 하고 있었는데 성질급한 한 청년이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경한 말을 하였다고 한다. 또 다른 청년이 말하기를

“아이다, 박대감님은 대단히 영하신분이다 옛날에 어떤사람이 낭구(나무)하라 가서 사당근처에 낭구를 비었는데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 하더라...”하니 성질급한 청년이 벼락 짜증을 내면서

“야, 내 지금 당장 사당 앞에 보둑이(어린 소나무) 하나 잡아 올테니 두고 봐라

내가 죽는가..."

하며 몽낫(찢어 베기 편리하게 만든 큰낫)을 들고 달려 나간 후 다른 청년들이 오랜 시간 기다려도 그 청년이 돌아오지 않으므로 찾아 나섰는데 그 청년이 낫으로 자기 다리를 찍고 산 아래로 굴러 내려와 사경을 헤매고 있었다. 청년들이 엎고 집으로 갔는데 가진 약초로 치료를 하여도 속히 회복되지 않고 상처가 점차 깊어짐으로 미을 청년들이 박대감 사당에 가서 영험하심을 모르고 큰 잘못을 저질렀으니 용서하여 달라고 빌어보라고 권했는데 처음에는 이 말을 불신 하다가 며칠 후 결국 잘못을 뉘우치고 청년들의 도움을 받아 사당에 가서 큰 잘못을 용서하여 달라고 빌었더니 상처가 곧 나았다고 한다.

하마로(下馬路) 의 전설실화(傳說實話)

"하마로와 박대감"에 대한 전설은 인제군사, 인제군 민속지 등에서 볼 수 있으나 박대감 재세(在世) 당시의 기록이 모두 옳지 않게 기록되어 있다.

전하는 이야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먼저 바른 기록이 있어야 한다.

이성계는 박대감이 세상을 떠난(1310경)후인 1335년에 태어나 1392.7.17일에 조선 태조왕위에 올랐는데 인제군의 민속기록에는 이성계의 새 왕조에 출사하지 않은 죄로 귀양을 왔다느니 하는 사실(史實)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진실처럼 기록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다.

이 하마로와 하마리가 3군단사령부 이전기지로 확정 되어 1972년 군부에서 정지작업을 할 때 땅에 묻혀있던 하마비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傳說)이 아니라 실화(實話)이다. 왜곡 된 실화가 전하여 오는 것이다.

기록된 이야기 내용은 대동소이 하지만 인물에 관한 소개 내용이 왜곡되어 있다. 하마비는 현재 인제군청 청사앞 정원에 보관되어 있다.

과거에 기록 된 박대감에 관한 왜곡 된 부분은 수정 되어야 한다.

기린의 하마로

(『춘천박씨연원』 1987. 박광택 지음. 에 게재)

박대감은 본명이 박원평(朴元泓)인데 후에 광정(光挺)으로 고쳤다. 그는 고려 삼중대광 찬성사(정1품) 춘성부원군 문의공 박항(朴恒:1227-1281)의 아들로 고려 23대 고종(1213-1259)때인 1246년경에 나고 26대 충선왕(1308-1313)때인 1310년 을 전후하여 현리마을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원종조에 문과에 급제하여 중서문하성 찬성사(정2품)를 지낸 충신으로 문무를 겸한 능관이었다. 부친이 세상을 떠남에 정치에 회의(懷疑)를 느끼고 정계를 떠나고자 하여 충열왕(1274-1308)께 진언하니 왕이 금부(金符)를 사하여 안변도호부 춘주군속현인 기린지방(당시치소는 귀둔리)에 만호(萬戶)로 임직케 하였다.

그는 동해안 양양지방으로부터 침입하는 왜구를 물리침으로서 지역을 수호하고 지역안위에 힘썼다. 말년에 현리마을에서 세상을 떠난 것이다.

그래서 기린지방 사람들은 재세당시에 선정(善政)하였고 기린지방을 수호하였으므로 세상을 떠난 후에도 박대감이라 칭하며 지방수호신으로 신봉하게 된 것이다.(당시의 정세는 몽고가 7차에 걸쳐 침범해 왔고 고려가 끝내 굴복하였으며 몽고는 국호를 원(元)이라 고치고 2차에 걸쳐 고려와 더불어 일본을 정벌하려 하였으나 실패함으로서 일본이 고려를 자주 침범하는 시기였다.)

그가 세상을 떠남에 태봉산 아래 간좌원(艮坐原)에 장사 지냈다.

그 후 묘소인근에 불경한 일이 있거나, 가마나 영구가 묘소 앞을 지나려하면 꼭 어떤 변고가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영구는 멀리 길을 돌아서 가야했다.

(당시 기린 지방의 치소(治所)인 현청(縣廳:지금의 면사무소)은 안변도호부 속 현으로 귀둔리에 있었다. 그 후 조선 제3대 태종13년(1413)에 춘천도호부 속현으

로 기린현이라 하였으며 치소는 방동리 방골에 있었다.)

박대감의 묘소는 현리 창말에서 방골에 있는 치소로 가는 길목에 있었다. 누구나 현리 창말에서 방골로 가려면 이 길을 통해야 한다.

당시 현감은 이곳에 평장사 공(公)이 현영(顯靈) 하심을 알고 이 길을 지날 때에는 나귀에서 내려 예(禮)를 가추고 지나가는 일을 잊지 않았다.

그 후 현감이 새로 부임할 때의 일이었다.

신임현감이 부임한다는 소식을 들은 현청에서는 전임현감이 타고 다니던 나귀를 몰고 마중을 나갔는데, 신임현감은 심산유곡 호젓한 벽지에 꺼릴 것이 무엇이라 싶어서 나귀등에 높이 올라 앉아 오만하게 평장사공 묘소 앞을 지나려 했는데 묘 앞까지 온 나귀의 발굽이 갑자기 못 박은 듯 땅에 붙어서 도무지 꼼짝을 못하게 되었다 한다. 놀란 현감은 금새 얼굴빛이 질렸다. 뒤 따르던 아전 구실아치들도 눈이 휘둥그레지자 현감이

“이 어찌 된 연고일고 뉘 까닭을 아는자 없느냐?”

하고 주위를 돌아보며 안타까이 물었다. 그때 전부터 이 현아(縣衙)에 있던 마중 나온 벼슬아치가 현감 앞에 나와

“예, 소인이 아는 바를 아뢰려고 합니다.”

하고 읍하였다.

“네 아는 바를 직고 하라.”

“예, 아뢰옵기 송구 하오나 여기는 승마고좌(乘馬高座)하고는 지나가지 못하는 곳이옵니다. 간좌원에 평장사공이 현영하시옵기로 하마보행 하여야만 비로소 통과 할 수 있나이다.”

그제야 현감은 고개를 끄덕거리고 얼른 나귀등에서 내렸다.

“옳도다, 평장사공께서 예 계신 줄 미처 몰랐었노라.”

현감은 깊이 뉘우치고 예를 갖춘 후 이곳을 걸어서 지나갔다.

치소에 당도한 현감은 영리한 나귀에게 좋은 먹이를 후히 주도록 명하고 평장사

공 묘소 앞 길목에 “대소인원하마비(大小人員下馬碑)”를 세웠다.

(이) 비석은 현재 인제군청 청사 앞 정원에 보존하고 있다.)

이로부터 누구나 이 길을 지날 때에는 말이나 나귀나 가마에서 내려 걸어서 지나가게 되었고 이 길을 “하마로(下馬路)”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이 길 인근지역(현재 현2리 3군단사령부 부지)동리를 “하마리(下馬里)” 또는 “하마마을”이라 부르게 되었다.

* * *

이 실회는 현청이 방글에 위치하게 된 조선조 1413년 이후에 있었던 일이지만 정확한 연대는 상고하기 어렵다. 다만 땅에 묻혀있던 하마비의 감정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옛 묘소자리 바로 옆에 군단사령부 국기게양대가 세워져 있다.

이 하마로와 하마리가 소양강댐 수몰지역내에 주둔하던 육군 제3군단사령부 이전기지로 확정됨에 따라 이장을 하여야 하는데, 정부에서 일반분묘와 같은 보상절차를 행하므로 필자의 선친 덕준(德俊 1922-1998)께서 당시 박정희 대통령께 상소하여 대통령이 친히 헬기로 현지에 임하여 좋은 부지를 매입하여 중여할 것과 문종과 협의하여 군부에서 장비와 인력을 제공하여 이장하도록 하였다.

묘의 개토 과정에서 도저 삽날이 부러지는 등 이변이 있어 더욱 성대하게 이장 행사를 진행 하였다.

묘에서는 완전 부식 된 검, 청동숟가락, 저분, 부식된 놋주발, 깨어진 사기접시 등이 나왔는데 당시 강원도 공보실 문화재계에 다음과 같이 기증 한 바 있다.

청동숟가락(1) 전체길이 27cm 잎사귀길이 11 cm (시군별기탁 15-1)

" (2) " 26cm " 10.5" (" 15-2)

저분(젓가락) 1벌 길이 28cm (" 15-3)

1972.7.24일 이장 하였으며, 지금의 묘소는 태봉산 하 박대감사당 뒤편 현리 산 171-1번지이고, 1997. 7월에 문중에서 묘역(墓域) 정화사업을 하였다.

춘산(春山) 박 광 택

기린 초, 중학교 졸업

춘천 성수고등학교 졸업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춘천박씨대종친회 都有司(역임)

수필문학 등단

수필문학추천작가회 회원

한국문인협회강원지회 회원

강원수필문학회 회원

춘천문인협회 회원

저서 : “春川朴氏淵源”(1987)

“春川朴氏府使公派世譜”編輯發行(2010)

춘천시 퇴계동 일성아파트 202-205 / 010-5372-4555 / pkt410612@daum.net

매운탕과 어죽*

더불어 놀면 신바람 나고

정무교

놀아야 되는 어린 시절

내 어린시절을 떠올리면 신나게 놀은 기억밖에 없다. 정말로 부지런히 열심히 놀았다. 우리 어릴 때에는 놀이도 다양했다. 술래잡기나 다방구처럼 달려야 하는 놀이도 있었고, 오징어나 삼팔선은 힘을 쓰면서도 순간판단력이 필요했다. 비석치기, 팽이치기, 자치기는 사물을 이용하는 놀이였다.

순수한 놀이 외에 딱지먹기, 계급장먹기, 구슬치기는 상대와 내가 물건을 걸고 승부를 겨루어 이긴 사람이 가져가는 놀이였다. 아이들에게 장려할 놀이는 아이였지만 나를 비롯한 조무래기들은 골목에 오글오글 모여서 건곤일척(?)의 승부를 벌였다. 무엇을 하든지 나는 주로 따는 쪽이어서 딴 물건을 아이들에게 팔아 군것질도 하고 만화도 보았다. 팔아도 남는 전り품은 우리집 마루 아래에 보관해 두었다.

* 인제문화원이 발행한 단행본 「인제사람들의 전통음식」에 수록되어 있다.

아버지는 내가 공부를 안 하고 놀기만 한다며 가끔 내 보물을 내다버렸다. 내다버려도 며칠이 지나면 내 창고에는 보물이 다시 그득 쌓였다.

산에도 자주 갔다. 봄이면 동네 뒤에 있는 장위동산에 올라가 아카시아를 따먹었다. 메뚜기, 잠자리, 개구리, 올챙이도 잡았다. 가끔은 버스를 타고 멀리 우이동에 가기도 했다. 버스종점에 내려 북한산에 올라 송사리를 잡아서 신발에 담아 놀았고, 가을에는 밤을 따서 버스안내양 누나에게 버스비 대신 주고 내리기도 했다.

극성스러웠던 내 어린시절을 제대로 보여주는 일화를 우리 엄마가 나에게 말해 준 적이 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인데도 나는 아침밥 숟가락을 놓으면 밖으로 뛰어나가서 저녁이 되어야 돌아왔다고 한다. 그래서 어느 날 엄마가 나에게 물었다.

“무교야, 너는 맨날 어디를 갔다 오는 거야?”

“응, 영화 봤어.”

“영화? 어디서 영화를 봐?”

“미도극장에서.”

어떤 날은 아폴로극장, 삼양극장, 미아리극장에서 영화를 보았다고 했단다.

“그 극장이 어디에 있는데?”

엄마는 극장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다. 극장은 우리집에서 먼 곳에 있었다.

“응 저기.”

“영화를 어떻게 봤어?”

“응, 아줌마들 들어가는 데 희 따라 들어갔지!”

어릴 때부터 나는 볼거리도 많고 할거리도 많은 아이였다. 이런 기질은 지금도 여전해서 뭔가를 보거나 배우거나 경험하는 일을 좋아한다. 지금까지 직업도 30종 이상을 가져보았고, 대학에서는 총학생회장도 했고, 취미나 특기로 권투, 암벽등반, 축구, 배드민턴, 기타연주, 글쓰기, 수영, 탁구, 요가, 국선도를 했다. 앞으로도 몇 가지가 추가될 것이 뻔하다.

이런 기질 때문인지 나는 삶을 노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노는 것도 노는 거고, 일하는 것도 노는 거고, 어릴 때에는 싫어했던 공부도 지금의 나에게는 놀이가 되어 도서관이야말로 나에게는 재미난 놀이터다. 나는 지구에 놀러온 사람이다. 내가 지금 사람값을 하고 산다면 그건 어린 시절에 열심히 놀았던 힘이 삼분지 일의 역할을 했다고 나는 믿는다.

노는 행위는 사람의 본성이다. 아기는 사물을 만져보고 뺏아보고 던져보는 놀이를 통해 세상을 인지하고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파악한다. 만일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 자신의 놀이욕구를 채워주지 않는다고 느끼면 아이는 세상을 관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해 위축되거나 그 반대로 투쟁심을 키운다.

아기가 자라 뛰어다니게 되면 만져보고 뺏아보고 던져보던 놀이를 이제는 집단놀이에서 하게 된다. 집단놀이에는 상대가 있고, 규칙이 있고, 질서가 있다. 일정한 규칙 안에서 협력과 조화와 경쟁을 하게 된다. 이런 행위를 하며 운동능력, 판단력, 공간지각력, 대인관계력, 지도력 등 아이가 가진 장점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적절히 활용되며 계발된다.

놀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산'이다. 아이는 자신을 표현하고 싶어 한다. 표현은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 자연스런 행위다. 이런 표현을 아이는 놀이를 통해 발산한다. 놀이에서 실패와 성공을 번갈아 하며 기쁨, 분노, 사랑, 슬픔을

발산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아기는 낯선 세상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태어난다. 부모의 돌봄을 받으며 공포심을 하나씩 벗기는 하지만 아이가 되어도 공포심은 남아 있다. 아이는 이 공포심을 자신과 나이가 비슷해서 안심이 되고 동질감이 느껴지는 아이들과 놀이를 하며 푼다. 이것도 발산이다. 이렇듯 놀이는 팀색과 계발과 발산을 하는 행위다.

창의성도 놀이에서 발현된다. 놀이는 창의성의 기본이다. 술래잡기든 비석치기든 구슬치기든 자신의 판단력을 활용해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보면서 아이는 가장 효과 높은 방법을 찾게 된다.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연구하며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는 이 행위가 바로 창의성의 기초가 된다.

지금 내가 사는 집의 양 옆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있다. 아이들은 쉬는 시간에 과자나 음료를 사러 우리집 앞의 가게에 자주 온다. 자연히 나는 오며가며 아이들의 말을 듣게 된다. 아이들은 자신의 좋거나 나쁜 감정을 대부분 ‘좆나’나 ‘열나’로 표현한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물려준 이 말은 아마도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사일 테고, 지금은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더 사용하는 말일 것이다. 이런 말을 쓴다고 아이들을 탓하기보다는 그 원인을 짚어야 한다. ‘좆나게’가 변형된 위의 두 말에는 발산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욕구불만이 담겨 있다. 놀이로 자신을 발산하는 과정을 거친 뒤에 학습을 해야 하는데도, 노는 과정을 생략한 채 곧바로 학습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욕구불만이 쌓이게 된다. 본성을 거스르는 ‘우격다짐교육’을 받는 아이들의 입에서 예쁜 말이 나올 리가 없다. 아이들에게 놀이를 돌려주지 않으면 사회는 각박해지고, 범죄도 흥폭해지며 사이코패스범죄도 늘어나고, 정신 병원과 각종 병원마다 환자가 가득하게 된다. 요즘의 한국영화에서 사람의 몸을 자르는 장면이 아무렇지 않게 등장하는 것을 보라. 교육강국인 핀란드에서는 초등 학교 아이들에게 추운 겨울에도 반드시 밖에서 하루에 2시간을 놀게 한다.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한단다. 노는 행위는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인제에서 사람들을 만나 옛말을 하다보면 이들이 부러울 때가 있다. 물고기잡이 가 그것이다.

산이 많은 인제에는 물도 많고, 그 물에는 70년대만 해도 물 반 고기 반이었다고 한다. 이 곳 사람들이 각종 방법을 동원해 물고기를 잡은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내용이라 호기심이 인다. 나는 그 혼한 족대질도 못해보았고, 천렵도 해 본 적이 없이 그저 북한산에서 새끼손가락만한 송사리를 잡는 정도로 어린 시절을 끝냈다. 그런데 이곳 사람들은 눈치니 잉어니 가물치니 하며 팔을 내밀었다. 장정의 팔만한 눈치나 잉어나 가물치를 잡았다는 것인데 그만한 민물고기를 본 적이 없는 나로서는 그 유명한 ‘낚시꾼의 뺑’이겠지 싶어 한수 접고 들어주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인제문화원에 근무하는 백창현 국장이 원통에서 80센티미터 짜리 잉어를 여러 마리 잡았다고 했다. 잉어는 여자가 먹으면 좋다고 건강원에서 내렸다고 하는데 실물을 보지 못한 나로서는 믿으면서도 믿기지가 않았다. 사진을 찍어두었다고 하니 꼭 확인을 해보고야 말리라.

물고기 잡으며 놀던 어린시절

오늘 시현할 요리는 매운탕과 어죽이다. 인제사람들은 물고기를 잡아 즉석에서 매운탕이나 어죽을 만들어 즐겨 먹었다. 북면 월학리에서 자란 내 친구 류재관은 어릴 때 집에서 고추장, 소금, 미원에 솔단지를 챙기고 밭에서 파, 감자, 깻잎을 구해서 강으로 나가 물고기를 잡아 끓여먹었다고 했다. 봄부터 가을까지 회만 동하면 강가로 나가서 얼마든지 있는 물고기를 잡는 놀이도 하고 영양도 보충한 것이다. 그래서 매운탕과 어죽은 인제사람들에게는 친숙한 음식이다.

음식을 시현할 곳은 북면 월학 1리에 사는 내 친구 박수홍네 집이다. 머리가 일

씩 벗겨져 나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이 친구는 고향에서 살려고 98년에 춘천에서 귀향했다. 내려온 고향에서 여유롭고 한가한 삶을 즐기다가 마을이 이 친구의 눈에 들어왔다. 일본에 있을 때 본 농촌과 현격한 격차가 있는 고향을 바꿔보고 싶었다. 그래서 4년 동안 마을총무를 하다가 이장이 되어 마을발전을 위한 일을 본격 추진했다. 이 친구가 이장을 하는 동안 월학 1리는 마을발전사업으로 여러 번 선정되어 큰 지원금을 받아 여러 사업을 했다. 이런 결과로 수홍은 국무총리상을 받기도 했다. 지금 수홍은 내가 근무했던 〈평화생명동산〉에서 일한다. 마을일을 열심히 했던 그때를 회상할 때면 수홍은 이렇게 말한다.

“마을을 발전시키겠다고 외부로 뛰다보니까 정작 마을사람들과는 점점 멀어졌다. 마을사람들의 보폭에 맞추었어야 하는데 나 혼자 속도를 빨리 낸 게 후회 돼.”

옳은 말이다. 지도자가 목적을 이루겠다는 신념이 강하다보면 구성원들이 미처 준비도 하기 전에 끌고 가는 경우가 생긴다. 이럴 경우에 결과는 나오더라도 구원성의 마음은 지도자에게서 멀어지게 된다. 결과를 얻고 마음을 잃는 것이고, 성공을 했지만 실패가 남게 된다. ‘지도자는 구성원의 한 발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라는 말도 있다. 마을일을 하며 배운점은 앞으로 수홍이 더 멋진 일을 하는 데에 밑거름이 될 듯하다.

매운탕을 끓이려면 당연히 싱싱한 물고기가 있어야 할 터. 나를 보러 서울에서 내려온 윤복이형과 수홍과 나는 예전에 이곳 아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집에서 족대와 지렛대를 챙겨 집 앞을 흐르는 물로 갔다. 인북천이라고 부르는 이 물은 내금강과 대암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합쳐져서 이루어졌다. 이 물은 인제읍을 지나 소양강과 북한강으로 흘러 한강으로 내려간다. 장화를 신었는데도 물이 차갑게 느껴졌다. 경험자인 수홍이 지렛대를 잡고 초보자인 윤복이형이 족대를 잡았다. 취재를 해야 하는 나는 카메라를 들었다. 수홍이 물고기는 돌 밑에 있다고 말했다. 물고기



수홍과 윤복이 형이 고기를 잡는다

를 잡는 방법은 간단했다. 족대로 적당한 돌을 포위하면 지렛대가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 돌을 들썩인다. 그러면 돌 밑에서 휴식을 하던 물고기들이 놀라서 물이 흐르는 쪽으로 달아나다가 돌을 포위한 족대에 걸리게 된다.

수홍은 물고기가 있을만한 돌을 골라 하천의 가운데로 갔다. 나는 어른거리는 물에 현기증이 나기도 하고, 물살이 세서 발을 옮기기도 쉽지 않아 둘과 거리가 떨어졌다. 윤복이 형이 돌을 족대로 포위하자 수홍이 지렛대로 돌을 흔들었다. 윤복이 형이 족대를 들고 살피다가, 허탕인지 뒤집어 흔들었다. 두세 번 허탕을 친 뒤부터 우리는 활발한 개가를 올리기 시작했다. 돌 하나를 흔들면 평균 3-4마리의 작은 물고기가 잡혔다. 수홍이 옆 구리에 긴 자루에 물고기를 담았다. 나는 신기해서 물고기를 바라보는데 수홍은 얼른 다음 돌을 물색하고는 우리를 재촉했다. 이렇게 몇 번을 하다가 우리가 잡은 물고기 이름을 물어보았다.

“이건 쉬리고, 요건 돌마자, 얘는 배가사리.”

이름과 얼굴을 연결해보기도 전에 수홍은 다음 돌을 향하여 전진했다. 빈 족대를 건질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잡혔다. 약 1시간 동안 잡았더니 먹을 만큼 잡을 수 있었다. 우리는 물가로 나와 수확을 점검했다.

“요건 돌고기, 이놈은 기름
종개고, 얘는 통가리야.”

언뜻 보면 그놈이 그놈 같은
얼굴인데 천천히 보면 저마다
얼굴이 달랐다. 쉬리는 꽁치를
닮았고, 돌마자는 잉어와 비슷
하고, 배가사리는 하마를 닮았
고, 돌고기는 입이 뾰족했고,
기름종개(새코미꾸리)는 점잖

은 할아버지 얼굴이고, 통가리는 메기 얼굴에 뾰족한 입수염이 여덟 개나 있었다.

뒤늦게 재관이 도착해 우리와 합류했다. 이곳 월학리에서 자란 재관이 말에 따르면 자신의 어린 시절에 물고기를 잡는 방법은 가지가지였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항이 있다. 가게에서 파는 이 도구는 작은 통처럼 생겼다. 어항을 물에 띠내려가지 않게 돌로 고어놓으면 물고기가 뚫린 구멍으로 들어왔다가 나가지 못하고 꼼짝없이 갇히고 만다. 좁은 곳에서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물고기의 생리를 이용한 도구라나. 시골에서는 어항의 원리를 차용해서 사발에 비닐을 씌워 구멍을 뚫은 뒤에 그 안에 미끼로 된장을 넣고 물에 넣어두어 고기를 잡기도 한다.

메기굴낚시라는 것도 있다. 낭창낭창한 버드나무가지나 싸리나무가지를 1.5미터 정도로 자른 뒤에 끝에 한 뼘 정도 되는 줄을 단다. 그 줄에 달린 바늘에 지렁이를 달아 물속의 돌과 돌이 쌓인 사이의 구멍에 넣고 기다린다. 그러면 메기가 물게 되고 이때 낭창낭창한 가지를 타고 손에 고기가 걸린 느낌이 전달되어 재빨리 낚는 방법이다.

주낙이라는 것도 있다. 밤에 햅볼을 만들어 들고는 긴 줄에 한 뼘 간격으로 바늘을 70여개 정도 달아서 강을 가로질러놓는다.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면 물고기가



우리에게 잡힌 물고기들. 표정이 다양하다

걸려 있게 된다.

작살을 들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다. 이곳 아이들에게 잠수는 기본이라 작살질을 대부분이 해보았다고 한다. 작살총은 삼지창 작살을 아기고무줄에 달아 쏘는 방식과 우산대를 총처럼 만들어서 쏘는 방식이 있다. 작살도 세 가지가 있다. 촉에 날개가 하나 달린 작살은 물고기를 정통으로 뚫어도 물고기가 요동을 치면 작살이 빠져서 물고기가 달아날 수 있다. 날개가 두 개 달린 작살도 빠지는 경우가 있다. 가장 확실한 보증수표는 삼지창 작살이다. 이 작살은 대장간에서 특별히 맞추어야 한다. 아이들은 이 중에 하나를 들고 물로 들어가 잠수를 해서 돌틈에 난 굴을 찾는다. 어두운 굴속에 수염이 보이면 메기가 있는 표시다. 어림짐작으로 작살을 쏘이 메기를 잡았다. 만일 숨이 찬 가운데 물고기를 보았다면 우선 쏘아놓은 뒤에 물에 올라와 숨을들이 키고는 다시 잠수를 해서 현장에 간다. 내 아랫집에 사는 할아버지도 인제사람답게 물고기잡이에 대가급인데, 잠수를 하다가 숨이 필요하면 입으로 물을 먹어야지 코로 물이 들어가면 죽는다고 했다.

그리고 여기서는 찌가사리라고 부르는, 배가사리의 사촌 쯤 되는 물고기도 수경을 쓰고 물에 들어가 잡는다. 산란철이면 이놈들은 40-50마리씩 떼로 다닌단다. 물에 들어갈 때 목장갑을 끼고 양파자루를 가지고 들어가 손으로 잡아 자루에 넣으면 된다.

월학리에 군인이 많다보니 수류탄으로 잡는 방법도 있다. 재관이 어릴 때, 마을 근처의 부대에 근무하는 군인들이 연습용 수류탄을 가지고 나와 멀리 떨어져서 소沼에 던진다. 큰 폭발음과 함께 흙먼지가 내려 않는다. 죽은 물고기들이 물에 떠내려가 보에 걸리고, 이걸 아이들이 건져내어 군인들과 나눈다. 큰 물고기는 아이들이 잠수를 해서 물의 바닥에 돌로 눌러놓는다. 큰 물고기는 죽지 않고 기절한 상태라 나중에 살아난다나. 작은 물고기를 잡은 군인들이 희희낙락 돌아가면 영악한 아이들은 잠수를 해서 눌러놓은 물고기를 걷어다가 먹었다. 뛰는 군인 위에 나는 아이들이다.

가장 수준이 낮은 방법은 ‘돌땅’이다. 큰 돌을 들어 물에 내리쳐서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다. 효과는 별로 없고 힘만 든단다. 내 아랫집에 사는 할아버지가 어릴 때에 할아버지에게 보양식을 해 드리려고 돌땅을 했는데 힘만 들고 고기가 잡히지 않았단다. 그래서 도끼를 가져다가 바위를 내려친 뒤에 바위를 들어보니 물고기가 기절해 있어 잡았다고 했다. 그런데 그만 도끼대가리가 뭉개져서 아버지에게 혼이 났다는 말을 들려주었다.

겨울에도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 있다. 먼저 얼어붙은 빙판에 구멍을 뚫고 강을 가로질러서 그물을 친다. 그리고 상류에서부터 빙판을 떡메로 치며 내려온다. 그러면 물고기들이 놀라서 아래로 도망가다가 그물에 걸리게 된다.

요즘 인제에도 물고기를 잡는 아이들을 보기가 희귀하다. 시골의 아이들도 어느 곳의 아이들처럼 족대질조차 거의 해보지 못하고 어른이 된다. 세상에 중병이 들지 않고서야 시골 아이들이 물에서 놀지 않을 수가 있을까.

재관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밤에 물고기를 잡는 경험을 해주고 싶다고 했다. 헷불을 들고 넷가를 뒤졌던 자신의 행복했던 추억을 아들들도 가졌으면 좋겠단다. 아버지가했던 놀이를 아들도 한다면 이를 부자는 공통된 정서와 대화꺼리를 갖게 되어 친밀감을 더 가질 수 있다. 재관이 아들들에게 자신의 행복했던 경험을 남겨 주려는 마음은 앞세대가 뒷세대를 교육하는 교육 본래의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는 것이다.

뭘 하려는 교육인지

조선일보가 작년 12월에 10개국 국민 5,19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내용을 보면, ‘나는 매우 행복하다’고 답한 한국인은 7.1퍼센트로 가장 적었다. 브라질인은 10명 중 6명이 답해 ‘약간 행복하다’까지 더하면 브라질 인구의 90퍼센트가 행복한 사람들이었다. 그 뒤로 베트남(49.1퍼센트), 미국(29퍼센트), 캐나다(27퍼센트),

말레이시아(26.8퍼센트) 순이었다.

자살률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2010년 초중고생 자살자는 146명이었다. 2003년에 100명을 넘긴 뒤로 지금까지 가장 많은 수치다. 자살의 원인은 가정불화 46명(31.5퍼센트), 염세비관 28명(19.2퍼센트), 성적비관 18명(12.3퍼센트), 이성관계 10명(6.8퍼센트), 가정형편 5명(3.4퍼센트) 순이다. 원인을 모르는 자살도 38명(26.0퍼센트)이나 된다. 우리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사람의 모든 욕구와 행위는 행복한 삶을 지향하는 데서 나온다. 행복추구는 사람의 본질이며 생명됨의 목적이다. 사회는 태어난 생명에게 세상은 살만한 곳이고,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며, 너도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메시지를 끊임 없이 주어야 한다. 재능의 정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성취에도 차이가 있지만 행복은 재능이 부족한 사람이 재능이 많은 사람보다도 더 누릴 수도 있다. 행복은 자기가 느끼는 주관이기 때문이다. 재벌이나 권력자보다 출다가 담배를 피는 구멍가게 아저씨가 더 행복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의 첫째 목적은 행복이어야 한다. 우리사회는 이 점을 이제는 인정해야 하는데도 아직도 그 자리에 대신 올려놓은 ‘일류대학-안정된 직업(직장)’을 끌어내리지 않는다. 일류대학을 나와 안정된 직장을 가져야 행복할 수 있다는 논리는 헛된 환상일 뿐이다. 행복은 그 사람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질과 권리 획득으로 행복하려는 사람은 그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 더 심한 갈증이 날 뿐이다.

김윤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물질주의 가치관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로널드 잉글하트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량이 1만5천 달러에 도달하면 ‘수확체감’

이 발생하며 돈은 행복감을 거의 주지 않는다고 말한다. 더불어 잉글하트의 ‘세계 가치관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물질주의는 미국인의 3배, 일본인의 2배에 달한다고 한다. 한국인의 1인당 국내총생산량은 1960년대에 비해 250배 이상 증가하는 세계기록을 세웠지만 오늘날 한국인의 삶의 만족감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평균 6.7보다 낮은 5.7에 불과하다.”

건전한 일을 성취하면 만족감과 행복감을 주지만 이것도 본질은 아니다. 행복은 자아만족에서 나온다. 사람으로 태어나 살아가는 일이 감사하고 고맙게 느껴지는 이 감정이 진정한 행복이다.

캐럴 그레이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말한다.

“아프가니스탄 같이 전쟁과 기난을 겪는 나라 국민의 행복도가 생활수준이 훨씬 높은 남미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과 의료시설이 빈약한 캐냐 국민이 미 국인만큼이나 자국의 보건환경에 만족한다는 조사결과를 접했을 때 내 머리는 복 잡해졌다.”

행복은 주관이기 때문에 이런 머리 아픈 결과가 나온다. 담배를 팔며 자기에게 만족하면 그것은 누구도 뺏어가지 못하는 행복이다. 그런데 우리사회는 이 아저씨에게 “아나 당신은 불행한 사람이야!”라고 왜곡된 낙인을 찍는다.

우리사회의 교육은 행복한 사람은 고사하고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는 것처럼 불행한 사람을 대량생산 중이다. 가정도 학교도 직장도 미디어도 입을 맞춘 듯이 “저 학교에 가지 않으면, 등수에 들지 않으면, 저 직장에 가지 않으면, 저 자리에 오르지 않으면, 이 차를 타지 않으면, 이 아파트에서 살지 않으면 너는 불행한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준다. 가치를 전도시켜서 불행공화국을 만들어 버렸다.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염유식 교수팀이 올해 5월에 한국의 어린이와 청소년

6,4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주관적 행복지수를 공개했다. 결과는, 우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23개 가운데 65.98점을 받아 3년 연속 꼴찌였는데, 이는 1등을 한 스페인의 113.6점보다 47.6점이 낮고, 평균점수인 100점에도 34점이나 모자라는 수치였다. 우리 고교생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행복한가’라는 질문에도 2006년에는 13.7퍼센트가, 올해는 11.7퍼센트만이 ‘매우 그렇다’고 대답했다. 2006년에 같은 질문을 받은 일본은 32.3퍼센트가, 중국은 39.1퍼센트가 ‘매우 그렇다고 답해 우리 와 대조된다. 이에 대해 염유식 교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입시스트레스’를 꼽았다. 염 교수는 “학교와 학원을 오가는 경쟁적인 삶에서 가족과의 연결고리도 탄탄하지 않아 학생들이 외로움을 느낀다. 공부하느라 잠도 부족해 늘 피곤한 상태도 문제”라고 말했다. 우리사회는 학생들에게 불행을 교육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교육인가?

교육의 둘째 목적은 ‘타고난 점을 계발’해주어 자기를 실현하도록 돋는 것이어야 한다. 타고난 재능과 기질을 파악해서 다독이고 그의 취향을 인정해주면 사람은 스스로 열정을 쏟게 되어 있다. 사람이 자신의 성향과 자질을 발산하면 사회는 조화롭고 자신의 행복도도 높다. 진달래는 분홍색으로 봄에 피고, 국화는 노란색으로 가을에 피면 된다.

교육방송(EBS)에서 2007년에 2,698명의 성인에게 직업과 적성을 묻는 설문조사를 했다. 이들 가운데 51퍼센트가 자신의 직업과 적성이 맞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이 결과에서 유추되는 대로 국민의 반이 자기의 적성과 맞지 않는 일을 하며 산다면 국가전체의 수준과 행복도는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다.

교육방송은 자신의 직업에 불만을 느끼고 있다고 대답한 이 사람들 가운데 늘 심각하게 이직을 고민하는 8명을 뽑아 실험을 했다. 그런데 이들의 직업은 누구나 꿈꿔보는 직종이었다. 한 영어교사는 “막상 학교서 가르쳐보니 교사라는 일은 학생과 항상 관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높은 대인관계능력을 요구한다. 이 점이 나는

힘들다”며 수의사를 희망했다. 의과대 학생은 “자연과학이 나의 적성에 꼭 맞는 일 이 아니었다”며 방송작가를 꿈꾸었다. 도 정책연구원은 쇼 호스트가 되기 위해 학원을 수료했다.

한 세기 전에 서유럽에서 ‘아이큐(IQ)’ 검사가 개발되었다. 우리도 이 검사를 도입해서 학생을 이 검사의 점수에 따라 지능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으로 간단히 분류해 간주했다. 그런데 과학과 학문이 발전하면서 학자들은 이 아이큐검사가 사람의 능력 가운데 지성의 극히 일부인 기억력만을, 그것도 많은 기억력의 종류 가운데서 일부만을 측정하는 ‘헛똑똑이’라는 점을 밝혀냈다. 이런 검사를 하고는 아이들을 똑똑한 놈과 돌대가리로 나누어 훈장과 주홍글씨를 각각 달아주었다니. 당시에 과학과 학문이 미숙했다 하더라도 사람의 본질을 통찰하는 눈이 이다지도 없단 말인가!

고맙게도 1983년에 하워드 가드너 하버드대 교육학과 교수가, 사람은 8개의 범주로 나뉘지는 능력이 있다는 ‘다중지능’ 이론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사람능력에 관해 인류가 찾아낸 최고의 연구인 ‘다중지능’에 따르면 사람에게는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음악지능, 신체운동지능, 공간지능, 대인관계지능, 자기이해지능, 자연친화지능이 있다.

교육방송에서 음악지능과 언어지능이 높은 초등학생을 각각 20명씩 모아놓고 기억력실험을 했다. 이를 모두에게 피아노곡조와 장구박자를 각각 들려주었다. 이어 들려준 음악과 같은 음악을 그리고 조금 다른 음악을 각각 들려주고 몇 번째 음악이 처음에 들려준 박자와 곡조가 같은지를 선택하게 했다. 이것은 음악기억력을 알아보는 실험이다.

다음으로 아이들에게 30개의 단어를 보여주고 1분 뒤에 기억하는 단어를 적으라고 했다. 이어 동화구연을 들려준 뒤에 기억하는 단어를 나눠준 종이에 표시하라고 했다. 이 두 실험은 언어기억력을 알아보는 실험이다(사람의 능력에서 가장 단순한 능력인 기억력만 해도 음악기억력과 언어기억력 외에 공간기억력, 수리기

억력, 색채기억력, 운동기억력 등 많은 종류가 있다).

그 결과, 음악지능이 높았던 아이들은 음악기억력이 언어기억력보다 4점이 높았고, 언어지능이 높았던 아이들은 언어기억력이 음악기억력보다 12점이 높았다. 아이들은 자신의 강점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발휘했다. 아이큐 검사에서는 발견하지 못하는 차이다. 교육방송은 “아이큐가 높으면 기억력이 좋다는 기준의 평가는 오류고 편견”이며 “중요한 것은 음악이나 언어를 기억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무언가에 의해서 저절로 되었다는 점”이라고 결론한다. 정리하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것에 더 끌리는 바로 그것’이 타고난 성향이자 능력이다.

앞서 말한 8명을 대상으로 다중지능을 검사해보니, 수의사를 하고 싶은 영어교사는 자연친화지능이, 방송작가를 꿈꾸는 연구원은 공간지능이, 방송작가를 꿈꾸는 의대생은 자기이해지능이 자신의 강점지능으로 나왔다. 이 지능들은 모두 자신이 꿈꾸는 직업에서 꼭 필요한 지능들이고, 나머지 5명도 3명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모두 부모가 원하는 학과에 진학한 공통점이 있었고, 그들이 타고난 지능은 그들이 전공한 학과에서 필요한 지능과는 정반대였다.

교육방송은 한 걸음 더 나이가 자신의 분야에서 각각 성공한 패션디자이너 이상봉, 가수 윤하, 발레리나 박세은, 외과의사 송명근 씨를 대상으로 다중지능검사를 했다. 그 결과, 이상봉-공간지능, 윤하-음악지능, 박세은-신체운동지능, 송명근-논리수학지능이 강점지능으로 나왔다. 자신이 성공한 직업과 강점지능이 일치했다. 이 결과와 함께 주목할 것은 이들도 약점지능이 있다는 점이다. 이상봉은 산수를 못했고, 윤하는 찾아갈 건물을 못 찾는 길치고, 박세은은 순서를 외우는 게 둔하고, 송명근은 이름을 못 외운다고 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잘할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모두에게 같은 능력을 요구한다면 바보를 만드는 교육일 뿐이다. 타고난 강점을 찾아주고 키워주면 아이는 스스로 성취에 이른다. 있는 것을 있는대로 찾아주는 일이 뭐가 어렵나, 없는 것을 있게 하려니까 힘이 들지.

이와 더불어 교육(당국)이 할 일은, 만일 악기연주에 재능이 있는 아이가 있다면 그가 가난해도 재능을 꽂고우도록 지원을 해주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처럼 레슨비용이 비싼 구조에서는 재능이 있어도 가난하면 그 재능은 싹도 피워보지 못하고 죽는다. 모든 사람의 재능은 사회공동체 전체의 재산이다. 타고난 아이들의 재능을 잘 파악해서 물과 거름을 적절히 주며 키워서 사회공동체 전체에게 유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

교육의 세째 목적은 ‘더불어 사는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다. 인류는 오랜 세월동안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 자연계의 원리라는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이 논리에 충직했던 우리사회는 경쟁을 해서 살아남은 강자가 독식을 하도록 이기심을 장려하는 사회구조를 용인했다. 이 캐캐묵은 논리의 약점은 사람의 본성이 가진 반쪽을 전체로 오인한 점이다. 사람에게는 악도 있고 선도 있다. 세살짜리 아이가 자기 동생을 보살피는 엄마의 행동에 질투가 나서 동생을 때리면 악이 드러난 것이고, 엄마를 찾으며 우는 동생을 쓰다듬는 행동은 선이 발현된 경우다. 사람에게 악을 장려하면 악인이, 선을 장려하면 선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우리사회가 암암리에 합의하여 시행한 교육은 ‘나만 잘 먹고 잘 되면 된다’는 이기심을 장려하는 내용이었다. 계산이 없는 우정을 나누며 서로 도우면서 함께 살아갈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아이들에게 서로를 짓밟고 가야할 경쟁상대로 여기게 하는 사회는 정신병자를 양산하는 병리사회다.

미국 샌타페이연구소 새뮤얼 볼스(72) 교수는 경제학이라는 분과학문의 틀에서 벗어나 다양한 영역을 넘나들며 대안과 실천이 되는 경제이론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세계 정상의 학자다. 그는 주류경제학을 움직이는 ‘인간은 이기적’이라는 전제 자체가 틀렸다며 “모든 개인이 이기적이라고 주장한 것은 경제학자집단이 유일했다. 그러나 1960년대 들어 경제학계에서 펼쳐진 여러 실험을 통해 이 신화는 깨졌다”고 한다. 탁자 위에 놓인 돈을 사람들이 어떻게 나눠 갖나 살펴보는 실험에서 참

가자들은 공평하게 돈을 나눴다. ‘인간은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는 가설이 뒤집어진 것이다. 이런 결과는 다른 실험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 결국 인간은 ‘호혜적 이타성’을 지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한다. 볼스는 “경제학 지식이 인간사회의 상식에 마침내 자리를 내준 것”이라고 말했다.

생물학은 마지막 장벽이었다. 다윈주의에 따른 자연선택이론은 이기적 개체가 경쟁에서 살아남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화생물학 영역의 연구들이 이 역시 뒤집었다. 인간은 집단중심동물이라 집단을 위해 협동하는 이타적 개인이 많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자연선택에 성공해 왔다는 이론이 설득력 있게 제시된 것이다. 볼스는 “경쟁이 진보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협동이 진보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현대생물학은 경제학에 교훈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볼스는 “이타심과 협동심을 가진 인간본성에 대한 새로운 연구는 경제학과 공공정책에 강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말한다. 그동안 경제학의 영역이 아니라 고 치부했던 ‘공정과 정의’가 새로운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주장이다. ‘경제적 인간’이라는 관점에서 경제를 분석하고 공공정책을 제시했던 경제학자들은 금전수단으로 인간행동을 움직이려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스라엘의 미취학 어린이 보육시설에서 행한 실험을 예로 들었다. 아이를 찾으러 오는 부모들이 자주 지각을 해서 골치였다. 한 경제학자가 지각에 벌금을 물리고, 나머지는 그냥 놔두자고 제안했다. ‘금전적 불이익이 지각을 줄일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벌금제를 하기 전보다 지각비율이 꼽절로 늘었다. 반면 벌금제를 하지 않은 시설의 비율은 그대로였다. 벌금제가 ‘지각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라는 인식을 줘 부모의 자발성을 감소시켰던 것이다.

볼스는 “인간본성의 새로운 발견은 내가 한평생 천착해왔던 민주주의와 평등주의 정책이 정치적으로 충분히 실현가능하다는 근거를 제공한다”고 말한다. 한겨레 신문, 최원형, ‘이기심보다 정의가 큰 역할-주류경제학 틀렸다’, 2011.4.26.

인류는 지금까지 사람의 본성의 반쪽인 ‘성악’을 근거로 경제정책을 시행했고 이

제 비로써 그 남은 반쪽인 ‘성선’을 발견하는 중이다. 지금까지 해온 관성에 따라 성악이 쉽게 자리를 내주지는 않겠지만 성선을 발견한 인류에게 박수를 보낸다.

먹을거리가 부족했던 시절에는 선보다는 악이 표출되기가 쉽고, 이에 따라 경쟁을 시켜서 재화를 나누는 방식이 흐름이었다고 치자. 이제는, 사회가 바뀌었다. 우리나라의 이제 꽤 부자가 되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사회가 아니다. 내가 배고프면 남도 배고프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만큼 남도 잘 되기를 바란다는 인간성에 대한 이해를 공감하게 되었다. 내가 획득한 지식과 재화와 창의한 결과가 그대를 위해 사용되어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면 좋겠다는 이타심을 발현하는 일은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본성에 반이나 있는 면을 사용하는 일일뿐이다. 생산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도 경쟁보다는 협력이 더 효과가 높다. 두 발이 서로 먼저 가겠다고 싸우면 넘어진다. 사이좋게 한 번씩 서로 양보하며 협력해야 목적을 이룬다. 홀로에서 함께로, 경쟁에서 협력으로, 독식獨食에서 공식公食으로, 나에서 우리로 나아가야 우리는 비로소 행복에 도달한다.

교육정책에 관해 보다 더 현실감 있는 제안을 한다면,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도 종류 이상의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구조를 만들라는 것이다. 대학을 나와야 인정을 받고 급여도 많이 주는 사회구조에서는 지금처럼 초중고 교육은 대학입학을 위한 교육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대학을 나와야 월급도 많고 대접도 받는 사회에서 어느 부모가 대입에 결기를 세우지 않을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도 그만한 대우를 받고, 무학자라도 그만한 기술이나 기능이 있다면 같은 존경과 대우를 받는 사회라야 대학입시를 위한 교육은 사라진다. 독일과 같은 나라가 우리의 모델이다.

혹자는, ‘유럽사회는 우리보다 훨씬 부자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국민소득 2만 달러인 우리나라는 파이를 더 키워야 한다’고 말할 것이다.

이 말에는 두 개의 오류가 있다. 국민 개개인이 1년에 2만 달러(우리 돈으로 2천 6백만 원)나 번다면, 그래서 4인 가족에서 두 사람이 일을 해서 5천만 원을 넘게 번

다면 우리나라는, 경제만으로는 지상낙원이다. 한 달에 88만 원을 벼는 청춘들이 수두룩하고, 비정규직이 상점, 기업, 공공에까지 넘치는 우리사회에서 한 사람이 2만 달러씩 번다고 하면 소도 웃지 않는다. 위의 소득을 비유하면, 국민 백 명이 함께 2백 만 원을 벌었으니 한 사람당 2만 원이 소득이라는 계산인데, 우리사회에서 실제로는 그 2백만 원에서 다섯 사람이 백만 원을 가져가고, 오십 명이 80만 원을 가져가고, 나머지 20만 원을 45명이 나누어 갖는 구조다. 백만 원을 가져간 다섯 사람이 5십만 원만 가져가고, 나머지 오십만 원을 20만 원을 가져가는 45명에게 돌리면 그런대로 아름다운 분배가 된다. 파이는 골고루 나눠먹을 만큼 이미 크다. 파이의 반을 잘라가는 상위 5퍼센트의 칼질을 저지하면 마트계산대의 비정규직 아주머니도 중류생활이 가능하다.

또 하나의 오류는, 파이 자체에 있다. 성장논자들은 국민소득이 3만 또는 4만 달러가 되어야 나눌 것이 있고, 따라서 하리띠를 더 졸라매고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말한다. 위에서 2만 달러에서도 분배를 제대로 하면 가난이 해결된다는 점을 말했기 때문에 3·4만 달러를 벌어야 한다는 말에 따로 말을 하지는 않겠다.

다만, 열심히 일해야 하는 점에는 당연히 동감을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열심히 해야 하는가는 다시 생각해야 한다. 노동집약형 제품을 만들던 우리가 중국의 부상과 비싸진 우리나라의 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중국이나 동남아에 공장을 세우고 노동집약형 제품을 생산한다. 한편으로는 기술력을 축적해 부가가치가 높은 반도체 같은 제품으로 큰돈을 벌고도 있다. 요점은, 노동집약형 제품과 기술집약형 제품 사이에 있는 우리나라의 생산구조를 일본이나 독일처럼 부가가치가 높은 기술집약형으로 바꾸자는 말이다. 기술이 하루아침에 축적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이 뜻을 모아 행정도, 교육도, 분배도 선진국형으로 재구축하면 우리 국민의 손발에서 신비함을 보게 된다. 일할 맛이 나는 판을 먼저 만들어 놓으면 일꾼은 몸이 부서지는 것도 모르고 일한다는 것을 내 경험으로 안다. 반면에 판은 나중에 만들어 줄 테니 먼저 일을 하자고 70·90년대의 사장들처럼 말하면 그 말에 속아

본 노동자들은 듣지 않는다. 우리사회가 선진국이 되려면 반드시 기술집약형으로 가야하고, 그러면 지금의 구조를 조정해서 노동자가 신바람을 내는 판을 만들어야 한다. 사회와 경영자가 노동자를 인정해주고, 충분한 임금을 주면 노동자는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며 일하게 되어 있다.

저급파이를 크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작아도 고급파이를 만들자. 고급파이를 만들려면 만드는 일꾼을 인정하고 대우해야 한다. 그러면 그는 혼신의 노력을 들여서 경영자가 원하는 파이를 만들어낸다. 14살 때부터 지금까지 30직종을 넘게 일해 본 내 경험이 하는 말이다.

교육에 대해 몇 마디를 더 하자. 지금 우리의 교육은 학생을 아동화(또는 연성화)시키는 교육이다. 지금의 교육은 고등학교를 졸업해도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역사와 문화와 자신의 인생에 대해 의견을 갖게 하지 못한다. 12년 동안이나 열심히 듣고 외웠는데도 자신의 의견과 중대가 세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의 사회 문제에 대해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관심도 없다. 더구나 자신의 세계관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내면이 허약하고, 이마다보니 자신의 미래상도 불투명하다. 몸은 커도 의식과 내면은 아동 수준에 머무른 학생이 태반이다.

아동화를 굳힌 데에는 부모와 교사와 우리사회가 학생을 ‘애’라고 부르는 호칭도 큰 뜻을 했다. 중학교 때까지는 애라고 불러도 되겠지만(나는 초등생까지만을 애라고 하고, 중학생부터는 등급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17-19살이 된 청춘은 ‘애’가 아니다. 자꾸 애라고 부르니까 청춘들이 애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의식에 굴레를 씌워놓는 것이다.

조선시대의 문과 과거시험에서 최연소 합격자는 이건창이인데, 그의 나이 13세였다. 과거시험은 그동안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당대의 문제를 자신의 의견으로 논술하는 것이다. 이건창이 천재인 점도 있겠지만 그의 합격에는 조선의 두 가지 교육특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첫째, 배우는 내용이 지금의 수준과 견줘지지 않는 내용이었다. 조선시대에는 그때 초등학교인 서당에 입학하면 가장 먼저 ‘천자문’을 배운다. 학동들이 봄을 흔들며 입을 맞춰서 “하늘 천 땅 지 검을 현 누를 횡”이라고 노래하며 천자문을 통째로 외운다. 이 천자문은 천문天文, 박물博物, 역사, 인물, 인륜, 교육, 생활 등 각 방면을 포괄한 내용이 담긴 철리哲理서이자 백과사전이다. 이런 내용을 초등 1학년 때에 배운다. 지금의 초등 1학년들이 배우는 내용과 견줘보면 한심하기 그지없다. 내가 초등학교 1학년 시절에는 ‘바둑아 이리와, 영희야 놀자’가 첫 단원이었다.

둘째, 자녀가 15세 이상이 되면 관례冠禮(성인의식)를 치러주고 성인으로 대접했다. 관례는, 남자라면 상투를 틀고 갓을 쓰고, 여자는 쪽을 찌고 비녀를 꽂았다. 15세면 요즘으로 치면 중학교 2학년이고, 한창 천둥별거숭이 같은 나이다. 조선에서는 부모와 마을공동체가 이 나이의 자녀를 성인으로 대접한 것이다. 과거시험에 나이제한이 없었다는 점에서도 조선시대에서 연소자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읽을 수 있다.

교육내용과 공동체의 의식이 합쳐져서 조선시대에는 일찍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 성인 대접을 받으면 성인다운 언행이 따르고, 아이 대접을 받으면 아이다운 언행을 하게 된다. 지금의 교육내용과 우리사회가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는 정말, ‘저질’이다.

우리사회의 교육에서 또 다른 문제는 교사教師의 자질과 대우다. 교사는 안정된 직장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선호하는 터라 교사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교사가 된다. 이건 그 자신과 그에게 배우는 학생은 물론이고 사회전체에도 비극이다.

교사가 되려는 사람의 첫째 요건은 교대졸업이나 실력이 아니라, 품성이다. 교사에게 품성이 왜 중요한가 하면, 교사의 품성이 학생들에게 그대로 전이되기 때문이다. 배움의 내용보다 품성이 먼저 학생들에게 전해진다. 교사가 상처와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이라면 그와 긴밀한 관계를 하게 되는 학생들도 그 지장 안에서 상처를 받고 열등감을 배운다. 그래서 교사는 정서가 안정된 사람이어야 한다. 맑

고, 밝고, 순하고, 유연한 젊은이가 교사가 될 자격이 있다.

교사의 두 번째 자질은 가르치는 능력이다. 제아무리 알고 있는 게 많아도 가르치는 능력이 없으면 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연구자가 되면 좋다. 가르치는 능력이란 학생의 수준과 의식을 간파해서 그에 맞는 내용과 교수법으로 가르치며 돌발상황도 유연하게 이끄는 능력이다. 이런 능력이 있어야 가르침이 제대로 전달된다.

실력은 세 번째다. 세 번째라고 해서 실력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순서를 매긴 것은 중요성의 차례를 강조했을 뿐이고, 세 가지 모두를 하나처럼 갖춘 사람이 교사가 되어야 한다.

이런 사람을 뽑으려면 당연히 대우가 남달라야 한다. 그래서 교사는 사회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의사보다? 그렇다. 판사보다? 그렇다. 유대인의 지혜인 <탈무드>를 보면, 우리나라만큼이나 침략을 많이 당한 유대인은 침략을 당하면 가장 먼저 교사를 피난시킨다. 교사가 있어야 학생을 교육하고, 그래야 민족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교사는 안정되게 월급이나 받는 직임이 아니라 자신을 소진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직임이다. 최고의 대우는 당연하다.

임금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최고의 예우를 해야 하는데, 지금 교사의 권위는 땅에 떨어져 발에 밟히는 지경이다. 이래서는 교육이 안 된다. 이 여파는 첫째 학생에게 둘째 학부모에게 셋째 사회전체에 그대로 돌아간다. 교사가 살아야 학생이 살고, 학생이 살아야 민족의 미래가 있다. 교사를 존경하는 문화가 회복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교사들 자신도 교사의 역할에 막중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

어울려 사는 게 행복

우리는 잡은 물고기를 들고 수홍의 집으로 돌아왔다. 물고기의 비늘을 벗기고 배를 가른 건 수홍이 했고, 요리는 나에게 제수씨가 되는 수홍의 아내가 맡았다.

매운탕을 끓이려고 물을 올렸다. 물이 끓으면 무를 넣고, 고추장과 고춧가루를 벼무려서 물에 푼다. 내장을 꺼낸 고기에 밀가루를 묻혀 끓는 물에 넣는다. 밀가루를 묻히면 맛도 좋고 고기모양도 무너지지 않는다. 단, 너무 많이 묻히지는 않아야 한다.

제수씨는 특별한 사람이다. 수홍이가 <평화생명동산>에 입사한 뒤에 집에 늦게 오는 일이 잦고, 힘들어하자 ‘내가 먹여 살릴 테니 당장 그만두라’고 했단다. 제수씨는 돈을 많이 벌거나 일을 많이 하는 삶을 원치 않고 여유롭고 한가하게 살기를 소원한다고 한다. 나도 동감이다. 오늘 적절히 일하고 재미나게 살면 평생이 행복하다. 오늘 죽도록 일해서 내일 행복하겠다면 평생 일만 하다가 죽는다. 내일이 오늘이 되면 또 그 다음 내일을 위해 일해야 하는데 언제 행복하겠나. 내일을 준비하는 삶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면서도 오늘 내가 행복하냐를 물어야 한다.

한소끔 끓인 뒤에 갯잎과 파를 넣고 다시 한소끔 끓인다. 마늘과 파를 넣고 소금으로 간을 하면 매운탕이 된다. 수제비를 넣고 싶으면 야채를 넣기 전에 넣으면 된다.

매운탕이 끓는 사이에 그리고 한 그릇씩 덜어 먹는 사이에 사람들이 한 명씩 이 집을 방문했다. 백창현 국장, 사무직원과 가족은 우리가 불렀다. 나머지 사람들은 이곳을 방문했다가 벌어진 자리에 합석했다. 내가 아는 사람도 있었고, 모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모인 사람들로 우리의 흥은 벌써 집안을 채웠다.

매운탕에서는 비린내가 나지 않았다. 제수씨의 매운탕은 맵지 않고 담백했다. 물고기는 부서지지 않고 제 모습을 유지한 놈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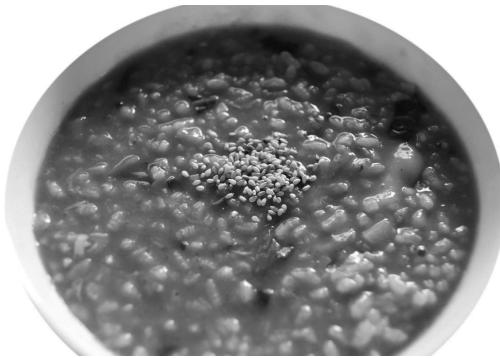
엄배덤배 모인 사람들은 술 한 잔에 물고기 한 마리씩, 머리와 꼬리지느러미까

지 다 씹어 먹었다. 연한 몸이 통
째로 씹히는 느낌이 개운하지만
은 않았지만 꼭 나쁜 것만도 아
니었다. 직접 잡은 물고기로 끓
인 매운탕이라 그런지 먹는 사람
들의 만족도는 높아보였다. 나도
한 그릇을 비웠다. 매운탕과 함
께 술도 바닥이나 수홍은 원통으
로 술을 주문했다.



통째로 보이는 물고기가 좀 심뜩하기도 하다

불콰해진 윤복이형도 이런 분위기를 좋아한다. 형이 지금도 산을 가고 산악회
사람들과 어울리는 까닭도 사람을 좋아하는 기질 때문이다. 윤복이형과 나는 산악
회활동을 같이 한 사이다. 우리 산악회는 암벽등반을 했다. 암벽등반을 하면 서로
에 대한 친밀감이 강하다. 한 자일에 몸을 묶고 서로의 안전을 책임지다보면 자연
히 끈끈해진다. 내가 처음으로 산에 간 때가 28살이었다. 그때 나는 대입검정고시
에 합격하고 대학입학에 도전하던 때였다. 삶은 생각처럼 풀리지 않았다. 좌절과
방황이 계속되던 이때는 나에게 어두운 먹물이 몸과 마음에 가득하던 시절로 남았
다. 감사하게도 그때 사람과 산이 나에게 찾아왔다. 토요일 밤에 도봉산 입구의 19
번 종점에 회원들이 모여 배낭을 지고 깜깜한 산을 오르면 새로운 힘이 솟았다. 자
운봉 아래에 텐트를 친 뒤에 코펠에 라면을 끓여 가스등 하나를 밝혀두고 둘러앉아
먹으면 최고의 음식이었다. 그 불 아래에서 밤새소리를 들으며 도란도란 이야기
하나에 술 한 잔을 나누고 잠이 들었다. 다음날, 높은 봉우리에 올라 대자연을 바라
보면 몸과 마음에 차 있던 먹물이 빠져나가며 막힌 삶을 뚫어보리라는 힘이 실렸
다. 이렇게 이십대 후반부터 삼십대 초반까지 나는 친밀한 사람들과 산에서 놀며
몸과 마음의 그늘을 하나씩 지웠다. 내가 산이 많은 인제에서 사는 것도 이때에 받
은 영향이 있을 법하다.



통깨를 얹은 어죽. 맛이야 그만이지.

매운탕을 다 먹은 뒤에 그 국물로 어죽을 끓였다. 원래 어죽은 물고기를 갈아서 만든다고 한다. 오늘은 술안주로 물고기를 죄다 먹어서 국물에 끓이기로 했다. 국물이 끓게 되면 미리 불려놓은 쌀을 넣고 바닥에 눌러 붙지 않도록 잘 저어야 한다.

제수씨는 어죽에 곰취를 썰어

넣었다. 봄이면 인제군의 산에 널린 게 나물이고, 가장 흔한 나물이 곰취다. 곰취는 알싸한 맛이 특징이다. 나누어 먹는 어죽에서도 알싸한 맛이 났다.

음식을 다 먹은 우리는 밖으로 나왔다. 뜻밖에 모여서 작은 잔치를 열고 흥겹게 이야기를 나눈 뒤끝이라 내가 자연스럽게 기념사진을 찍자고 제안했다. 긴장이 없이 얼큰한 얼굴들이 카메라를 바라보았다. 서로를 알든 모르든 매운탕을 나누어 먹으며 말과 눈길을 주고받은 우리의 마음은 넉넉해져 있었다. 칠칵! 한 장의 사진으로 이때를 남긴 우리는 각자의 삶으로 흩어졌다. ★

정무교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인제에 내려와서 신문기자를 했고, 「한림성심대학」에서 강의했다. 지금은 <인제인문학당>을 설립해 인문학을 가르치는 중이다.
jamigael@hanmail.net

인제의 옛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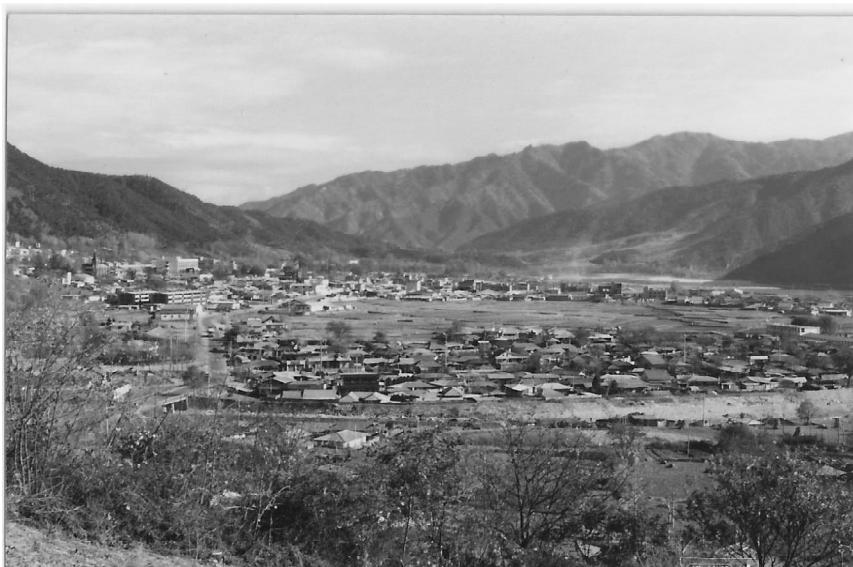
정무교

옛날에 찍어둔 사진을 지금 보면 감회가 새롭다. 세월에 따라 사람의 모습이 바뀌듯이 지금 내가 사는 곳도 그 옛날과는 큰 차이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리고 과거여행을 떠나듯이 사진에 들어가 그때를 이야기하게 된다. 한참 동안 그때를 회상하다보면 입가에는 웃음이 머물고 훈훈한 마음이 된 나를 발견한다.

인제의 옛 모습을 찍은 사진을 모아보았다. 많은 사진은 아니지만 의외로 옛 사진을 소장하고 있는 분이 적어서 모으는데 제법 어려움이 있었다. 소장사진을 내어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그때를 사신 분이 사진과 글을 읽으면 훈훈한 마음이 되실 테고, 그때를 모르는 젊은이라도 고장의 옛날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리라.

1971년 즈음에 찍은 사진이다. 계절이 언제인지는 모른다. 오정진 시인(전 인제문화원장)이 산에 올라 찍은 사진이다. 오 시인은 40년 동안 취미로 사진을 찍었다. 오 시인이 사진을 시작한 동기는 설악산의 명승지를 촬영해 사진첩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다. 오 시인은 설악산을 백 번 이상 올랐다고 한다.

“설악산은 어디라도 다 좋지만 그 가운데 수령동과 천불동 계곡이 가장 좋아요. 변화가 무쌍하거든요. 그런데 설악산의 60퍼센트가 그리고 명승지의 70퍼센트가 인제군에 있는데 아직도 제대로 된 관광안내도가 없어요.”



인제읍 모습. 오정진 시인 소장

오 시인은 내게 설악산관광지도를 보여주었다. 십이선녀탕계곡을 보니, ‘용봉폭포-용탕폭포(복승이탕)-두문폭포’만 표기가 되어 있었다. 오 시인은, 이 계곡에는 이 세 곳 외에도 ‘산주소-칠음대-구선대-독탕-북탕’이 있는데 표기가 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한편, 용탕폭포는 원래 ‘무지개 홍’자를 써서 ‘홍탕’ 또는 ‘무지개탕’이라고 불렀는데 언제부터 이름을 맘대로 바꿨다고 했다.

오 시인은 인제문화원이 발행하는 〈인제문화〉 창간호(1986년)에 〈인제의 자랑 내설악〉이라고 제목을 달아 기고한 글에서 내설악을 순수한 우리말로 ‘안 뵐(안살 뵐)’라고 하고 이렇게 쓴 기록이 있다고 하며, 설악산이 품은 인문과 자연 자원을 살려야 한다고 역설했는데도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사진 왼쪽 아래의 다리가 ‘남북리다리’다. 그 위로 멀리 인제군청이 보이고, 군청 왼쪽으로 뾰족지붕을 한 인제장로교회가 보인다.



인제읍의 가을, 오정진 시인 소장

1981년 가을에 오정진 시인이 남북리에 있는 자택의 옥상에서 찍은 사진이다. 벼가 누렇게 익었다. 멀리 낙원아파트가 보인다. 낙원아파트는 인제에서 가장 먼저 지어진 아파트다. 그 뒤에 인제의 앞산인 비봉산이 있다. 사진 왼쪽에 있는 나무는 오 시인의 집 마당에서 사는 배나무다. 오 시인은 이 나무에 적성병(배에 붉은 점이 생기는 병)이 들어 베어냈다. 그 자리에는 지금 호두나무가 산다.

오 시인이 이 사진을 찍은 집은 자신이 총감독을 해서 1974년 초에 시작해 약 1년 만에 완공한 집이다.



30평인 이 집은 남북리 최초의 슬라브집이다. 현재는 보온을 위해 단열을 해 놓았다. 굴뚝이 세 개나 있는 집이다. 오 시인은 이 집 뒤에 새로 집을 지어 살고 이 집에는 현재 다른 가정이 산다. 이 집을 짓기 위해 모래를 앞장에서 펴와 시멘트와 섞어 벽돌을 직접 찍어서 지었다. 오 시인은 이 집을 지을 때에 들어간 공사비항목과 비용을 조목조목 적어놓았다. 총공사비는 2,350,440원이 들었다. 목수의 일당이 5천 원, 잡부는 2천 원, 모두 600포가 들어간 시멘트는 한 포에 460원이었다.



수해가 난 인제읍 1. 오정진 시인 소장



수해가 난 인제읍 2. 오정진 시인 소장

1991년 9월에 수해가 났다. 앞강의 물이 넘어와 남초등학교 운동장까지 채웠다. 사진 오른쪽에 있는 ‘남북리다리’ 하단까지 물이 쳤다. 오 시인은, “조선시대 때의 기록을 보면 인제읍은 2백 년에 한 번씩 물이 쳤다”며 “큰 비가 내린 뒤에 미산에서 내려온 물과 원통에서 내려온 물이 합강리에서 만나 살구미를 빼져나가게 되는데 여기가 좁기 때문에 병목현상에 의해 수해가 난다”고 말했다. 즉, 인제에 수해가 나는 것은 지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사진 2의 앞산에 황토색이 보이는 부분의 앞쪽이 지금의 인제체육관 자리다. 비닐하우스도 잠기고 그 뒤에 있는 오정진 시인의 밭과 농막도 물에 잠겼다. 오 시인은 밭에 물이 차오르자 농막에 둔 경운기를 몰아내오려고 시동을 걸었는데 걸리지 않고, 물은 점점 차올라 할 수 없이 몸만 나왔다고 했다.

아래 사진 3은 인제읍 상동리 충혼탑에서 바라본 모습이다. 오른쪽에 농협창고가 있다. 왼쪽 멀리에 낙원아파트가 있고, 오른쪽 멀리 보이는 남초등학교 운동장까지 물이 쳤다. 큰 비가 내린 뒤라 그런지 동네가 어수선하다.



수해가 난 인제읍 3. 최광일 법무부 범죄예방 인제지부 협의회장 소장



원통극장.

최회장 소장

1967년 4월 25일에 원통극장 앞에서 찍은 사진이다. 왼쪽에서 두 번째가 최광일 법무부 범죄예방 인제지부 협의회장이다. 그때 최회장은 원통극장에서 기도책임자로 일했다. 그때는 주로 사병들이 영화를 보았다. 군인들이 극장에 오면 중대원들이 단체로 왔기 때문에 최회장은 사진 맨 오른쪽에 있는 군인과 같이 기도를 보았다고 한다. 영화가 끝나고 밤 10시에 퇴근한 최회장은 차가 없어서 집이 있는 인제읍까지 매일 걸어왔다. 인제읍에도 지금의 인제문화관 자리에 극장이 있었다.



합강리 스케이트장. 최회장 소장

1967년 1월에 합강리 뱃터에서 찍은 사진이다. 겨울이면 이곳에 스케이트장이 섰다. 최회장은 이 스케이트장에서 스케이트의 날을 갈아주는 일을 했다. 군민도 군인도 이곳에서 스케이트를 탔다. 최회장도 날을 갈다가 스케이트를 탔는데 한번 타면 열 바퀴 이상을 돌았다고 한다. 스케이트장 한쪽에서 어묵을 파는 사람이 있어서 추우면 따뜻한 어묵을 사 먹었다. 이때 초등학교를 다니던 이영하, 김현도, 송창연, 장경수, 이미미 씨가 여기에서 스케이트를 자주 탔다고 한다. 이영하 씨는 나중에 큰 선수가 되었다.



위장간첩 가장행렬 모습

1968년 3월 21일에 인제군청 사거리에서 찍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온 최회장이 엿장수 모습으로 분장을 하고 거리를 지나고 있다. 손수레 앞과 뒤에 도 말끔한 신사 등으로 분장한 사람들이 있지만 사진에는 나오지 않았다. 그때는 선량한 남한사람으로 위장한 간첩이 많이 남파될 때라 이런 복장을 하고 간첩이 남파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이런 행사를 했다. 손수레 뒤에 성낙영 씨가 운영하던 <인제서점>이 보인다. <인제서점>은 지금의 ‘솔로몬’ 근처에 있었다.



장수대 모습

1978년 4월 23일에 장수대〈동부산장〉앞에서 찍은 최회장 부부의 모습이다. 최회장 부부는 인제읍에 있는 ‘대한예식장’에서 결혼식을 마치고 친구들과 동부산장으로 이동했다. 최광일 씨 친구들은, 결혼식을 끝내고 곧바로 시댁으로 들어가면 신부가 힘들다면 동부산장으로 끌고 온 것. 고성군 토성면이 고향이던 신부를 축하하기 위해 버스를 대절에 결혼식에 참석한 지인들은 신랑이 인사도 안 하고 없어졌다고 두고두고 서운해 했다고 한다. 신부 쪽은 피로연을 ‘산동반점’에서 했고, 주례는 당시 군농협 조합장이던 오정진 시인이 했다.



인제운동장 체육대회

1997년 가을에 인제운동장에서 열린 ‘읍면대항체육대회’에서 식전행사로 사물놀이를 하는 모습이다. 비가 오는 중이라 앞산이 안개에 가렸고, 구경꾼들은 천막 안에 들어가 있다. 그때는 운동장도 맨땅이었다. 인제군에서 사물놀이는 96년에 보급되었다. 최회장은 이 행사에서 상쇠를 맡아 연주를 했다.



협신전업사

1991년에 2월 3일에 찍은 사진이다. 지금 인제지부농협 건너편에 있는 하나체육
사 자리에 당시에는 최회장의 부친이 하던 '협신전업사'가 있었다.



인제공업사 옆길

1991년 찍은 이 사진은 인제지부농협 건너편에 있는 ‘인제공업사’의 벽을 측량하고 있다. 사진에 나온 사람은 현재 상수도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이성우 소장이고, 인제공업사 옆으로 길을 내기 위해 측량을 하고 있다. 사진에서 측량을 하는 곳까지 인제공업사의 벽이 수용되어 길이 되었다.



합강리 산에서 본 인제읍

위의 사진은 1995년에 합강리 산에서 찍은 사진이다. 왼쪽 멀리 아파트를 짓는 모습이 보인다. 도로는 지금과 같은 4차선이다. 도로 끝에 있는 등근 운동장은 인제고등학교 운동장이다. 그때는 운동장 주위를 따라 둑글게 앉도록 되어 있었다. 사진 오른쪽에 있는 부대의 운동장이 보이는데, 그때도 군부대가 있었다.



인제극장 무대. 백설애 씨 소장

백설애(56인제문화원 근무) 씨가 1964년 2월25일에 인제극장에서 오르간을 연주하는 모습이다. 그때 남초등학교 3학년이던 백설애 씨는 당당히 ‘군관민 친선 콩쿨대회’에 찬조출연을 했다. 그때는 ‘군관민’ 콩쿨대회가 가끔 열렸다고 한다. 백설애 씨는 지금의 대한사진관 자리에 있었던 에덴사진관 주인아저씨에게 오르간을 배웠단다. 사진을 보면, 연주를 하는데 한쪽에서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 모습이 이채롭다.



10 · 3-23 14

군청 앞 도로

1976년에 인제지부농협 건너편에서 찍은 사진이다. 사진의 주인공은 백설애 씨의 동생인 백정흠 씨다. 초등학교 3학년 때에 아침에 학교에 가려다가 찍은 사진이다. 백정흠 씨는 현재 여주에서 목회는 하는 목사다. 도로포장을 하는 공사가 진행 중인 길 저 멀리에서 검정교복을 입은 여학생 셋이 걸어온다.



향수식당 주방 모습

1992년에 향수식당 주방에서 주인인 백성기(79) 씨가 국수를 빼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다. 향수식당의 칼국수는 유명한 음식이었다. 밀가루에 메밀과 콩가루를 섞어서 면을 직접 빼기에 맛이 있었고, 멸치를 우려낸 국물맛도 좋았다고 한다. 칼국 수가격을 하도 안 올려서 손님들이 대신 올렸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로 백성기 씨는 인심으로 장사를 했다. 지금도 백성기 씨는 사진에서 보이는 칼국수 빼는 기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 맛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을 테다.

정무교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인제에 내려와서 신문기자를 했고, 「한림성심대학」에서 강의했다. 지금은 <인제인문학당>을 설립해 인문학을 가르치는 중이다.
jamigael@hanmail.net

제2장



기고문

Inje Culture

죽어가는 하천생태계를 되살리자

오정진

6.25의 잣더미 위에 제3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우리도 한 번 잘 살아보자”는 기치 아래 증산과 산업화에 매진한 지 반세기가 됐다. 이제 우리도 한 맷한 가난에서 벗어나 도리어 가난한 나라를 돋는 반열에 오르는 기적을 낳았다.

그러나 이제 한숨 가다듬으며 주위를 돌아보면 환경오염이 말이 아니다. 예전엔 길을 가다 목이 마를 때 어느 개울이나 옆드려 벌컥벌컥 먹어도 좋았던 물이 극심한 오염으로, 그 어느 개울물도 마실 수 없게 되고 말았다.

물! 모든 생명체의 구성성분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물. 만능용매로 각종 영양소를 녹여서 필요한 곳에 공급하고 노폐물을 실어 날라 배설케 하는 물! 이 물의 오염은 온갖 생명체의 생존을 직접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전국에서 가장 청정지역이라고 자랑하는 우리 인제군의 하천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아물대는 물벌레부터 각종 물고기와 수달에 이르기까지 그 개체수가 줄어가는 정도를 넘어 멸종위기에 놓여 있다.

다행이도 우리는 칠십년 대부터 내무부가 치산녹화정책을 관장해 끈질기게 푸른산을 가꾸기에 노력한 결과 어느 고장을 막론하고 짓 푸른 산을 보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유념해야 할 점이 있다. 강과 산의 생태계는 상호 의존적이고 보완적이다. 그런데 어째서 그 짓 푸른 산 사이를 흐르는 하천의 생명체들은 멸종되어 가고 있는가 말이다.

산이 헐벗었던 70년대에는 가로리 군축교에서 강을 내려다 보면 피라미, 갈겨니, 끄리, 누치 등의 무리가 까맣게 오르내렸고, 전국에서 낚시꾼들이 몰려와 피서 겸 낚시를 즐겼는데 지금은 낚시꾼을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물고기의 씨가 말라가고 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아귀가 맞지 않는 현상이 일어날까. 우리는 그 원인을 반드시 규명해서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지 않으면 죽어가는 하천을 살려낼 수가 없다. 그 가운데 불합리한 건축방식이 큰 원인이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추위와 바람을 막아주는 등지가 있어야 한다. 사람도 매한가지다. 그래서 사람은 양지바른 곳에 집을 짓고 깃들며 살아가게 마련이라 우리 민족은 수천 년 동안 흙으로 집을 짓고 살아왔다. 그 산자락에서 나무를 베어 기둥을 세우고, 외줄을 엮어 진흙을 개어 벌라 벽을 만들고, 지붕을 덮어 초가삼간에서 삼대가 살아왔다. 어쩌다 살던 집을 떠나 이사를 가면 그 집은 무너져 모두 흙으로 돌아가면 그만이었다.

그렇게 수천 년을 이어오던 자연친화적 주택문화가 산업화 이후 도시와 농촌의 구별 없이 불과 50년 사이에 전부 시멘트 콘크리트 집으로 바뀌었다. 그것도 최소 30평, 아주 널찍하게-.

시멘트집, 그 재료를 한 번 따져보면 크게 시멘트가루와 모래에 자갈 아닌가. 어느 하천을 막론하고 모래와 자갈을 모조리 파다가 시멘트가루로 이겨 붙여 지은 집이 시멘트집이다. 수천 년 이어오던 흙집이 모래자갈집으로 바뀐 것이다. 이런 지경이라 갈수기인 봄철이면 어느 하천을 막론하고 굴삭기가 들어가 꺼떡거리며 골재를 파낸다. 그 결과 하천이란 하천의 모래와 자갈이 남아나지 않게 됐고, 하천의 골재도 모자라 바다에서 파다가 쓰는 지경이 됐다.

모래와 자갈이 무엇인가?

물의 여과장치요 수많은 물고기의 산란장소며 서식처가 아닌가. 그런데 굴삭기 가 그 서식처를 뒤집으면 하천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번식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러면서까지 농어촌의 살림집을 환경을 망치는 시멘트집으로 지어야 하나?

또 한 집에 둘 아니면 세 식구가 사는 핵가족시대에 삼사십 평의 큰 집을 지어야 만 할까. 우리나라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일본도 열 평 남짓한 집에서 한 세대가 산다고 하지 않는가. 이 지구상에 어느 생명체가 환경을 결단내면서 등지를 턱없이 크게 틀고 사는 부류가 있는가?

지구상의 자원은 무한한 것이 절대 아니다. 꼭 필요한 넓이로 집을 짓돼 단독주택은 흙으로 만들자.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흙집을 아담한 크기로 짓고 살자. 바로 이웃인 흥천에서 전흙벽돌을 생산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농촌주택 만이라도 흙으로 짓는다면 하천의 모래와 자갈을 지금처럼 파내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래서 하천은 하천대로 좀 내버려두자. 흙집을 지어 강도 살리고 건강도 챙기 면 얼마나 좋은가.

‘지구’라는 이 아름다운 초록별이 욕심 많은 ‘인간’ 때문에 지독한 몸살을 앓고 있다. 소비가 미덕인 시대는 가고, 지금은 절제된 생활을 요구하는 시대다.

오정진 전 인제문화원 원장이자 시인이다.

생명순환농업(자연농업)

계신일 (사)한국DMZ평화생명동산 협동사업 부장

생명순환농업이란, 화학농약(농약農藥)이라 함은 아주 좋은 의미의 말인데 이를 현대사회가 별레를 죽이는, 풀을 죽이는 혹은 사람을 죽이는 의미로 만들어 버렸다. 이에 우리는 농약이라는 좋은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 농약과 화학농약으로 구분하여 쓰기로 하겠다), 화학비료 등의 화학자재 대신 유기물과 미생물 등 천연자원을 이용하여 농산물을 물론 생태계의 건강까지도 고려하는 친환경 농업의 일종이다. 기존 농업의 화학자재가 환경을 해친다는 반성 하에 생명순환농업은 이제 농업으로서, 그리고 건강·생태환경·공정이라는 원칙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자연에게서 배우고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과정의 한 연속선 위에 있는 것이다.

자연을 잘 보면 누가 비료나 농약을 주지 않아도 자연법칙에 의해 때가 되면 잎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추운겨울을 나는 일을 반복하며 그 속에서 사람이 살고 동물이 살며 식물이 살아간다. 이러한 자연법칙 속에서 한 인간으로서, 한 개체로서의 겸허함을 받아드리는 것이 생명순환농업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근본자세라 하겠다.

왜 생명농업을 하여야 하는지, 좋은 점이 무엇인지 보자.

1. 자연과 우리에게 좋은 점

① 자연과 함께 건강해지는 삶 : 생명순환농업은 자연과 더불어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철학이자 미래를 준비하는 삶의 형태로, 몸과 생태계, 지구 모두의 건강함을 추구한다.

② 사람과 자연을 잇는 순환의 고리 : 생명순환농업은 생태계 구성원인 녹비식물, 동식물 유래 천연물비료, 천적 등을 적극 활용하여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한다.

③ 공정公正한 공존共存 : 본디 사람을 모여 살게 하고 자연과 나누는 문화를 형성하게 했던 농업의 기능을 되살려 공정한 먹을거리의 기회, 자원의 기회를 제공한다.

④ 자연과 미래를 위한 배려 : 생명순환농업을 통해 건강하게 유지된 생태계는 자연과 다음 세대를 위한 배려를 실천할 수 있다.

2. 우리의 생활에 좋은 점

① 맛있는 생활 : 생명순환농산물은 건강한 식생활과 식문화를 영위할 수 있다.

② 즐기는 생활 : 생명순환농업은 그 자체로 생산을 위한 수단이 아닌, 자연과 함께 어울리는 쉽고 오락을 제공하며, 자연이 우리와 우리 다음세대에게까지 이어져 나간다.

③ 나누는 생활 : 생명순환농업은 건강한 먹거리와 깨끗한 자연을 유지함으로서 나눔을 실천하는 기회로도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이제부터는 하나의 예로서 왜 생명순환농업을 하여야 하는지 이야기 해보자.

1) 진딧물

관행농업과 생명순환농업의 시각차를 극명하게 보이는 예로 진딧물을 살펴보자.

자연에서 보면 인간인 나나 진딧물이나 비슷한 위치에 있다. 어떻게 보면 자연에서는 뭐든지 먹고 버리는 먹이사슬의 최상층에 있는 나보다는 최하층에 있는 진딧물이 더욱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다. 현재의 관행농업은 진딧물을 잡기위해 아니 죽이기 위해 여러 농약을 식물에 뿌린다.

화학농약: 칼립소, 모스피란, 오신, 시나위, 지존, 강탄, 만장일치 등(많기도 하다.)

생명순환농업 : 죽이는 방식이 아닌 적당한 풀과 공간과 유기농현미발효식초를 이용하여 원래의 자리와 역할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즉 진딧물은 웃기게도 생명을 다루고 키워나감으로 삶을 영위하여 나가는 농사꾼에게 죽여야 하는 대상인 것이다. 위의 화학약제들을 간접적으로 마셔가면서 죽여야 하는 대상이다.

관행농업에서 모든 것은 너가 죽거나 내가 죽어야 하는 치열한 각축장인 것이다. 멸시의 대상이며, 중오의 대상이며, 원수지간처럼 보인다.

2) 진딧물(한국 10과 350종)

몸길이 2-4밀리미터로 소형이며 몸 빛깔은 다양하다. 초목의 줄기 · 새싹 · 잎에 모여서 살며 식물의 즙액을 뺏아먹으므로 대부분이 해충으로 분류된다. 알로 월동하고 3월 하순-4월 상순에 부화하면 간모가 된다. 이것은 날개가 없는 암컷이며 다 자라면 알을 낳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새끼를 낳는데 새끼들이 자라면 어미와 똑같은 날개 없는 암컷이 된다. 몇 세대를 이렇게 되풀이해 번식하므로 기주식물의 가지가 온통 진딧물로 덮이게 된다. 이러는 동안에 차차 날개돋친 암컷(유시충)이 생겨 분산하게 된다. 또한, 진딧물은 몸을 외부의 적으로부터 방어하는 무기로서 뿔관에서 분비되는 끈끈한 액체를 이용한다. 이 액체를 이용해 포식충의 주둥이를

부자유스럽게 만들어 위기를 면하거나 또는 많은 밀랍가루를 분비해 몸을 보호하는 것도 있다. 진딧물의 먹이는 식물의 즙액이므로 새끼를 낳기 위한 영양분, 즉 단백질이 부족하고 탄수화물은 과다하므로 남는 당분을 배설물로 배출한다. 이 배설물을 먹으려고 작은 개미, 기생벌, 파리 등이 많이 모이게 된다.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위의 예에서 보듯이 진딧물은 식물의 즙액을 빨아먹는데 이들이 농작물에 붙어서 즙액을 빨아먹는지 보면 ① 질소질 비료의 과다사용으로 농작물이 웃자라는 경우 쉬게 말해 농작물이 비만이 되는 경우이다. 질소비료과다로 인한 비만으로 우선 먹을 즙액이 많이 나온다. 당연히 먹이가 있으니 몰린다. 이때는 비만을 해소하고 농작물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게 하여야 한다(발효현미식초를 이용하여 산성체질을 알카리체질로 바꾸어 주고 풀을 적절히 키워 진딧물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② 제초제의 사용으로 풀이 없다. 제초제의 사용으로 진딧물이 햇빛을 피할 공간과 장소가 농작물 밖에는 없으니 진딧물이 어디로 가겠는가? 진딧물은 원래 땅에서 풀 속에서 살아가며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자연법칙이다.

3) 그럼 생명순환농업에서는 진딧물은 어떤 존재인가?

진딧물은 자연법칙에서 보면 진딧물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 ① 질소질비료의 과다사용을 확인하고 대비할 수 있는 피트마스 시험지 같은 벌레이이다.
- ② 당분을 배설물로 배출하는데 이는 토양미생물의 먹이가 되어 다양한 미생물들이 모여들게 되어 유기물을 분해하여 무기질로 이온화시키므로 식물이 이를 이용할 수 있다(식물은 유기물을 먹지 못한다. 무기물을 뿌리로 빨아 드려서 양분으로 이용한다. 그래서 화학비료 N, P, K를 쓰게 되는 것이다.)
- ③ 당분을 먹기 위해 모여든 미생물, 선충 등을 퇴비(유기물)를 분해하여 무기물을

로 바꾸기도 하며 지렁이의 좋은 먹이가 되는 것이다. 지렁이는 미생물이 섞여 있는 미생물을 먹기 위해 흙을 먹는다. 흙을 먹은 지렁이는 흙을 배설하는데 이는 물리적으로는 토양의 입단구조를 형성하며 통기성을 좋게 하여 식물이 잘 자라도록 하여 주며 화학적으로는 지렁이 똥이라는 자연퇴비를 한 마리가 1년에 10킬로그램을 생산하여 토양의 지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지렁이는 지표의 낙엽이나 땅속에 썩은 뿌리, 흙 등을 먹어 잘게 분쇄하고 유기물을 땅속 깊이 운반한다. 또 반대로 땅속의 깊은 광물질 토양을 지표에 운반하는데 이를 농사에 비유하면 땅을 가는 '경운'이다. 즉 지렁이는 살아있는 경운기라 할 수 있다.

지렁이의 이 같은 행태는 흙 자체의 성질을 변화시키는데, 흙이 잘게 부수어져 단입구조가 생성되고 공극이 증대하여 환기·배수성이 나아진다. 토양동물에 있어서는 이 토양 환경의 변화에 의해 더욱 더 깊은 곳까지 서식 공간이 증가하고 또 미생물의 활성이 높아진다. 이 상호작용·상승효과에 의해 여기에 생육하는 식물 혹은 농작물의 생육이 촉진되는 토양개량 효과를 가져온다.

일반적으로 하등동물의 소화·흡수되는 비율은 음식 섭취량의 약 20퍼센트 정도다. 나머지 80퍼센트는 체외로 배출되는데 흙을 먹는 지렁이에서는 소화율은 더욱 더 나쁘고 총량적으로는 대부분 줄지 않고 배출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원대 권오길 생물학부 교수에 따르면 지렁이 큰 놈 한마리가 1년에 먹고 배설하는 흙의 양은 약 10킬로그램, 따라서 밭에 지렁이가 득실거린다면 연중 흙이 몇 번씩이나 갈아 뒤엎어지는 셈이다. 일본에서 한 초지에 대한 조사결과 지렁이의 터널이 1제곱미터 당 1천4백 개가 발견됐다고 한다. 이처럼 지렁이에 의해 조성·유지되는 터널은 통기성을 높여 토양중의 깊은 곳까지 산소를 공급, 지렁이를 비롯해 다른 토양 동물의 서식 공간을 늘리고 미생물의 활성화를 촉진하게 돼 식물에 산소가 직접 공급돼 뿌리의 신장을 돋는 역할을 한다.

3. 관행농업

진딧물 > 화학농약, 제초제살포 > 풀 X > 미생물 X > 지렁이 X > 화학비료 > 염류집적 > 환경파괴 > 농약살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거듭하게 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농산물을 먹는다면?

4. 생명순환농업

진딧물 > 밸효현미식초 > 풀 O > 미생물 O > 지렁이 O > 토양개선 > 자연환경 O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거듭하게 되어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농산물을 먹는다면?

5. 닭

닭은 날카로운 부리를 이용하여 식물을 먹음으로 우리에게 알과 고기라는 영양분을 공급하며 닭똥이라는 부산물을 우리에게 주는 자연의 한 구성원이다.

관행농업의 닭은

① 먹고 자고 싸고를 좁은 공간(시멘트 바닥+철망으로 된 틀)에서 이뤄진다.

닭은 땅을 파헤쳐서 벌레를 잡고 모래목욕을 함으로서 스트레스를 푼다. 이러한 움직임을 할 수 없는 구조가 현재의 닭을 키우는 공간이다.

② 좁은 공간에서 위의 순환이 이루어지다 보니 스트레스가 많아 병이 많다.

닭은 물론 자연생태계에 존재하는 동물들은 자연법칙에 의한 질서를 존중하고 유지하는 것을 절대적인 가치로 여긴다. 그래서 횃대를 경사지게 설치하여 서열별로 앓고 생활한다.

인간사회와 비교해 보면 횡금만능주의로 인해 어르신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에게 충고하고 하는 질서들이 많이 훼손되었다.

③ 병이 많다 보니 사료에는 항상 많은 종류의 항생제가 투입되고 이것도 부족

하여 구입한 사료에 더하여 항생제를 투입한다(그래서 죽은 닭은 잘 썩지 않는다는 전설이 있다).

④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닭에서 나오는 부산물(똥)퇴비가 되어 밭으로 간다. 이러한 퇴비로 농산물을?

이러한 악순환이 이뤄지고 여기에 더하여 가루사료를 잘 먹이기 위해 일부에서는 부리를 자르는 잔인한 방법이 동원되기도 한다.

역시 닭도 진딧물과 비슷하게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만다. 이를 먹는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만 해도 끔직하다. 뿐만 아니라 닭을 하나의 자연구성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경제적 가치로만 바라본다. 특히 알닭의 경우 생육 후반기로 가면 밤에도 전등을 켜놓아 닭이 낮과 밤을 구분하지 못하도록 하여 계속해서 알을 낳게 하는 대목에서는 아연해 질 수밖에 없다.

1) 생명순환농업에서의 닭은

① 먹고 자고 싸고를 넓은 공간(흙바닥+볏짚+모래)에서 이뤄지며 항상 풀을 공급한다.

풀을 많이 공급하면 이를 소화시키기 위해 장이 튼튼하여 지고 길어진다. 이는 부산물(닭똥)이 냄새가 적은 원인이기도 하다. 또한 풀에 있는 미네랄과 미량요소 등을 섭취하게 되므로 닭은 건강해지는 것이다.

② 넓은 공간에서 위의 순환이 이루어지다 보니 환경도 마음껏 치고 스트레스가 적다. 흙바닥으로 이뤄진 공간에서 땅도 파헤치고 별레를 잡기 위해 항상 몸을 부지런히 움직이므로 닭이 건강해지는 원인이기도 하다.

③ 스트레스가 없거나 적다 보니 닭이 항상 건강하다.

④ 이렇게 건강한 닭에서 나오는 부산물(똥)퇴비가 되어 밭으로 간다. 이것이 진

딧물에서 경우 같이 미생물과 연결되어 좋은 선순환 구조가 또 이뤄진다. 우리가 이것을 먹는다니 생각만 해도 행복하다.

생명순환농업 닭의 경우 밤에 쉬고 낮에 활동하며 알을 스스로 부화하여 키우도록 유도하여 자연법칙의 질서를 존중하고 따른다.

위와 같이 조금만 시각을 바꾸면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은 작은 한 부분에서 출발한다. 생명순환농업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더불어 생명순환농업은 풀을 적으로 죽이는 상태로 여기지 않는다.

제초제를 뿌리거나 없애는 방법으로 제거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을 공존을 모색 한다. 그 곳에 난 것을 그 곳으로 돌려주는 순환적 방법으로 이용한다.

사람들은 병충이 농작물에 붙어 해를 입히면 서둘러 화학농약을 뿌려 제거해 버리려 한다. 사람에게 병충은 용서할 수 없는 적인 것이다. 그러나 병충해란 이상 변식한 미생물과 벌레가 농작물을 먹어 치우는 행위 이상이 아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병충해가 되지만 미생물이나 벌레입장에서 보면 종족생존이다. 자연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에 의해 생태계의 먹이사슬이 파괴되어 일어난 불행한 사태로, 죄는 미생물이나 벌레에게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는 경우가 많다.

풀도 그렇고, 미생물이나 벌레도 인간의 입장은 벗어나 대자연의 입장에서 보자면 함께 살아온 자연의 구성원인 것이다. 풀이 없는 인간은 상상할 수 없고 미생물이나 벌레가 없다면 우리의 지구가 인간이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그래서 인류는 그들과 공생의 길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자연을 후손에게 물려준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 아끼고 적게 먹고 겸손한 삶을 가꾸어 나가고 항상 자연에 감사하고 질서있는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생명순환농업의 첫 걸음일 것이다. 자연을 이용하고 자연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제3장



향토문예

Inje Culture

1. 제10회 환경부장관상패 전국여성환경백일장
2. 제 9회 환경부장관상패 전국여성환경백일장
3. 향토문예

제10회 환경부장관상품

전국여성환경백일장

입상작품



주최 : 내린천예술인회 · 강원일보사

후원 : 환경부 · 인제군 · 인제문화원 · 시현실

자연은 '삶'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자연의 일부임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우리 땅, 우리 강산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들어
있는지 이미 뼈아프게
절감했습니다.

이제 환경만이 희망입니다!
백두대간의 허리이며
한반도의 허파인 내린천은
우리에게 마지막 남아 있는 생태계의 보고(寶庫)입니다.
〈환경부장관상패 전국여성환경백일장〉은
지난 97년 내린천댐 반대 운동에서 보여 준
인제군민의 성숙한 환경의식을 높이 기리고
문화활동을 통하여 우리의 소중한 자연과 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예술, 그리고
가슴 따듯한 사람들의 만남의 자리인
본 행사를 통하여 사람과 자연은 하나이며
희망이라는 감동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11년 11월

내린천예술인회 회장 문부자



심사위원장 최인홍

(시인·인제문화예술단체연합회 회장)

지구환경 오염에서 오는 문제점은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책을 수립하게 만들고 있다. 저탄소녹색성장을 부르짖으며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도 지구환경의 미래 보장을 위한 노력의 하나이다. 그러나 아무리 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책을 수립한다고 하더라도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허사일 뿐이다.

내린천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내린천을 지켜나가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다. 1997년 가을에 내린천의 본 모습을 지켜내기 위한 열기와 그 실천이 있었기에 지금도 내린천은 변함없이 흐르고 있다. 내린천은 앞으로도 영원히 흘러야 하고 이를 지켜내기 위해 우리의 쉼 없는 실천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내린천을 지켜내기 위한 실천의 일환으로 내린천예술인회는 전국여성환경백일장을 열고 있다. 올해로 열 번째를 맞이하였다.

예심을 거쳐 올라온 작품들을 놓고, 환경에 대한 인식과 실천의지가 보이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검토하기로 하였다. 다행스럽게도 심사위원 전원이 뽑은 고미령씨의 산문 「도랑의 지렁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지렁이를 키우며 그 역할을 확인하는 환경학습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학습을 진행하면서 징그럽기만 하던 지렁이도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가족 같은 개체임을 깨닫는 모습이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오는 작품이다. 심사위원 모두 간결한 문체로 환경학습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 읽는이의 가슴에 와 닿게 표현하였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 외의 수상작들도 여성의 시선에서 다양하게 환경을 표현하였다는 평이었다.

글 속에 나타난 여성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들이 주변 환경은 물론 지구환경의 미래를 밝게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수상하신 모든 분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

■ 본심 심사위원 : 최인홍(시인)

최병현(시인)

원탁희(시인, 시현실 발행인)

문부자(수필가, 내린천예술인회 회장)

제10회 환경부장관상패 전국여성환경백일장 입상자 명단

상급	상 격	부문	성 명	작품명
대상	환경부장관상	산문	고미령	도량의 지령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장원	강원도지사	산문	김영옥	유년의 뜰
		운문	엄혜주	곶감
차상	강원일보사장	산문	원영애	냉장고 버려지다
		운문	심금련	황태
			김진숙	유년의 뜰
차하	강원일보사장	산문	박선애	정겹던 그때를 그리며 시작
		운문	신윤라	점봉산
			조은희	보리밭
			손혜자	10미터 안개 속
장려	인제문화원장	운문	정선숙	내린천의 거미와 선녀
			전숙자	숲을 만드는 낭군

대상

도랑의 지렁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고미령

올해 중학교 1학년이 된 딸아이는 어려서부터 유독 곤충과 동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강아지부터 시작해서 진돗개나 가끔 동네 산책길에서 만나는 덩치 큰 허스키, 그리고 시골 할머니 댁에 갔을 때 우연히 손등에 앉은 잠자리나 무당벌레, 여치, 메뚜기를 보아도 놀라기는 커녕, 아주 친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대화도 하고 마냥 행복해 했다. 아이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집에서 뭘가를 키워보려고 궁리를 해보는데, 문제는 맞벌이를 하는 우리 부부와 일찍부터 학교에 가서 학원과 할머니 댁을 거쳐 집으로 돌아오는 아이의 부재시간을 따져보니 아무리 애완동물이라 해도 혼자 두는 시간이 너무 길어 자칫 키우는 문제가 아닌, 방치가 될까봐 그만 포기해버리고 말았다. 딸아이는 강아지가 아니어도 괜찮으니 새끼 고슴도치나 애완용 쥐라도 키워보자며 출라댔다. 하지만 기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애지중지 키웠던 동물들이 도중에 행여 병이 들거나 죽기라도 한다면 아이의 상처 또한 커지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신중하게 몇 날 며칠을 고민하게 되었다.

“예진아, 우리 지렁이 키워볼까?”

“에이... 엄마 징그럽게 지렁이를 어떻게 키워? 안돼!”

어릴적 우리집 앞 하수구 근처 도랑엔 지렁이가 꽤 많았다. 낚시를 하는 아저씨들의 낚시밥 1호인 지렁이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음식물 찌꺼기를 가져다 버리거나, 가끔 도랑에 인분을 봇는 사람도 있어 퀘퀘한 냄새가 나기도했지만, 그 덕분에 유일하게 살아남는 대상이기도 했다. 낚시꾼들이 와서 호미로 도랑의 흙을 tm으하고 걷어내면 그 밑에서 아주 통통하고 뺨간색의 지렁이들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단지 지렁이가 더러운 곳에서 서식하며 낚시를 할 때 물고기의 유인책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오랜 세월이 지나 도시에서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할 때 즈음, 환경공학을 전공하는 아는 선배가 난데없이 ‘지렁이’에 대한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지렁이는 땅속에 살면서 계속하여 움직이는 가운데, 흙에 공기가 잘 통하고 수분 흡수가 잘 되도록 흙을 일구어 주는 역할을 해, 마치 농기계인 경운기처럼 말이야. 또 지렁이의 배설물에는 흙에 좋은 영양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훌륭한 퇴비가 되기도 하지. 또한 잡식성인 지렁이는 음식물 쓰레기는 물론이고 동물의 배설물도 잘 먹고 소화를 시키지. 그러면서 다시 그것을 질소와 칼슘 등 다른 식물들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풍부한 비료로 바꿔내기도 하거든. 이게 바로 훌륭한 최고의 유기농 비료가 되는 셈이지. 많은 사람들이 지렁이를 이용하여 퇴비를 만들면 1년간 음식물 쓰레기의 상당량을 퇴비로 이용할 수 있단다.”

습한 흙 사이에서 징그러운 모습으로 꿈틀거리며 살아가는 지렁이의 위대한 탄생은 아마도 그렇게 시작되었나보다. 지렁이의 잠재적 능력에 대한 소개는 그간 외형적인 모습으로만 단순히 인식해오던 그 이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결혼을 하고 주부가 되다보니 남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 자주 고민을 해왔던 터라, 이것을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렁이를 키우는 관찰상자와 함께 음식물 쓰레기의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적격인 듯 싶었다. 딸아이는 그렇게 난생 처음, 애완동물의 첫 손님으로 ‘지렁이’를 맞이하게 되

었다. 책과 인터넷에서 얻은 지식으로 지렁이가 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고, 지렁이가 좋아하는 음식물 위주로 먹이를 넣어주는 관찰을 시작하게 되었다. 비록 직접 품에 안아보고 즐거움을 느낄 만한 대상은 아니었으나 음식물쓰레기를 거침없이 먹어치우고 흙을 일구어가며 나름대로 옥토를 만들어가는 일을 스스로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지렁이가 대견하게까지 여겨지기도 했다.

딸아이는 매일매일의 지렁이의 수훈과 공적을 신기해하면서도 그 노고를 잊지 않으려는 듯, 관찰일지에 자신만의 생각을 적어내곤 했다.

“지렁이야, 지렁이야... 처음 너네가 우리집에 오게 되었을 때는 너무 징그러운 동물이라 내가 많이 걱정을 했어.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손님이 아니고 내 동생 같아. 나는 언니나 동생이 없지만, 너희가 내 동생하도록 해줄게.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한번 들어볼래? 그냥 지렁이라고 하면 너무 느낌이 안좋잖아. 음.... 너는 ‘호미’이고, 그리고 넌 ‘삽’ 이야. 앞으로 우리 잘 지내보자.”

매일 흙을 잘 갈아주는 역할을 한다 하여 호미와 삽으로 이름까지 지어준 딸아이는, 작은 미물들이 만들어가는 흙의 건강한 변화에 매우 신기해하며 하루하루를 즐거워했다. 그 많은 애완동물들이 있었지만, 높은 경쟁률과 희귀성을 간직하며 우리집에 입성을 한 존재들이 아니던가.... 게다가 없어서는 안 될 훌륭한 역할까지 해주고 있으니, 집안일을 도움은 물론이고 환경문제에도 큰 공로를 세우며, 딸아이에게 교육적 사례까지 되어주고 있어 나또한 흐뭇했다.

지렁이에 대한 추억이 떠올라 찾아간 옛집에는 도량이 사라지고, 대신 콘크리트로 덮여진 건물이 하나 세워져 있었다. 도량을 따라 흐르던 개천도 동네 주민을 위한 산책로로 덮여져 버렸다. 세상은 편리해지고, 이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신기하고 색다른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며 새롭게 나타나고 있지만, 나는 아직도 그 어둡고 축축한 땅속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자신의 분비물조차도 건강한 옥토를 만들어내는 데 여념이 없었던 ‘지렁이’의 삶에 대해 경이로움을 느끼게

된다. 환경을 아끼고 지키는 일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약을 쓰지 않은 논밭에는 아직도 논우렁이 살고 있고, 자연의 흐름을 따라 자생하며 살아남은 열매나 풀들은 비록 못생기고 유통불통한 모양새로 있지만, 인간의 몸에 섭취되었을 때는 건강을 보장받을 수 있는 좋은 유기농 재료가 된다. 비록 작은 미물을 통한 시도 일 수 있겠으나, 지렁이와 같은 사례로 우리의 생활속에서, 우리 여성들이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주위를 돌아본다면, 환경도 살리면서 건강한 흙의 수명을 더 연장시킬 수 있지 않을까.

비록 도랑의 지렁이는 사라졌지만, 나는 오늘도 서울 도심의 한 벨라 베란다에 서 다시 그 옛날의 지렁이와 해후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

고미령 1973년 군산 출생, 한양여대 영어과 졸업, 한양대학교 TESOL과정 졸업
2006 서울 여성백일장 차상
2007 전국 어머니 편지쓰기 대회 입상, 박인환 추모 백일장 장려
2011 한국문인 소월백일장 준장원, 32회 근로자 문화예술제 문학부문, 수필 은상
환경부장관상패 전국여성환경백일장 대상 수상
현, 한양대 부속병원 이비인후과 청각검사실 근무

유년의 뜰

김영옥

대청에 누우면 물빛처럼 파란 하늘이 처마 끝선을 물들이던 집. 성북구 삼양동 시장의 중심부를 관통해서 언덕을 오르다 보면 중턱에 자리한 집이 내가 어린 시절을 모두 보낸 아름다운 집이었다. 60년대 초반 내가 어린 아기였을 무렵에 아버지께서 사들인 땅 위에 터를 다지고 일꾼들을 시켜 직접 지으셨다. 작은 개울을 앞에 놓고 그 옆에 높은 축대를 쌓아올린 위에 정남향으로 지어졌으니 하루 종일 햇빛이 쏟아졌다. 외형은 양옥이었으나 내부 구조는 한옥의 형태로 하늘이 훤히 내다보이는 대청을 중심으로 창호지를 바른 방문들이 은은하게 배치되어 있었다. 직사각형의 넓은 땅 위에 사방으로 담장을 둘러 친 다음 마당 한 가운데에 길게 집이 들어앉은 모양새라 집안을 모두 제 마음대로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사통팔달이었다.

아침나절 엄마와 할머니의 뒤꽁무니를 쫓아 이리저리 마당을 뛰놀다 보면 햇빛이 방문 위까지 깊숙이 들었다. 그 별 속에 앉아 뭉글면 어느새 나른한 졸음이 쏟아졌다. 그럴 때 대청마루 위에 벌렁 누우면 나도 몰래 스르르 눈꺼풀이 덮였다. 앞마당 축대 아래 흐르던 작은 개울물 소리가 자장가처럼 한 여름 더위를 말끔히 셧어

주곤 했다. 세상모르게 단잠에 빠졌다가 홀연히 눈을 뜨고 일어나 방문들을 밀면 때때로 가족들이 아무도 없고 텅 비어 있었다. 이내 누군가를 찾아 맷돌을 밟고 마당에 내려서면 보이는 것이라곤 단지 온통 나를 휘감아 올릴 것처럼 펼쳐진 높고 높은 하늘 빛 뿐이었다.

앞마당을 건너 까치발을 한껏 돋우어 담장위에 겨우겨우 눈을 걸치면 어느 것 하나 막힘없이 탁 트인 시야 아래로 점점이 물러나는 이웃들의 낮은 지붕들만 넓게 펼쳐졌다. 순자네 마당이 절반쯤 보이고 그 윗집 기철이네 할머니가 꼬부랑 허리를 잔뜩 낮추어 마당을 쓰는 모습이라도 눈에 띄면, 어린 마음에도 웬일인지 쓸쓸 하던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아 안심이 되었다.

집의 왼쪽 맨 앞의 방이 할머니가 거처하시던 곳으로 넓은 창문이 환하게 달려 있어 늦은 오후까지 햇빛이 흘러들었다. 그 모퉁이를 돌면 무릎높이의 장독대 위에 항아리가 서니 줄 빼곡히 서 있었다. 거기서 된장 밑에 박아두었던 깻잎이나 무장아찌 같은 밑반찬을 꺼내고 있는 엄마를 발견하면, 낮잠에서 혼자 깨어나 허전하던 마음에 화들짝 반가움이 일어 치마꼬리를 잡고 매달렸다.

해가 중천으로 솟아 봉숭아꽃이 흐드러진 장독대 옆을 오르락내리락 부지런을 떨다가 그마저 시들해지면 뒷마당을 지키던 누린 강아지, ‘메리’를 불러내어 마당을 몇 차례씩 돌곤 했다. 이웃으로 마실 나갔던 할머니가 돌아오시고 학교 갔던 오빠, 언니들이 하나 둘 차례로 대문을 들어서면 그때부터 익자한 밥상이 펼쳐졌다. 오전 내내 혼자 있던 나는 활기에 가득 차서 누군가에 처질 새라 부지런히 밥을 먹고 뒤를 따라 나섰다.

마당가에 서서 우측으로 고개를 살짝 돌리면 저 멀리 앞동산 언덕이 보였다. 마치 다리를 뻗고 누워있는 소의 잔등처럼 한 쪽 끝만 편안하게 드러나 있었다. 우리 남매들은 틈만 나면 그 언덕위로 달려가서 놀았다. 굴곡이 완만한 지형에 새빨간 산딸기가 작은 꽃무리처럼 지천으로 돋아나던 곳이었다. 정신없이 신나게 놀다보면 가시에 긁힌 자국들이 팔다리 여기저기에 생채기를 내었다.

그러나 그 산딸기들은 붉은 빛으로 익어가기가 무섭게 그 너머 ‘갱생원’ 아이들의 차지가 되었다. 평평한 땅이 제법 넓게 펼쳐지다가 그 위쪽에 있는 둔덕에 올라 작은 숲을 지나면 산그늘 아래 고아들을 수용하던 갱생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참을 쏘다니다 보면 어느새 갱생원 아이들이 서넛쯤은 섞여 있었다. 그 중 몇몇 아이들은 오빠, 언니들과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로 우리는 가끔 그 애들을 따라 갱생원에 가 보곤 했다.

일자형으로 길게 지어진 하얀 건물은 군더더기 없는 썰렁한 모양새로 나무를 짜 맞춘 문들만 여기저기 많이 달려 있었다. 그 문을 열면 방마다 여러 명의 아이들이 헛기 가신 얼굴에 표정 없는 메마른 눈으로 우리들을 바라보곤 했다. 얼마간 시간을 보내다 집에 오려고 문을 나서면 아이들이 따라 나와 그 하얀 벽에 등을 대고 줄줄이 섰다. 그리고는 주머니에 손을 꽂고 발등을 내려다보거나 발끝으로 맥없이 땅을 헤집으며 안 보는 척 슬쩍슬쩍 물기어린 눈길을 던졌다. 아마도 내가 어렴풋 한 슬픔을 깨달아 간 것은 그 애들과 마주치던 그런 순간순간이 아니었나 싶다. 제법 나이 든 몇몇 아이들은 아주 가끔씩, 조그만 양은 그릇에 산딸기를 채워 가지고 우리 집으로 언니나 오빠를 찾아왔다. 그때마다 엄마는 국수를 삶아주거나 누룽지를 봉투 가득 담아 돌아가는 길에 그들 손에 들려주곤 하셨다.

여름더위가 슬슬 끓어올라 가만히 있어도 땀이 송송 흐를 때쯤이면 종종 온 가족이 먹을 것을 이고지고 피서를 갔다. 우리 집 위쪽으로 언덕을 한참 올라 고개를 하나 넘어가면 수유리와 이어지고 삼각산에 자리한 화계사를 거쳐 북한산 자락으로 통하는 넓은 산길이 나타났다. 그 산길을 타고 골짜기로 들어서면 ‘빨랫골’이라는 유명한 계곡이 있었다. 그 당시는 집안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물이 흔치 않았다. 그러니 아낙네들이 삼삼오오 그곳으로 모여들어 빨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연스레 붙여진 이름이었다. 청첩이 우거진 신중을 통하여 내려오는 넓은 계곡의 물은 맑고 투명해서 더할 나위 없이 차고 시원했다. 아래쪽에서 빨래하는 아낙네들을 지나쳐 계곡의 중간쯤을 오르다가 마침내 웃통을 벗어 제친 아버지가 깊은 물

에 몸을 담그면 우리는 그 주위로 뛰어들어 신나게 물장구를 쳐대며 하루해를 보내곤 했다.

그러다가 본격적인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우리 남매들은 너나없이 그 계곡으로 우르르 몰려가 푸득 푸득 물장구를 치다가 돌멩이들을 뒤집고 작은 물고기나 가재를 잡아 올렸다. 가끔씩은 말아 올린 꼬리 안에 통통한 알을 기득 붙인 가재들이 잡히기도 했다. 우리들은 그 모습이 신기해서 별이 짹쨍한 바위 위에 둘러앉아 요리조리 뜯어보며 공연히 소리들을 지르고 야단법석이었다. 그것이 시들하면 숲으로 들어가 조롱조롱 매달린 버찌를 잔뜩 따서 입 주위가 새까맣게 물들도록 먹으며 갈증을 풀었다.

저녁 해가 뉘엿뉘엿 가라앉으면 물가의 모래들 사이에서 알맞은 크기의 공깃돌을 찾아내어 한 주먹씩 주머니에 담아 지친 몸을 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는 마당 한구석 쳐마 밑에 공깃돌을 잔뜩 부어 놨다. 비가 오는 심심한 날이면 동네 아이들을 서 너 명씩 불러다가 지겨울 때까지 돌멩이를 흘뿌리며 놀이에 열중했다. 작은 돌멩이들이 손 안에서 자글자글 부딪힐 때의 경쾌한 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선명히 남아있다. 내가 중학교에 입학하고 한 학기쯤 지나서 돈암동 근처로 이사를 했는데 아마도 그 전까지가 내 인생의 가장 평화로운 시기였음을 가끔 회상해 보곤 한다.

꽃감

엄혜주

황금 알 전등이
수 만개 켜진 듯
거꾸로 매달려 익어간다
허물 한 겹 벗어 놓고

바람이 매만지고 간 나무 잎
빨간 립스틱 바른
여인의 입술처럼 물든 잎 새
가지마다 겨드랑이 사이로

검푸른 명이 들고
까치밥 하나 남겨두며
감나무를 장대질 하던 아버지
가을을 따고 있다

모빌처럼 원을 그리며
돌고 있는
숨 몇은 연두 꼭지.

냉장고 버려지다

원영애

봄이 오면 산나물을 뜯기 위하여 산을 오른다.

따듯한 봄볕을 등으로 받으며 나물 넝을 주머니를 옆에 차고 오르는 산 길, 따스히
내려앉는 햇살아래 뾰족한 푸른 새순이 흙을 들치고 세상 밖으로 얼굴을 내민다.

봄날의 아름다운 풍경, 친구들과 몇몇이 들을 지나 산으로 오르는 길옆, 도대체
이 높은 곳 까지 냉장고를 가져와 골창에 누군가가 버리고 갔다.

곳곳에 녹이 쓸고 손때 묻은 자국들, 수많은 날 식구들의 사랑으로 열고 닫으며
음식들을 보관해주던 보물 아니던가. 일용한 음식물의 그 상하기를 막아 가족의
건강을 챙겨주던 귀한창고, 이젠 그 하기를 다 했다고 그 기능이 저하 됐다고, 버려
선 아니 될 청정지역까지 가져와 버리고 갔으니 마치 버려진 노인 같은 생각이 머
리를 스친다.

얼마 전 실버타운에서 보았던 할머니가 생각난다.

몸빼와 티셔츠 한 장 달랑 입고 추운 듯 그러나 쓸쓸히 웃는 얼굴로 우릴 쳐다
보던 할머니, “어떻게 여길 오셨어요?” 물어보았더니 아들이 갑자기 놀러가자고

차에 올라타라 해서 탓 더니 강원도까지 와 거리에 버리고 사라졌다고 한다.

“아들은 뭘 해요”

“아들들은 몇 이어요”

이들 삼형제란다.

“어디 사셨어요? 라는 말엔 대답이 없다.

아들을 위해 곤란한 말은 전혀 하지 않는다.

그래도 어머니는 아들들 앞에 욕이 돌아 갈까봐 모든 것을 합구 하고 있다.

삼형제의 집을 전전하다 어느 날 막내의 집에서 막내 차에 태워져 버려진 것이다.

막내를 키우며 얼마나 어렵고 물고 뜯으며 귀여워했을까.

어느 자식인들 이뻐하지 않았겠냐만 그 이쁜 막내가 자기 집에 와 있는 동안 집 사람사이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으면 이렇게 버렸을까. 막내만의 마음은 아닐 것이다. 삼형제의 집을 전전 하는 동안 서로 모신다고 삼형제 간에 싸움도 많았을 것이고 삼형제 집을 전전하는 동안 형제간의 고통도 부부 간의 싸움도 많았으리라, 막내아들이 총자루를 메고 그런 짓을 했을 것이다.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버려야 했던 막내의 마음도 아마 아픔이 컷을 것이라 생각이 듈다.

이런 세상에 이 일을 자식들에게만 나쁘다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세상의 어머니들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살면서 살아오면서 자식 며느리한테 심어준 사랑이 얼마나 있나,

잘못된 짓은 하지 않았나, 모든 어머니들은 어른 대접만 받으려고 고집스런 일은 하지 않았나, 사랑이 사랑을 낳는다고 감동으로 심어준 사랑은 감동으로 되돌아 오는 것이다.

자식들한테 이곳저곳 다니며 말질은 하지 않았나, 며느리 사이에서 말 잘못해

싸움하게 하지 않았나, 내가 뿐만 씨앗을 내가 거둬들이는 법인데 한쪽의 말만 들여다본다고 누가 잘못했다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래물이 맑은 속담도 있다. 자신은 윗분에게 잘못하여 죄를 받는 것은 아닐까. 갈등은 사소한 일에서 일어나는 법 베룬 만큼 주고받는 인과응보, 마음에 작은 감정하나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면 어른대접 못 받는 세상이다. 그렇다고 버려진 냉장고 신세가 되어서야... 잘못했다고 버리고, 맘에 안 든다고 버리고, 밉다고 버려지는, 아무데나 버려지는 냉장고와 노인이 뭐가 다를까.

골창에 버려진 냉장고, 바람소리 따라 슬픈 노래 부르며 그 슬픔위에 비가 내리는 날은 금간 자리마다 녹을 피워 붉은 눈물을 흘린다. 보름달 뜨는 밤이면 그리운 집 생각, 아이들 웃음소리, 문짝에 매달려 맛있는 것 꺼내 먹느라 쥐방울 드나들 듯 들락거리던 손자들이 그립다,

재산 있을 땐 가진 아양 다 떨며 눈치 보며 드나들던 자식들, 어느 하나 귀하고 미운데 없었건만 버려진 냉장고처럼 녹슬어가는 몸엔 아픔과 서러움이 밀려든다. 운명 다 하기를 버려진 냉장고와 다름없는 신세, 이젠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집안일로 다가온 일들이다. 늙도록 식당 일 하여 돈벌어주고 이젠 자기아이들하고 오순도순 살고 싶다고 노인 된 시어른 실탄 한다.

노인들 보기 싫다, 몸이 아프다.

이유가 하나 둘이 아니다. 이것이 현대판 고려장이 아니고 무엇일까. 아름다운 산천에 냉장고처럼 버려지는 노인들, 언제고 우리도 그렇게 늙어 갈 것인데 이 아름다운 산천에 자연 보호가 되어야 할 골창에 녹물 되어 흘러가는 눈물은 없어져야 겠다.

황 태

심금련

낡은 목선이 아버지를 깨우는 새벽
소금기로 덧칠한 270문수의 고무신이
아버지를 따라 12월의 시린 바다를 열고 있다

그 바다에 가면
푸른 비린내 가득한 너의 날개 짓마다
고향 냄새 켜켜이 쌓여만 가고

난데없는 그물질에
날개 잊은 비린내
휑한 눈으로 슬프게 울고 있다.

칼바람 부는 1월의 용대리에 가면
알몸으로 보시하는 너의 기도소리
날마다 백답사 풍경을 울리고

아우슈비츠의 수용소 사람들처럼
몸수색 끝낸 너는 속이 다 빈 지친 몸으로
4월의 햅살가스를 기다리고 있다.

셋바람이 만들어낸 소주 한잔에
너를 두드려 대던 아버지의 불협화음
이젠 너만 닮은 미라로 남아 고향을 지킨다.

유년의 뜰

김진숙

꽃잎 찢어 손톱 꽃물들이던 밤
꽃물 샐까
달빛 한 껌풀로 칭칭 동여맨 손가락
첫 눈 오는 날
말간 손톱 끝이 저려온다

정겹던 그때를 그리며 시작

박선애

‘탁탁탁’ 둔탁한 망치 소리가 한밤의 정막을 깬다.

동그랗고 매끄럽게 인형머리의 뒤통수를 다듬기 위해 조그만 망치로 쉴새없이 두들기기 때문이다.

처서가 지나 무더위가 가신 요즘 다시 춘닭회에서 닥종이 인형을 만드는 작업을 하기로 했다. 내가 닥종이 인형을 처음 접한건 2년전 둘째 아이까지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서 무언가 배우고픈 열망이 굴뚝 같을때 서울에서 선생님이 초빙되어 강좌를 시작한다는 얘길 듣고 나가기 시작하면서 부터였다. 처음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따라만 했었는데 수업이 계속 진행되면서 나만의 개성을 띤 작품도 만들면서 점점 매료되어, 2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회원으로 있으며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알고 보면 이제는 여기에서 배출된 유명한 예술가들도 있을 뿐더러 많은 예술인 동호회원들이 다양하게 활동하며 활성화 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어 예술의 고장이기에도 손색이 없다.

우리 춘닭회 또한 하늘내린 종합예술제에 공동 작품인 “빙어축제”로 작품을 만들어 참가하는 등등 앞으로 계속 작업해 나갈 계획이다. 닥종이 인형은 전통 한지

로 한 장 한 장 붙여 만들기에 작가의 정성이 가득 들어가며 완성품은 수수하고 투박하나 부드러운 매력이 있어 옛날 우리네 모습같고 정감이 넘쳐흐른다. 그래 이번엔 가족이란 주제로 테마를 정해서 사진속의 장면과 같이 연출하여 회원들 각자 만들어 보기로 했다.

난 어떤 사진의 모습을 택할까 고민하며 겉표지가 후들해진 앨범의 겉장을 넘기니 투명 비닐막에 끼여 있는 옛 사진들이 죄악 펼쳐진다. 낡아서 빛 바랜 사진들이 낯설긴 하지만 그 사절이 다시 떠오르는 듯하여 입가에 미소가 머금는다.

아주 어렸을 적 사진들은 흑백사진들이고 초등학교부터는 요즘과 차이 있는 촌스런 칼라색의 사진이 시작되었다.

흰색과 검은색, 단조롭지만 더욱 또렷해 보이는 형체를 갖게하는 흑백의 조화.... 색감은 느낄 수 없지만 웬지 가슴이 먹먹해지며 그 시절이 그리워진다. 전에 tv에서도 방송했었던 “그때 그 시절을 아십니까”라는 프로가 늦은 밤 시간에 편성돼 방영한 적이 있다.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해서, 어릴 적 기억날만한 일들까지 공감이 되고 정감 있어서 재미있게 시청했었다. 시청률이 나쁘지 않았었는지 한동안 길게 방송했었다. 옛 기억을 추억하고픈 사람의 마음은 비슷비슷 한가보다.

계속 이것저것 뒤적이다 앨범 속에서 손바닥만한 크기의 흑백 가족사진이 눈에 띄었다. 기름발라 올빼한 젊은 아버지와 무표정의 엄마, 훈한 얼굴의 큰언니. 새침작은언니, 큰머리의 셋째인 오빠. 세살박이 얘기 이렇게 단정히 앉아서 찍은 다복한 모습의 사진이다.

지금 부모님은 안계시고 형제들도 각자 가정을 꾸려 살고 있는데, 이 순간만큼은 다시 세살박이 얘기가 되어 응석쟁이 같은 시절을 잠깐이나마 그려본다. 흑백 시절을 겪은 사람들 대부분은 불편함을 갖고 고생스러운 생활고을 겪었지만 그땐 천진난만함과 때 묻지 않은 순수함이 있었고, 주변 자연 또한 훼손되지 않은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무안함을 제공하여 몸과 마음을 풍성하게 해주었다.

그래서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과 그 때 얘기를 나누면 “맞아 맞아” 맞짱구 치며

회상하고 추억되어 지는 게 아닌가 싶다. 각박하고 땁끅하며 황폐화 되가는 요즘 현대사회에서 무조건 눈앞에 개인적인 이익만을 앞세운 개발과 발전으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걸 인식하고는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자연주의가 대두되고 있고 옛것을 그리워하는 복고주의도 대세다. 유행은 들고 돈다. 세상사 이치도 마찬가지..

너무나 풍족해서 남에 대한 배려도 이해심도 없고 개인주의와 이기심으로 꽉차 한때 순간 분별력을 잃은 적도 있었지만, 다시 인간 본연의 따뜻한 마음을 갖고 나눔의 삶을 실천하며 자연과 더불어 공존해야 한다는 걸 많이 공감하고 있으며 부족했던 시대를 그리워하고 청정자연으로 복구 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으니 시간이 걸리겠지만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거라 믿는다.

오늘도 나를 비롯한 알뜰주부들은 환경지킴이가 되어 집에서 나온 쓰레기들의 절감을 위해 철저하게 분리하여 배출하고 사용가능한 것들은 주변 사람들과 교환하여 재활용을 하며 몸소 실천하고 있다. 조금이나마 오염을 줄이기에 기여하고 싶은 맘으로 말이다.

없음으로 인해 모두에게 힘든 때였으나 주변과 어울어져 해맑음이 가득했던 시절을 추억 할 수 있는 나는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계속해서 앨범을 넘기자 눈에 들어온 건 우리집 보물1호인 아이들의 힘박웃음 꽂핀 모습이 담긴 사진이다.

닥종이 인형은 풀메김을 한 거라 바짝 말려야 하기 때문에 완성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린다. 그래 이번엔 내 시간 내기가 여의치 않아 두개의 인형을 만들려고 했는데 딱 들어맞아 이사진을 모델로 하고 제목은 “남매”로 정했다.

다시 하얀 한지에 붓으로 풀을 골고루 펴 빌라서 흡씬 두들긴 미완성 머리와 얼굴에 덧바르고 붙이기를 여러 번... 후다닥 완성된 몸체의 인형작품을 뿌듯하게 쳐다보며 흐뭇해하는 내 마음을 미리 엿보는 상상의 나래를 펼쳐본다.

점봉산

신윤라

점봉산에 올랐다
하늘만큼 넓게 펼쳐 놓은 역겹의 신비 그 속
들썩거리는 숲속의 하모니
점봉산 심장 뛰는 소리다
산바람이 물씬거리듯 내 가슴으로 건너올 때
두둑하게 커지는 푸른 심장 열리고
나는 내 고향에 온 듯 가슴은 복을 치듯 쿵쾅거린다.

햇살은 산 등걸에 허리춤을 풀어 헤치고
산울림이 요동치는 숲속의 푸른 물결
붉은 빛으로 물든 능선 아래
노지 초목들의 대화 소리 들리는
야생화 만발한 행렬들은 끝없는 길을 간다.

수 억만 년을 지키듯 비바람 맞은 영혼들
언제 칼바람에 휩쓸릴지 모른다고

숲에는 울타리 모양 나무들이 빼곡하다
그 중, 해 둑은 금강소나무 삶의 고갯길 오르내리듯
하늘에 얼굴 쑥 내밀고 문지기처럼
폼 나게 점봉산 하늘 곳곳을 바라보고 있다.

고요를 깨우는 딱따구리
그 생의 절규 같은 그 소린
숲속의 하모니로 잠든 세상을 깨운다.
화전 밭 일구며 살던 내 어머니 묻힌 곳
산삼과 약초를 캐며 드나들던 산 사람들의 그 터에
계절 없이 피는 희귀종의 벼섯들과 꽃들
어머니의 홍으로 다시 피어나는 꽃
"노지 박물관" 이다.

햇살이 가을의 신발을 신고 저벅저벅
숲속의 하모니를 조율하는 소통의 시간
피사체 그 줌으로 스크랩하는 꿈의 세계,
하늘 문 열려 있는 빛 그 속에

아직도
억만 년의 푸른 심장으로 들썩 들썩 거리는
명줄 긴 식물들이
뿌리 내린 씨앗으로
어머니의 깊은 숨소리처럼 하늘 덮는다.

보리밭

조은희

새들에게 아름다운 건
하늘, 그 아래 푸른 보리밭

청 보리는 싱그러웠다
날아오를 듯 보리는 자라고
아이들은 보리문등이 얘기를 시작했다

가던 길은 예전 같지 않았고
재잘거림도 없이 마구 뛰어서
강물 같은 보리밭을 건너버렸다

보리는 베어지고
걱정거리도 사라졌지만
열한 살 이후
보리밭은 문등이가 사는 둑지였다

청춘은 눈부심이다

빛나는 순간 제대로 볼 수 없는

싹트고 자라나 한창 오를 쯤
변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였고
베어지긴 사랑도 매한가지였다

그토록 시린 푸른빛과 눈부신
들녘을 다시 볼 수 있을까

기억의 한 편에서
헐리지 않고 출렁이고만 있는
저 푸른 보리밭을

10미터 안개 속

손혜자

사방 10m 안개 속
산길을 따라 가다

얼마를 걸어가도
배경은 바뀌지 않는
온통 희뿌염

또 한참을 가다가는
뱅글 뱅글 돌아 보고
깡충 깡충 뛰어 봐도
역시 걷히지 않는 장막

인생이 매사 이런 식 이지
알 수 없는 불가사의 속이지
알고도 모르고도
분주히 혼집고 가는

이윽고
목적지에 당도해도
애초와 똑같이
나와 동행 한 것 같지만
엄밀히 10m 주변의
밝음은 착각 인데

끝없는 주위의 사물과
공기의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구심점인 나로부터 인지 할 수 있는가?

내린천의 거미와 선녀

정선숙

자작나무처럼 하얗게 서서
내 설악의 밤에 발목을 적셔본다
샛노란 달맞이꽃이, 달맞이꽃이,
별을 아작아작 주워 먹었는지
이런 노란 빛으로 숨을 토하다니
아! 나비 같은 숨소리여
나비를 밟고 누군가 지나간 길이 있다
이놈은 분명 거미이다
달맞이와 별 동네를 마실 다닌 공중 길에
돌백이 아가의 눈빛을 흘리고 다녔다
대롱대롱 매달린 저 눈빛, 아직 살아 있는 걸 보니
내 설악의 어깨에 쉬고 있는 구름의 손자이다
꺼풀을 벗고 허공을 돌아 나온 후
물 소리를 따라 왔다가
선녀탕에 놀고 있다가
슬그머니 꽃잎을 향하고 있다

내린천의 돌단풍을 사금사금 갉아먹자
축축한 산허리가 옷고름을 풀어 해친다
꽃가마에 앉은 내린천의 선녀
자꾸 알몸이 되고 싶다
달빛이 모르는 척 달려가고 있다

숲을 만드는 낭군

전숙자

새벽이면 산으로 가시는
산을 찾아 숲을 꿈꾸는
나의 낭군은 산이다

낙엽송 40년이 넘어도
곱다하며 바라만 보며
오늘도 산으로 갑니다

남들은 먹고 살자고
나무 팔아 지내는데
숲이 좋다며 산에 갑니다

사람 사는 복은 가지고
나온다며 한가롭게 산에서
숲을 가꾸는 낭군은 산입니다

아이가 셋이나 있으면
나무에게 이별 통보 할 만한데
삼 심으면 된다며 삼씨 심으로 산으로 갑니다

제9회 환경부장관상품

전국여성환경백일장

입상작품



주최 : 내린천예술인회 · 강원일보사

후원 : 환경부 · 인제군 · 인제문화원 · 시현실

제9회 환경부장관상파 전국여성환경백일장 입상자 명단

상급	상 격	부문	성 명	작품명
대상	환경부장관상	운문	정클잎	곰배령
장원	강원도지사	산문	박돈녀	자연과의 약속
		운문	박지영	밭고랑을 쓸고 가는 어머니
차상	강원일보사장	산문	신성자	그해 여름 - 태풍
			박선애	할머니의 들꽃
		운문	심윤자	내, 어머니의 뜰
			금시아	나무에 걸린 폐비닐
		운문	박소민	웃음 띤 북어
			민경녀	가을
			손혜자	소라껍질
			임창선	자연

대상 / 운문부

곰배령

정 클 잎

비구름이 물러가자 하늘이
파란 스크린을 펼쳐 놓는다

각각의 주연과 조연들이 푸른 물기를 털어내며
제 역할의 대본을 암송한다
긴 다리 대벌래, 당귀 입 뒤에 숨어
쓰루쓰루 묵독 중이다
검은 등뼈꾸기는 길섶 약수터에서
칼칼해진 목을 측인다
서로 몸 비비며 암송하는 나뭇잎들
재님이가 간간이 대역을 해 준다
수리취, 어수리, 흰송이풀, 노란 마타리 그 꽃송이리 몸짓에
깜박깜박 대사를 잊어버리는 흰도라지모싯대
수줍어 고개 숙인다
영지버섯, 겨우살이, 작약, 외워도 외워도 지천인 보약들
곰배령은 동의보감이다

금강초롱 만한 암덩이 안고 아침가리꼴로 숨어 든 아내 위해
장씨는 매일 숲으로 숨어드는 배역을 맞는다
숲으로 숨어들면 들수록 아내의 얼굴이
동자꽃으로 물들어간다
주연에서 밀려나 상처 하나씩 안고 사는 곰배령 사람들
이곳에선 주연과 조연의 경계를 허물며 모두 자연이 된다

탁, 무대의 조명이 켜진다
각양각색의 엑스트라들이 초록의 꿈을 키우는 야생의 군락
그 천상의 정원,
절창絕唱이다

밭고랑을 쓸고 가는 어머니

박지영

꿈틀꿈틀
맨 몸뚱이로
밭고랑을 천천히 쓸고 있다.

깊게 패인 주름이 갑옷처럼 딱딱하다.

골목을 꺾어
한 발 내딛는 순간, 순간
가슴이 산사태 난 담벼락으로
와르르 무너진다.

그녀의 눈매가 그늘같이 서늘하다.

꿈틀꿈틀
붉은 살점들이 떨어져 나간
늪지의 오후,

발바닥에 새겨진 나이테를 어루만지며
흙더미에
납작하게 엎드려
꺼억꺼억 울고 있다.

수평선 그 너머
말없이 사라지는 말간 햇살,
늙은 수도승의 침묵인 듯
그녀의 눈동자에 깊게 박힌다.

내, 어머니의 뜰

신윤자

새벽에 피는 콩꽃은
콩나물시루 속 나의 자화상이었습니다
그가 만개할 때 쯤이면 팔려 나가야 합니다

콩나물시루는 첫 닭의 울음 소리를 들었는지
어머니의 두 손을 꼭잡고
새벽시장에 덜컹 그 울음소리를 내려놓습니다

어둠이 풀리지 않은 안개 속에 끼인 사람들
밀려드는 떠들썩하는 소리들이
어머니의 얼어붙은 속눈썹을 때어 놓습니다.

좌판위에 수북하게 쌓인 콩나물 무더기 속에서도
어머니의 두 눈은 커져 빛이 나 있고
팔려나간 껍질을 털어내는 중에서도
긴 한숨을 토해냅니다
콩나물시루에 담긴 물소리는 어머니의 전생인 양
새벽이 길게 자라고 있습니다
토끼잠을 잔 놀란 눈으로
콩나물시루 안에 식솔들의 밥숟갈을 세어 가며
새벽시장을 열고 있습니다.

나무에 걸린 폐 비닐

금시아

누구에게 납치되어 저기에 갇혔을까
벗나무에
걸쳐진 까만 폐 비닐

버찌를 출산한 채 흘날리는
꽃잎들을 위해
목이 터지도록 울고 있다
철사처럼 불들이 맨 발목에 피가 고인다
흔을 살라 버린 기억조차 없는
죽음의 무도회
살풀이를 위해 노제 춤을 출 뿐이다
바람의 몸을 가진 검은 비닐 옷
꽃샘추위 채찍질에 찢겨진 고요
붙잡힌 머리채를 늘어뜨리고 있다
차가운 입맞춤으로 안녕을 날리는 꽃잎들
숯검정이 된 살갗
한참 시리다

저녁놀 불 밝히고 서 있는
조등아래서
나는 그를 꽃상여에 누이며 진흔곡을 부른다

가을

민 경 녀

적색 뿌려놓은 이름 붙은 풍경
산 중허리에 걸터앉은 설악

새 생명의 산발에
굽이굽이 돌아간 핏줄기 같은 계곡에
조용한 리듬을 타고
노랗게 빠알갛게 덮여 간다.

갓 퍼진 소문이
이미 대지를 떠났으니
또 나무를 떠났으니
영원히 아름다움을 유지한다더라도
기다림에 불과하다.

붉게 물든 단풍 산
바위틈에 낀 설해목
가을 산 열정에 숨은 벽차오르고

10월의 태양 별은
풍성한 순간을 열었습니다.
한 폭의 풍경화 봄단장하고
저만치 내려온 가을

우리동네 가을은
가로수 심어놓은 감나무에 걸리어 빨갛게
그 누군가를 위하여
가장 평화로운 곳으로 익어 가고 있었다.

소라껍질

손혜자

바다 갯벌 가운데
작은 소라껍질 하나
소리 내어 운다.

단 한번 만이라도
구역질나는 갯벌에서
끌어 내 지더라도 했으면

사람의 밥이 되어도 좋다.
관상용이 되어도 좋다
뭍 내음 맡고 싶어
간절하게 바라지만

바다 소리
뭍으로 실려가도
뭍의 공기를 신고서는
다시 돌아오지를 못하고.

자연

임창선

어깨를 나란히
한 세상을 간다는 것
가슴 설레는 일이지

어깨를 나란히
한 세상을 간다는 것
너무너무 슬픈 일이지

나란하다는 것
함께 간다는 것

지상의 끝 저편에서 하나가 될 것 같아서
지상의 끝 저편까지 함께 가보지만
영원히 만날 수 없는
하나의 소실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으로
안타까운 눈짓 같은 자연.

자연과의 약속

박돈녀

우리가족의 숙원이었던 새집을 남북리 379-4번지에 짓고 이사를 했다. 뒷산이
담처럼 치져있고 오월이면 아카시아 꽃이 주저리주저리 함박으로 피어 향기와 함
께 온통 벌, 나비가 꽃 잔치를 벌인다.

날이 새면 자욱한 안개. 집집마다 굴뚝에선 아침밥 짓는 연기가 구름처럼 피어
오르고, 안개 헤치고 빼꾸기와 휘파람새가 번갈아 가며 울어 대는 것 또한 낙원이
다. 집은 농가주택으로 자그마하게 지었지만 집 없던 우리 가족에게는 어느 빌딩
도 부럽지 않았다.

집 옆에는 작은 봇도랑이 있어 밤이면 물 흐르는 소리가 재잘대는 아이들 웃음
소리처럼 들리고, 담 없는 앞 논에 개구리들의 합창은 고운 선율에 하모니다.

어느 날 뒷산에서 바스락 바스락 소리가 들려 몰래 숨어보았더니 작은 토끼 길
에 꿩 새끼 여덟 마리가 어미를 따라 소풍가는 유치원생들처럼 산을 오르고 있었
다. 너무 귀여워 데려다가 집에서 기르고 싶어 살금살금 기다 그만 들켜버려 꿩들
은 어디론가 숨어버렸다. 정말 자연그대로 산속에 내가 살고 있다는 착각 할 때도
많다.

뒷산 비탈을 조금 돌아가면 길게 하늘을 찌를 듯 쭉쭉 뻗은 미루나무가 회색 옷을 입은 채 몇 그루가 서있다. 높은 가지엔 까치집도 몇 채 있었고 밤이면 어김없이 부엉이가 울곤 했다. 가족을 잃었는지 매일 그렇게 울고 있었다. 언제부터인가, 바쁜 생활 속에 우리는 부엉이를 잊고 있었다. 어느 날 갑자기 부엉이 생각이 떠올라 밤이면 부엉이 소리를 귀 기울여 애써 들어보려고 해도 통 들을 수 없었다. 왜일까? 궁금하여 가보았더니 미루나무는 잘려져 있었다. 이유인즉 봄이면 미루나무 꽃가루가 날려 인체에 해롭다고 베어버린 것이다. 부엉이가 없어진 이유는 그뿐만이 아닌 것 같다.

아미산 끝자락에 있는 외할머니 산소에는 산토끼가 내려와 꿩과 노루가 함께 할머니 산소에서 놀곤 하였다. 요즘 산토끼를 볼 수가 없다. 이것 또한 먹이사슬 때문일까.

매주 수요일이면 TV에서 어김없이 환경스페셜이 방영된다. 정말 볼만한 것들이 많다. 들고양이가 번성하여 산토끼를 잡아먹어 토끼가 사라지듯 먹이사슬이 균형을 잃어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 데도 원인이 있고, 몰지각한 사람들에 의해 사라져가는 우리의 동·식물들이 수난을 겪고 있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근래 외국에서 묻어 들어오는 동·식물들이 생태계의 불청객으로 우리의 자연환경을 교란시키고 있다. 외국에서 선박을 따라 들어오는 희귀어종들이 우리어장을 마구 파괴시켜 어민들의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내 손자들에게 할머니의 아름답던 유년시절을 이야기 해주려면 변해버린 자연환경 때문에 쉽게 이해되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다.

맑은 앞강에 죽은 깨 다문다문한 철죽꽃의 아름다움과 검정고무신으로 송사리, 달팽이, 방개 등을 잡던 일, 뒷산 꿩 여덟 마리의 이야기며 산토끼이야기들이 모두가 믿기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그곳을 떠나 다른 동네로 이사 한 지 십 여년이 지났지만 전에 살던 정겹던 집과 뒷산 부엉이울음 소리를 잊을 수가 없다.

무절제하게 써온 세제, 샴푸로 맑은 물을 지키지 못했으며 능선마다 파헤쳐진 초췌한 산을 바라보며 선조들이 물려준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지키지 못하고 환경파괴로 지구의 온난화를 불러온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뚜렷한 사계절이 흔들리고 예측하기 어려운 폭설, 태풍, 폭염으로 많은 사상자와 인간의 식량문제 까지도 절실해지고 있다. 지구의 멸망을 예측하는 과학자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나고 자랄 우리의 귀여운 자손들에게 너무 죄스럽다.

어느 과학자는 지금이라도 전 세계가 환경 살리기 운동에 전력을 다할 때 지구환경은 조금씩 회복 될 수 있다는 작은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주었다. 비만 오면 흙탕물로 변하는 앞강은 황소울음을 우는 것 같다. 원인도 모른 채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여 강물 위를 떠내려가고 있다.

포크레인은 오늘도 굉음을 내며 미구 파헤치고 있다. 물속에서 살고 있는 온갖 물고기, 달팽이들이 어디에서 살라고 저리 파헤치는 걸까. 물, 숲, 공기 모두가 생명의 원천이기에 위대한 자연을 소중하게 지켜야할 의무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다.

세월의 그림자 속으로 사라져간 청자빛 맑은 물의 송사리 떼 한가롭게 노닐고, 푸른 하늘에 온갖 새떼들 힘차게 날아오르던 옛날이 그립다. 이제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실천하여 자연을 살리는데 마음을 써야 할 때다. 그래서 자연과의 약속을 꼭 지켜야 하리라.

그해 여름

- 태풍

신성자

화살 같이 박혀 들던 뼈약볕이 수그러들었다. 복병처럼 매달려 온몸을 휘감아댄 그 열기도 한풀 꺾였다.

바람이 무덥던 날이었다. 허공을 떠도는 바람이 서로 얹히어 휘청이고 있었다. 음산했다. 순간! 광란의 바람은 잠시 신열에 들떠 허둥대더니, 이내 푸른 머리채를 휘저으며 온몸을 뒤척여 대기 시작했다. 천지를 모르고 미친 듯이 휘저어댔다. 어 기찬 빗줄기가 쏟아졌다. 제 몸을 견디다 못한 나무는 한순간 “우지직” 내장을 들 어낸 채 드러누웠다. 엉킨 바람에 유리창이 박살나고 간판이 내동댕이 쳐졌다. 공 사장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던 스티로폼 더미들은 마치 불화살을 쏘아대는 듯, 허공 을 치솟더니 하늘에는 온통 뒤엉킨 꽃잎들로 아우성이다.

대자연의 거센 분노! 울분에 저항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너희가 만들어 놓은 환경에 단지 적응할 뿐이야.”

내게 지난여름이 길고도 지루했던 것은, 예고 없이 불어 닥친 태풍이었다. 어쩌면 산다는 것은 난파선 한 조각에 깃대를 꽂고 침묵하며 기다리는 것.

작은아들이 느닷없이 텐텐대로에 급제동을 걸었다. 성급한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6월이었다. 해외 정착을 목적으로 오래전부터 준비해 왔다는 것이다. 비상 못해 웜츠린 날개가 안쓰러웠다. 홀가분 할 때 도전이라고 한번 해보고 싶다는데, 자식이기는 장사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그 결정은 절대 쉽지가 않았다.

아연한 시선 거둘새 없이 태풍 “말로”가 밀려온다고 한다. “말로”는 싱가포르 말로 “구슬”이란 예쁜 이름을 가졌다 한다. 고난은 연속으로 평온할 때 찾아든다.

전화벨이 숨 가쁘게 외쳐대던 그날도 바람은 무거웠다.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연일 밤샘을 계속하던 큰아들에 사고 소식은 청천벽력이었다. 오토바이로 출근하다 달리는 차와 정면충돌 했다는 것이다. 팔과 다리가 부러졌다. 대형사고 치고는 경미하다면서 하늘이 도왔다고 사람들은 입을 모았다.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정작 걱정되는 건, 시든 배춧잎처럼 지쳐 있는, 아들의 모습이었다.

“쉬고 싶어요. 어머니”

아들이 작았다. 서른 아들이 한없이 작아 보였다. 초등학교 운동회날이다. 100m 달리기하고 온 녀석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피곤하니 급히 물을 달라고 했다.

“이 녀석아 네가 뭘 했다고 피곤하니”

“아-유 저기서 이만큼 뛰어 왔단 말이어요, 그리고 일등 했어요”

이만큼 달려오기까지 그것은 당연한 결과라 생각했다. 세상에 찢긴 마음 한 자락 풀어놓을 새 없이 아들이, 이 시대에 수많은 젊은이는 허공에 뒤엉킨 꽃잎으로 앞만 보고 달려야 한다고, 그래야 하는 줄 알았다.

형체조차 분간기 어려운 오토바이 잔해에서 날카로운 금속 파열음 소리가 들려왔다. 그 희열의 외침은 아들의 붉은 혈기 그 내면에 깊숙이 용출되어 있던 강한 기운이 기어이 폭발하면서 소나기를 박듯 울분에 외침, 불꽃과 화산재였을 것이다.

뒹굴처럼 뻗어 있는 짐을 잠시 거두고 아들은 느슨하게 숨을 고르고 물을 마셨

다. 복잡한 일상에서 지친 심령을 정리할 여유를 가졌다. 지난 흔적을 가늠하며, 현재의 위치에서 꼭 필요로 한 사람으로 자리를 굳혔다는 것은 그런대로 온 힘을 대했다고 자부했으리라. 그것은, 희망이다.

태풍은 멈추었다. 크고 작은 상처를 남기고, 바람은 잘못을 들킨 어린아이처럼 황황히 눈길을 피하더니, 능청스럽게 산 이마를 부드럽게 쓰다듬고 지나갔다. 미처 숲을 빠져나가지 못한 바람이 “우” 짐승 소리를 냈다. 마른 살비름처럼 거세당한 나무는 잎을 떨어내면서 숲은 혈령해져 있다. 그것은 공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몸부림이요, 인간들이 파괴한 자연에 대한 대답일 뿐이다.

삶의 행보에는 여러 색깔의 바람이 분다. 인생이란 어차피 어려운 것과 쉬운 것 이 번갈아 곡예를 하는 것 같다. 태풍과 동행했던 그해 여름! 그 뜨거웠던 용광로는 우리에 경각심을 일깨워준 단련의 기회요, 스승이다. 성장의 원동력으로 잠재해 있는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순환의 기회였다. 그 개혁으로 우리는 좀더 성숙된 삶을 살수 있을 것이고, 삶이 차갑게 날카롭게 맨살에 부딪혀 온대도 그 해 여름을 기억하며 이겨내리라.

“어머니 신제품이 쏟아져요. 성공이에요”

“막내아들 비상할 준비 잘하고 있습니다. 형보고 그래도 두 발 달린 것보다 네 발달린 것이 더 안전하다고 꼭 전해 주십시오” 상쾌한 가을 예감이 기대된다. 그래서 삶은 맛있는 가치가 있는가 보다.

할머니의 들꽃

박선애

오늘도 난 평상시와 같이 아내로 엄마로 바쁜 일상생활을 하며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집안 청소 후에 가득 찬 정량제 쓰레기봉투를 들고 나와 길옆 전봇대에 비스듬히 세워 놓았다.

오늘 일과를 다 마친 것 같은 훌가분한 기분으로 돌아서는 순간, 나를 향해 직격탄으로 날아든 소리가 들려왔다. 주인 할머니가 길 건너편 텃밭에서 나를 보며 고함치는 거였다.

“거기마다 쓰레기 버리지 말아.” 하며 말이다. 뒷말도 들려왔지만 너무 당황한 난 챙피해서 빨개진 얼굴로 집으로 서둘러 들어왔다. 처음도 아니고 매번 그곳에 쓰레기를 내놓고 환경미화원 아저씨가 치워가는 자린데 새삼스레 역정을 내시니, 주인이라 유세하시나, 아님 “내가 그렇게 만만한가” 하며 그제서야 화가 치밀었다.

여기 이제로 내려와 정착한지 6년이 되었지만 도시에서 놓고 자란 난 남에게 꾀해를 주지도 입지도 말자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터라, 아무리 어른이 시지만 이해가 안되었다.

그 일이 있은 후 몇 일이 지나 우연히 그곳을 지나다가 전봇대 아래를 보게 됐다. 거기엔 활짝 핀 이름 모를 들꽃이 가지런히 실랑실랑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화려하거나 튀는 꽃이 아닌 자연스레 수수한게 우리네 평범한 서민의 모습으로 말이다. 가끔 할머니가 거기에 쭈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하시던 것이, 몇 일 전 나를 나무라시던 행동이 꽃이 자라고 있어 키우고 계셨기 때문이었던거다. 우리가 자연 보호니, 환경보전이니 하는 거창한 표어아래 큰 맥락만을 중요시하며 추진하는 일들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

그러나, 이런 소소하고 소박한 마음 쯤씀이야 말로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또 한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려고 하는 진정한 모습이 아닐까한다. 세상사 모든 일이 티끌 모아 태산이 되고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큰 결실을 거둘 수 있듯이 나도 주변에 작은 것 부터 하나하나 실천해서 내 아이에게 모범이 되어야 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할머니의 정성스런 보살핌으로 피어난 들꽃이 바람에 마치 나에게 꾸벅꾸벅 몸짓하며 인사하는 듯 보여 내 맘도 포근해지고 그동안 할머니께 가졌던 오해와 섭섭한 마음도 한겨울에 소복히 쌓인 하얀 눈이 따스한 햇살에 녹듯 녹아 내리는 듯 했다.

웃음 띤 북어

박소민

후~

혹 마지막 날숨을 펴뜨린다.

용대리에 비릿한 향이 퍼지고 몸은 굳어 간다.

내가 날 보고 있다, 고놈 잘 생겼다.

물광 반짝이며 긴 작대기에 줄줄이 매달린 친구들이 행복한 아우성을 해 댄다.

흰 벚꽃 같은 눈송이 송이 내 몸을 핫고 미끄러진다. 고드름 지팡이가 되어 땅의 기운과 하늘의 기운 중간에 봉 떠 있다. 꽁꽁 얼어버린 몸뚱이 정오의 햇살 받아 사르르 녹는다. 밤이 되면 지쳐 쳐진 몸은 또 지팡이에 의지하며 이슬아슬 철봉 놀이를 한다.

겨울 내내 낮과 밤을 오가며 내 육신은 부석 부석 사람들의 혀를 즐겨 줄 준비를 마친다. 어떤 친구는 황태 전문점으로, 또 한 친구는 무덤 앞에서 사람들의 인사를 받고, 난 어느 집으로 와 기운 없는 노인의 죽 재료가 되어 있다.

아~ 행복하다.

효자의 뭉툭한 손에 기꺼이 빗질을 허락한다.

자족의 용심(自足의 用心)

한용운 시인

자기의 할 일을 발견하고, 자기 일에 신념을 가지고 자족(自足)하는 생활 속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그 해 놓은 일을 기뻐하는 사람은 행복한 것이다.

따라서 행복은 오직 자족 속에 담겨 있는 보화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행복이란 쫓아가 구할 물건이 아니라, 다만 즐거운 마음의 표정과 웃음을 늘 띠고 있으므로써 행복을 구하는 근본을 삼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행복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같은 소중한 행복을 감사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이란 자기 형편 정도의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수준에서 그런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자기의 인간 됨됨이, 그 마음 그 수준을 뛰어 넘지 못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의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살게 되면, 자기 자신이 남에게 알게 모르게 미움을 받을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

왜냐하면, 마음과 가장 가까운 인간은 오직 자기 마음, 자기 몸뚱이 전부이지, 남의 마음 남의 몸뚱이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직 인간만이 갖는 관대함, 여유로움, 넉넉한 포용력, 한없는 아량으로 남을 이롭게 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은 오랜 학문과 수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충만할 때 얻어지는 덕성(德性)인 것이다.

남을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는 마음이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아름답게 얼굴 바탕위에 자화상(自畫像)으로 그리는 연습을 하며, 그 인간성을 인간답게 성숙시키는 것이 되는지라, 자연히 남에게 복된 사람으로 좋게 평가되어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업신여기고, 자기 자신만 높아지려고 하면, 그 자신은 낮아지게 되는 것이 사람 사는 이치인 것이다. 그래서 남을 업신여기며, 하찮게 보는 사람은 그 마음 또한 그 자신뿐인지라, 자신이 하찮은 사람으로 보일 수 밖에 없는 것이요, 자기 얼굴에 그려지는 자화상의 표정은 남이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나타나는 것이다.

남이 자신을 무시하고 마구 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오직 그 욕을 한 사람의 마음과 그의 입에 고장이 났거나, 이상이 생긴 것이지, 내 자신의 마음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내 뜻과 내 마음은 그 어떤 것이나 그 무엇에나 상하지 않고 다치지 않으므로 선(善)한 심사언행(心事言行)으로 잘 보전하면 되는 것이다.

겸손할 줄 모르는 사람은 남을 은근히 헐뜯으며, 비난하거나 비판을 잘한다. 그는 남의 약점과 허물을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이를 교묘히 이용하여 남을 괴롭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자신의 욕심이거나 이기심의 죄과는 점점 더 커지게 마련인 것이다.

채근담(菜根潭)에는 이런 글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浴其中者 波彌寒潭 山林 不見其蔽 虛其中者 凉生酷署 朝市 不知其喧”(욕 기중자 파불한담 산림 불견기숙 허기중자 양생혹서 조시 불지기훤)“마음에 욕심이 가득한 자는 찬 연못 속에서도 끓고, 깊은 숲 속에서도 고요함을 느끼지 못한

다. 그러나 마음속이 비어있는 자는 무더위 속에서도 서늘한 기운이 생기고, 시장 속에서도 시끄러움을 모른다.”

오늘도 자신의 용심(用心)은 자기 본바탕의 얼굴에 마음가짐대로의 무늬를 덧칠 해 가는 것이다. 행복한 마음은 그의 얼굴을 이름다운 모습의 표정으로 가꾸어 간다.

아름다운 마음으로 항상 얼굴빛을 온화하게, 용모를 공손하게 갖기를 힘써야 한다. 언제나 분(憤)이 날 때에는 환난의 날이 올 것을 생각해야 한다. 이득을 볼 때에는 의리를 생각해야 한다. 올바른 생각과 그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내린 최고의 선물인 것이다.

일하는 속에 삶의 보람과 행복이 깃드는 것이다. 바로 주인 의식의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 이 같은 주인의 마음을 가진 자는 누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아도 복(福) 짓는 일에 충실한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성실하게 복을 지은 것은 그 자신만이 받는 것이지, 남이 받지 못하는 것이다.

무슨 일을 하던지 그 일은 억지로 인위적으로 하는 것보다 자연스러운 마음의 흐름을 타야 한다. 저절로 하는 일이 잘 이루 위 지는 것 같이 잘되어지는 그 배후에는 부단한 기도와 서원의 큰 힘이 있는 것이다.

일하는 분위기는 성숙되지 않았는데, 내가 하겠다고, 내가 제일이라고 나서면 기존의 분위기에 부딪쳐 갈등과 잡음이 일어나게 한다. 이에 반해서 원(願)을 세워 원력(願力)이 무르익으면, 그 원력에 따라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밝은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

인덕(人德)이 없거나 부족한 마음이면, 은근히 화를 잘 내고, 욕심이 많으면, 정신이 불안정하고, 남의 허물을 밝히기를 즐겨하며, 늘 그 마음에는 족합이 없기 때문에 네 것도 내 것이 되어야 한다는 탐심으로 억눌린 그러한 생활을 하게 된다.

그러나 마음을 잘 닦아놓은 경지의 마음을 쓰면 밝고 건강한 파장을 띠우게 되니,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

항상 이웃에게 주는 마음, 즉 나누고 배풀고 하는 마음은 떳떳하고 즐거움이 넘

친다.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마음인 것이다. 비록 커피 한 잔이라도 기꺼이 남에게 베푸는 마음을 내는 순간은 든든하고 멋떳해지는 법이다. 그 순간은 천하의 주인이 되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남에게 관대하고 선을 행하게 되면, 그 만큼 그 마음이 넉넉해지지만 인색하여 덕을 끼치지 못했다면, 그 만큼 그 자신의 마음도 옹졸하게 좁아진다. 항상 친절하고 관대한 것만이 마음의 평화를 이루고 그것을 유지하는 비결인 것이다.

따라서 남에게 유익을 끼치며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또한 행복해 진다. 마음의 그릇이 큰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남에게 호의와 친절을 베푸는 것을 자기 본연의 사명으로 인식하고, 늘 좋은 것으로 나누고 베풀고자 하는 궁리를 한다.

마음의 도량이 넓고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가운데 가장 고상하고 기품이 높은 작품인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랑을 가지고 정직하고 선한 사람의 마음속에 계시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좋아하고 존경해 주기를 바란다. 자기의 해박한 지식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 하려는 듯한 태도는 결코 남의 호감을 얻지 못하게 된다. 남이 자기를 좋아하도록 하는 비결은 많은 관심으로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의 기분을 유쾌하게 해 주는데 있는 것이다.

사람은 생각하고 그 생각하는 것을 유익한 것으로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하나님의 유일한 피조물이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의 전부이고 가치인 동시에 하나님의 이상이요, 영원의 세계인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모든 의무는 올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있는 것이다. 생각함에는 먼저 자기로부터 시작하여 창조주 하나님과 자기 존재 목적의식에 이르려야 한다.

인생행로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 인생의 행로는 스스로 찾는 것이요, 스스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 가는 것이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목적 의식을 부여 하는 것이다. 모든 인생들은 지금 여기서 일회성 생명을 가지고 자기의 자유와 책임 하에

창조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지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오직 하나뿐인 생을 살아간다.

그러므로 자기만의 인생은 근엄하고 엄숙한 것이 되어야 한다. 사람이 이제 죽는다고 하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거나 큰 문제가 아닌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인간다운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만이 기쁨이요, 삶의 법칙인 것이다.

특히 많은 이웃들에게 따뜻한 인간애를 잘 기꺼이 가야 한다. 그것은 아주 작은 씀씀이면 족한 것이 되리라. 전화 한 통화, 양말 한 쌍, 넥타이 한 개, 등등이다. 비록 적고 대수롭지 않은 것이지만, 그러나 받는 사람은 그 마음의 고마움을 결코 잊지 않고 오래 기억하는 것이다.

오늘도 선한 마음으로 해야 할 일을 꼭 하고 있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야 한다. 그 할 일이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믿음이어야 한다.

그리고 목표와 방향이 명확하고 뚜렷하지 못할 때라도 그날그날 자기의 할 일을 충실히 해 나가는 사람은 저절로 앞의 전도가 열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을 꼭 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과제인 것이다. 그것은 앞날을 기약하는 한 알의 축복된 씨앗과 같은 것이다.

이 순간에도 무수히 지나가는 시계바늘 소리를 들으면서 사라져 가는 이 순간순간을 영원히 돌이킬 수 없다는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그러기에 현재 현재에 진실해야 하는 것이다. 이 현재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인류의 역사는 이 현재에서 출발하였고, 미래 또한 이 현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천년 전의 현재나 어저께의 현재나 지금 이 순간의 뿌리는 오직 하나, 그리고 한 마음인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삶의 의리보다 삶 그 자체를 더 사랑해야 한다.

기다림

金園 박돈녀 수필가

친구와 모임에 함께 가자고 약속을 하고 하나로 마트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
늦지 않으려 일찍 도착하여 기다렸다 늘 늦기만 하다고 점 찍힌 나였기에 2012
년엔 좀 늦지 않아보려고 서둘러 떠났던 것이다.

밤새내린 눈을 밟으며 상쾌한 기분으로 일찍 도착하여 기다렸다
30분이 지나도 친구는 오지 않았다.
30분이란 시간이 내가 기다려보니 굉장히 지루하다 마트 문이 열릴 때마다 온
통신경은 그쪽에 가있었다 내가 기다려보니 그동안 늘 늦어 남에게 기다리게만 한
것이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각종회의, 동아리 모임, 성당 등 늘 늦었다. 나가야 할 일이 있을 때는 집에서도
허둥대며 남편이 차로 얼마 안 되는 거리이지만 테려다 주어야만했다.

남편이 “회의가 몇 시인데?” 하고 물을 땐 남은시간이 5분이 남아있을 때였다.
그럴 때마다 남편의 입에선 고운소리가 나올 리 없다.
“지각인생. 이젠 그 나이가 됐으면 그 버릇 고쳐야지 죽을 때 까지 가지고 갈꺼
야 늦어도 10분전엔 가야지” 하며 과편 섞인 말들이 튀어 나오곤 했다.

해마다 새해첫날 이면 하느님 저 좀 어디든 늦지 않게 해주세요 하며 기도도 해보지만 남편 말따나 그 병을 고치지 못하고 세월만 보내고 이 나이가 되었으니.

그동안 문예창작반 수업이나 미술교실수업, 민요수업, 생활영어수업, 각종회의 등 늦을 때마다 미안하고 선생님들 뵙기가 죄송해 다음부터는 늦지 않으리라 결심하고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 또 웃지 못 할일이 벌어진 일이 있었다.

그날도 문예창작 수업이 있는 날이라 부지런히 남편이 차로 데려다 주고 갔는데 도착해보니 아무도 오지 않았다 문화원 사무실에 들어가 기다리는데 직원이 타다주는 커피를 마시며 기다려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 선생님이 늘 일찍 오셔서 우리를 기다려 주었는데 선생님까지도 오지 않았다.

2부의 신문을 다보고도 시간이 남았다 그때 선생님이 들어오시며 “오늘 박여사가 어쩐 일이십니까” 하며 얼굴가득 웃음을 지었다

내가 “왜들 안 오지요?” 하고 지루하였다 표정을 짓자 “이제 들 오겠지요.”

하고 대수롭지 않게 말하며 자리에 앉는다.

“늦었잖아요” 하자 “아직 시간이 있는 데요” 하신다

문화원사무실 벽시계를 보자 시계는 9시를 가르키고 있었다.

깜짝놀랐다

시계를 잘못보고 서둘러 온것이었다.

“시계를 잘못 보셨구만요” 선생님의 말씀을 사무실 직원들이 들은 것같아 창피했다 이렇게 실수를 하여야만 일찍 올 수 있는 나는 무언가.

약속시간은 언제나 10분전에 도착해야 한다는 철칙 같은 남편

단 10분도 기다려주지 못하는 성질 급한 남편의 쏘이붙인 말들이 당연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피식 웃었다.

기다림이란 성질 급한 이의 짜증 일 수도 있고 묵묵히 기다려주는 아름다운 기다림도 있다.

내 어머니처럼 북에 있는 형제들을 만나려던 꿈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신 애타

던 서러운 기다림이 있는가 하면 늦도록 돌아오지 않는 자식 때문에 사립문에서 서성이는 어머니들의 기다림, 온다던 누이가 탄 막차의기다림, 사랑하는 이 편지의 기다림, 함께 여행 떠날 일행의기다림 묵묵히 기다려주는 긴 기다림의 아름다움이 있다 여기저기 에서 박돋녀 오면 다왔다는 딱지처럼 붙은 내 느림에 부끄러움을 이해하고 기다려준 많은 이들의 기다림은 오늘 친구를 기다려준 30분의 기다림으로 답이 될런지.....

2012.1.16

라다크에서의 생일 파티

최용건 한국화가

칠흑같이 어두운 밤, 멀리 앞산을 넘어오는 차량 불빛을 바라보며 창가에 앉아 겨울밤의 정취를 즐기고 있다. 아마도 현리 장터에서 뒤늦게 볼일을 마치고 귀가하는 반장네 차일 것이다. 이웃이라야 일곱 가구 밖에 되지 않는 내린천변 해발 500미터의 작은 산간마을이다.

불빛이 사라지자 짓던 개들도 입을 다물었고 마을은 다시 어둡고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하늘엔 별들이 초롱초롱하다. 한 낮의 기운이 영하권으로 떨어진 요즘, 오늘 따라 밤하늘의 별빛들이 초신성처럼 극명해 보인다. 이따금 바람이 불 때면 나뭇가지와 함께 별자리들도 흔들려 보인다. 마치 바람에 밀밭이 낸출 대듯 별자리들이 아득히 몸을 뉘였다가는 바람이 자면 다시 제 빛을 드러내곤 한다. 그럴 때면 밤하늘의 깊은 우수 같은 것이 느껴진다.

빙하가 흘러가는 듯 한 내린천의 밤하늘을 바라보노라니 7년 전 아내와 함께 히말라야 산 속을 헤매던 때의 일들이 떠오른다. 히말라야의 영혼 초모리리 호수가에서의 밤하늘이라던가, 두레박 타고 장스카르계곡 건너기, 해발 5,603미터의 카르동라 넘기 그리고 라루마을의 어느 허름한 농가 옥상 위에서 바라보던 밤하늘이

기억에 남는다. 그 곳에서 바라보았던 밤하늘은 그야말로 별들의 전쟁을 연상시킬 듯 장관이었다. 한국에서와는 달리 히말라야의 별들은 참으로 컸다. 조금도 과장 됨 없이 얘기하지만 매번 고개를 들 때마다 돌덩어리만한 별들이 섬광처럼 날아와 가슴을 치고선 달아났다. 순간 놀라움과 함께 통증이 얼마나 가슴에 아프게 남던 지…….

한편 그러한 기억과 함께 가슴 속 깊이 따뜻하게 남아 있는 추억이 있다면 래(라 다크의 수도) 근교에 있는 앙모네 집에서의 생일파티다. 가을과 겨울을 그 집에 세 들어 살면서 났는데 친바람이 불기 시작하던 9월 어느 날 아내의 생일을 축하해주 기 위해 할아버지를 비롯한 온 집안 식구들이 합심하여 잔치를 벌여준 것이다.

사실이지 우리는 이제껏 살아오면서 특별히 생일파티같은 것을 해 본 일이 거의 없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은 삶의 연속일진데, 천의무봉이라는 말도 있듯 굳이 이 곳 천상에서의 삶에 무슨 통과의례 따위가 필요할 것인가’, 마치 도인과 같은 생각을 하며 그렇게 살아온 것이다. ‘오늘이 당신 생일인가 봐...’ 빙긋이 웃기만 할 뿐 특별히 차를 끌고 현리나 인제까지 나가 외식을 하고 돌아온다거나 피차 흔한 선물 한 번 사서 건네는 일 없이 그렇게 살아왔다.

앙모네 부엌의 부카리(화덕) 위에서는 뚝바(수제비)가 끓고 집안 구석구석에서 는 따기를 굽는 고소한 냄새가 났다. 자그마한 생일 케이크도 눈에 띄었다. 어떻게 알았는지 앙모 엄마가 오늘 집사람의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 파티를 열겠다는 것이다. 뜻밖의 제안에 우리는 너무나도 기뻤다.

해도 넘어가고 저녁 시간이 되자 다섯 살짜리 막내 돌마는 이 방 저 방 신나게 돌아다니며 식구들을 안방으로 모두 불러 모았다. 그리고 이 집의 장녀인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앙모는 케이크에 촛불을 켰고 남동생 파드마는 아내의 머리 위에 고깔모자를 씌워주었다. 촛불을 들러싸고 있는 식구들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보였다. 재미있게도 얼굴들 크기만큼 촛불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듯 했다.

먼저 생일 축하 노래를 합창한 다음 집사람이 입으로 촛불을 껐다. ‘해피버스데

이 투유...'로 시작되는 생일 축하 노래는 전 세계 공용인가 보다. 히말라야 산 속 작은 마을에서도 생일축하 노래는 '해피버스데이 투유'였다.

이어서 귀여운 양모와 파드마가 카세트테이프에서 흘러나오는 노랫가락에 맞추어 손놀림이 독특한 라닥 전통춤을 추기 시작 했고 양모 아버지와 엄마, 할아버지 온 식구들은 박수를 치며 아내의 생일을 축하해주었다. 간절하다고 해야 할까, 애절하다고 해야 할까 고산지역 특유의 고달픈 삶이 녹아 있는 노랫가락에 맞춰 추는 아이들의 춤사위가 먼 나라로부터 온 이방인의 기슴을 찬한 감상에 젖게 하였다. 웃으며 춤추며 노래하며…… 생일파티의 분위기가 점차 무르익어 갈수록 멀리 히말라야 능선 너머론 유성들이 꼬리를 물며 자주 떨어졌다.

되돌아보니 이제 세월도 많이 흘렀다. 내린천을 가로 지르는 저 은하수를 따라 흐를 수만 있다면 라다크의 하늘까지 가 닿을 수 있을 것 같다. 정말 그럴 수만 있다면 양모네 집 벽에 기대어 창틈으로 흘러나오는 가족들의 웃음소리를 밤이 깊도록 엿듣고 싶다. 그 때의 촛불, 애절한 가락, 춤사위, 웃음, 박수 소리를 다시 듣고 싶다.

양모, 돌마, 파드마 삼남매는 여전히 귀여울까? 아버지와 엄마, 할아버지는 변함 없이 건강하실까? 오늘 유난히도 반짝이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노라니 히말라야 한 작은 농가에서의 행복했던 생일파티가 간절하게 그리워진다. *

갓글엔 지금 겨울 속



영답 정기현

이렇게 푸짐할 줄 알았으면
남루하던 지난 시간들을
그리 혹독하게 살지나 말 것을

숨을 쉴 수도 없을 만큼의 서러움이
그래서 죽어도 용서 못할 비겁함도
끝내 인정하며 돌아서던 내 발자욱들
포기하면 남루한 평화가 푸짐히도 쌓였지

아주 먼 산으로 들어가 버리자
허리까지 푹 빠지는 눈 속에
차라리 가슴을 묻어 버리자
용암처럼 분출하는 이 설움을
꾹꾹 눌러 달래서
가슴채 눈 속에 붙여 버리자

아들을 버스에 태워 보내고

영답 정기현

제 길을 가겠다는 아들을 꾸짖어
강릉행 버스를 태웠다
나의 버스도 더듬거리며
홍천행 길을 가늠하고
같은 방향의 다른 길을 둘은 떠난다

흰 산을 비집고 누운 까만 포도 위를
버스는 가고 햇살만 남는다
고1년생이 세상을 얼마나 보았다고
길바닥에 여린가슴 흘리지나 않았을까
먹먹한 눈길을 피해 저녁 해도 고갤 떨군다

한 해 동안의 억울하던 얘기들은
이쯤에서 묶어 버리자고
마른 논바닥 벗짚 묶어 세운 곳엔
시간도 따라 멈춰 섰는데
아들을 태우고 나를 실은 버스는
앞만 보고 달려간다

외로운 햇살
무리져 섰는 벗단 뒤론
거친 논바닥에도 곧은 그림자 길고
흔들이는 버스 속엔
어린 아들의 눈매인양 블게 노을이 길다

내린천 강 둑에 서서

영답 정기현

억수 비를 맞고도
소리 치는
거친 저 강물이 되고싶다

흠뻑 울고서야 밤을 맞는 저녁
강둑에 선 채 이대로
젖은 머리 흘날리며 노래하는
저 나무라도 되었으면

하늘을 향해 활을 쏜다
가슴을 찢어 화살마다 걸었다
날아 어디든 가라
소리쳐 너의 노래 맘껏 외쳐라

희망을 품었다는 저 어둔 골짜기는
왜 아무 말이 없는가
둑 위엔 밤이 흘로 젖어
바람에 펄럭인다

따뜻한 손

金園 박돈녀

날이 새면 눈을 맞으며
 거리로 나가리라
 체육관 운동장을 한 바퀴 돌아
 하늘내린센터 공원에
 눈 쌓인 빈 의자의 눈을 털어내고 앉아
 누군가 약속한 올 사람이 있는 것처럼
 시계를 들여다보며 한참의 먹먹한 시간을 부려놓고

올려다 보이는 방두데기로
 풍유병 환자처럼 눈길을 헤치고 가면
 석 달 전 떠나신 어머니가
 아직 풀도 돋지 않은 문턱에서서
 “우리큰딸 왔냐” 하며
 두고 간 아버지 안부를 물을것이다
 나는 감기에 쿨럭이는 아버지를 감추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해설픈 웃음을 지어야지

내겐 아직 식지 않은 긴 호흡으로 누워
 “손이 차다 뭘 했기에”하며
 손을 녹여주던 어머니 따뜻한 손이 있는데
 돌아보면 아무도 없다.

2012.1.13

* 방두데기 - 어머니 산소가 있는 곳.

봄바람

이 애란

덩치 큰 설악

겨우내내 배부른 몸통
흰 옷 입은 모습만 보여 주더니

봄바람에 거드랑을 간질여는지
그 속을 슬며시 드러내 보인다

그바람에 온갓 조무래기
먼지처럼 달려와 간지럼 태운다

미풍에 움추린 품까지
푸르게 열어 젖힌다.

가을청취

이 애 란

아름드리 밤나무
토실토실 영글 때

들판 누런벼 바라보며
미소짓던 아버지

종일 해바람에 익었던
수수단을 들메 업고
"몇 달을 늙었니 사랑을
독차지 한 것이여"

새벽이면 균불지피고
마당쓰는 소리
찬바람이 시작되면
아버지의 가을은 깊어만 간다.

떡

이 애 란

꽃 많던 우리집
봄이면 별이 와 놀다
찬바람 불면 날아갔지

생일 날
처마 밑 굴뚝 하얀연기
정재에(부엌)선 떡의는 구수한 냄새
풀풀 풀

오빠 언니는 치자 물들인 개떡
동생들은 무지개떡

고향 집엔
아직도 어머니가 차려준
떡이 놓인 생일상과
빼그시 열린 양철대문 사이로
어머니 치마폭이 보일듯...

당신의 딸이오니

이 애 란

가을빛이 좋아
그 따사로운 햇살을 등 뒤에 두고
온 몸 안으로 스며들게 하고 싶었다

마침
고운 친구도 옆에 있으니
얼마나 좋은가

이 풍요로운 계절에
자락을 깔고
설익은 맘 결을 포개어 있어 보자

우리가 어머니란게
가슴을 열게 하고
인생의 깊이를 거들어
온기 있는 손길을 나누고

희망 한줌
내일을 위해 준비 된 지혜의 빛속에
자식을 두고..

여기
지금
당신의 떨이오니

해 중일
함께 있어 주소서.

어느날

이 애 란

눈을 뜨면
세상이 나에게
이야기를 건낸다

구름 보이면 비가
바람이 자자하면 햇살이
녹아 들었다

부모님 날 보시고
나도 부모님을 보고
한 수 거저 얹는..

앞 마당에선
아이들이
노닌다

찻잔을 메우는 향
콧날
시큰하게 한다.

나비

이 애 란

선 자리에서는
생각이
천리를 간다

첫 마음 올곧건만 버려두고
길 떠나
상처만 입는다

휘휘 둘러 뒷척거리며
홱방만...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와 있느라니
수 날을 헛 것이 판을 친다

짭쪼름한 일상이
끊임없이 속삭이는 것은
세상은 그득한 맛있는 이야기.

기룡산(야생화)

이 애 란

소나무 군락지를 품은 기룡산에 올라 보면
내린천이 휘돌아 흐르는 인제읍이 한눈에 들어온다
꼭 저닮은 사람들을 감싸 안으며
계절마다 수만가지의 야생화를 품고 사는(숲)기룡산
봄이면 색색의 노루귀꽃 양지꽃 노랑제비꽃
여름을 마중하는 산나리가 피어나면
부처꽃 족발풀 용담 금마타하리가 지천이다
갖가지 산국 취꽃들이 가을을 한가득 메우면
단풍들어 절정인 비스락거리는 기룡산은 때묻지 않은
고향으로 나있는 발자국을 반기려는 듯
겨울엔 하얀 눈꽃을 피워낸다.

합강을 이루는

杜字 원영애

강원도 하면은
동해로 가는 길 뜻
인북천과 내린천이 합쳐
몸 셋어 얼싸 안고
모래톱 쌓이는 곳
뗏목 아리랑 구슬피 노 젖던 강에
흙물 불어 마을 쓰러내리면
아픔 끄러 안으며
몸부림치는 강
저문 강에 노을 내려 얼굴 씻을 땐
입 딱 벌려지는 아름다운 강
전쟁 땐 아군은 이북으로
적군은 남으로 내려갔다던
착각에 빠지게 하던 강
뱀 꼬리인양 길게 누워 몸 틀면
물결 타고 내려가는 오색 래프팅 춤추는 강
봄 산을 껴안을 땐
꽃에 절은 강물 붉어
뼛속까지 흥건해 지는
푸른 물 어디 두고
사철 변색 물로 흐르는가
강물 바라보다
내가 강물 되면
흘러 어디로 가는 것인가.

입춘

杜字 이영애

1

고목나무가 감히 꿈을 꾸는 것이다

기침한 풀벌레가
마른 몸에 기어오르듯
근질거리는 듯

봄바람에 놀아나고 싶은 것이다.

2

눈 쌓여
깊은 잠 포근한데

발걸음 소리
이리도 귀를 깨우는가

휘몰아치는 바람은
아직도 나뭇가지 으름 놓는데

산새부리 눈 쪘아 녹이는
양지쪽에선 벌써 물밑 작업 중이다.

여름, 그 햇살 아래서

박 영 식

오른발을 내 믴다.

뜨겁다.

뒤로 물러선 오른발.

못난놈.

왼발을 내 믴다.

또 뜨겁다.

뒤로 물러선 왼발.

바보.

평행선에 막연히 서있다.

굴곡 없는 지루함.

올려다 본 하늘은.

정말 한점 부끄럼 없는데.

눈을 감게한다.

차가운 가슴은 뜨겁질 못하고.

냉랭함 속에 눈사람을 만든다.

쉼없이 늑아 내려도 늘.

그자리다,

나도 그 햇살 아래 그렇게.

녹고 있다.

가을이 끝나갈 무렵..

심 미 경

산마루에 나무들이
이별을 준비하는구나.

소나무는 자식같은
솔방울을 떠나보내고,

참나무는 친구같은
밤송이를 떠나보내고
색깔 고운 초록 잎사귀와
이별을 하는구나.

허공을 가로지른 나무가지가
얼마나 시릴까,

앙상한 가지가 이별의 상처인것 마냥
시련의 고통을 말한다.

너는 외롭겠구나..
바람이 불어올수록
외롭겠구나..

해가 조속히 저물수록
외롭겠구나..

너는..

미안하다. 우리 꽃

華曇 정순덕

우리꽃 이름을 외운다고
학창시절 영어단어 외우 듯 한다
돌아서면 잊고 또 외우고

시집가기 전 서른가지 나물을 알아야
굶어 죽지 않는다 했건만
몰라도 나물 좋은것 다 먹고사는 요즘이다

어릴 땐 나물로 먹고
고운 꽃 피는 우리 꽃
그냥 예쁜 꽃! 해도 될 것을

모르고 지나치는 순간
어딘가에서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피워내는 꽃들이 눈물 겹기에

목숨 지닌 꽃들에게
이름 한 번 제대로 불리보자

원추리 매발톱 열레지 달래 옥잠화 삿갓나물 광대나물 둉굴레...

어느날 문득 거울 앞에서

華曇 정순덕

한번도 내 몸뚱어리에게

고맙다

수고했다

예쁘다 라고

말해 준 적 없네

삼십년 갈비집 하느라 남들 한 달치 설것이며

일년치 음식을 하루같이 요리하고 손님 접대를 하니

이백여섯개 뼈들이 비명을 지르고

오장육부가 와글와글 불평을 하네

마음을 다치면 심호흡을 한다 음악을 듣는다 책을 본다

호들갑을 떨면서

정작 몸뚱어리에게

고맙다고 말해 준 적 없네

명자꽃(산당화)

華曇 정순덕

푸르른 웃음 뒤로 봉긋한 기슴
수줍게 할딱이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뭔 놈의 봄비가 천둥번개 까지 동반해서 심술을 부리는지
반짝 하늘이 벗어진 순간에 내달려 왔다

이제 막 초경을 치룬듯 붉은 입술
빗물을 톡!톡! 털어내는 매혹적인 자태
눈길을 사로잡는 명자, 고 지지배
아지랑이 처럼 어지러운 잠 달콤 해 지겠다

수줍은듯 요염한 명자 얼굴
보고또보고 가슴에 담는데
봄소나기 하늘을 산산조각 낸다

양증맞은 고 지지배 품어안고
봄비 맞으며 돌아오는 길
바람난 지지배 처럼
홧홧한 가슴 달싹한 마음
흔절할 것 같은 걸음으로 휘청이는 오후

후회

허계홍

가로등 불빛에 눈물이 있다
그 눈물안에 혼들리는
마디마다 고인 아픈 정만큼
잔을 채우며 후회 한다

무늬진 삶에 드러난 아픔을 위장하고
슬픈 가시에 걸린 영혼이 춤을 춘다
유성처럼 마지막 모습 하나
툭 떨어진다
가로등 불빛이 또 눈물을 일으켜 세운다

회색빛 어둠속으로
오랜 침묵이 무섭게 숨통을 조이고
가로등에 걸린 후회가 하얀 이빨을 들어낸다
아픈 추억만큼 잔을 채우며
또 다시 후회 한다

타인의 웃음

허계홍

화장을 하다 짐짓 주름진 얼굴을 보며
마치 소품으로 배 채우려 하는
질척거리는 허무에 놀란다

한 옹큼 꽉 움켜 잡고
세월의 노래가 두려워
맥없이 그저 히죽 웃는다

원색을 다 숨기고 거울 속의
또 다른 나를 살찌우는 화장이란 포장
손놀림이 빨라질수록
광대들의 분장한것 같은 내 모습에
심사가 뒤틀려서 아주 오래만에 .
정말 오랜만에 어울리지도 않는
빨강 립스틱을 짙게 발라 본다
젊음의 허기를
어색한 타인의 웃음 속에서 줄긴다

남을 것도 .남길 것도 없는
얼룩진 하루의 가슴앓이에 손끝이 떨린다

삶을 위로하다

허계홍

바다는 무거운 침묵중
영화의 하늘 밑에서
많은 인파들은 북세통이다
무슨 소원을 얻으러 왔을까

맑은 물속에 고기를 풀어 놓는다
몇끼 굽어도 배 부른
밥 먹지 안아도 시리게 맥막이 떤다
새해아침 첫발자국에 그 모습을 눈에 담았다
바다위에 갈매기들은 유유하다

인성을 밟고 뼈를 밟고
자신의 영혼까지 마셔버려도
갈증의 갈증에 더 목이 탄다
그리움, 떠난 슬픔, 잊어야 산다는 아픔
저 바다의 맑바닥에서 파도를 친다

바다의 끝을
내 심장이 뛰는 그리움으로 받아 들인다

바다 속에서 푸르게 다가와
내 눈자위에 파도를 친다

울화처럼 치솟는 구름속에 태양을 뒤로
부적이 풀어지는듯
손가락 사이로 흰 모래알이 줄줄 흐른다
방생한 물고기 꼬리 흔들듯
남은 삶을 위로한다

사랑 안에는

한용운

봉긋한 가슴 속에
남몰래 숨겨진 것 하나
무엇일까
아린 가슴으로 밀어 내고자
아무리 씻고 행궈도 지워지지 않는 거
그게 바로 나야
그렇게 날마다 구름이 흘러가 듯
그렇게 십년이 백년이 흘러가도
오직 당신에게는
상징의 빛이 되는 거
마치 생명보다도 더 귀한 거
그 어떤 언약의 이름으로도 풀 수 없는
하늘같은 거
끝끝내 죽고 또 죽어서도
그 존재 이유는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春 三 月

한용운

파랗게 솟은 봄기운
한사코 하늘 높이만큼
웃소매를 걷어 올린다

속살 간지러운 아자랑이
저 혼자
목마른 한 낮

맑은 빛 속으로 지저귀는
새들의 정겨운 웃음소리
개구리 머리는 어지럽다

춘 삼월이면
꼭 오신다던 그대의 고운 꿈
그리는 날이면

몽글몽글한 봉오리 젖가슴으로
별 고른 풀빛 빛이
흰 구름 한 점 띄워놓고
초록 눈 굴리는 꽃샘바람은

하루 종일 마음 조이며
기다리는 그 자리에
다소곳이 앉아 목련꽃 피기까지는
한 송이의 작은 꽃이 되라고 한다

후조(候鳥)

한용운

마른 풀잎 하얀 이슬
꿈 같이 밟고 날아가는
면 하늘 너머
그 길 천리(天理)를 간다

수없는 물살을 씻어 내리고
세월 깊이로 그 물길 겨안아 자매질 하다
오래 살고 싶은 욕망으로 땅과 하늘 그 사이
흔 불로 타는 목마름 삼키며
머나 먼 하늘 길을 날아간다

지친 날개 위로
빛 잃은 계절 멀리
온하가 손짓하지만
이별을 고하는
한밤 기러기떼

밤이면 별빛을 헤이든
빈 호숫가
엑새꽃 하얀 속울음은
천리만리 그 먼 별빛을 더욱
빛나게 행구고 있었다

제4장



Inje Culture

제15회 인제서회 임서전

2011년 3월 25일~27일

인제문화원 2층 전시실

출품자 명단



강순복	고준길	권옥자	권혁선	김옥남	김윤혜	김인국	김 향
김혜림	문근태	백명숙	백옥희	서성호	안미영	오향임	오혜숙
우성옥	유정원	이득자	이명재	이지수	이지연	이향자	임정래
장남근	장예진	전소희	전영옥	정진숙	조덕중	조정옥	천영식
최옥매	최옥연	최원영	최은희	최태홍	한글용	한숙자	한주림
현영수	황변주(이상 42명)						

인사말씀

지난 95년도에 인제서학회 창립전을 시작으로 한번도 거르지 않고 정신문화의 정수로 불리는 서예를 올바르게 계승 발전하기 위하여 정진하고 있는 본회 회원님들과 함께 제 15회임서전을 개최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과 같은 전시회를 통해서 회원 상호간 정보도 교환하고 관람자의 고견에 귀 기울여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계기가 되고자 합니다.

아직은 서툴고 부끄럽지만 언젠가는 서도의 일각이나마 깨우치게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서두르지 않고 한 점 한 획에 혼신의 힘을 다해 선현들의 얼을 이어 보려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만해 전국대회 등 전국서예대전에서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매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한국 서단의 서성으로 불리는 여초 김용현 선생님의 기념관이 인제군 북면 용대리에 완공되는 해로서 인제군민과 우리 인제서학회 회원들의 궁지를 한층 더 높여 명실상부한 서예의 고장 인제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창립전부터 오늘까지 서예지도에 온갖 정성을 기울여주신 서성호, 김향 두분 선생님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維乾隆元年次戊戌九月庚午
朔三日壬申弟十三齡銀青光祿大夫
授尚蒲州法寧寺事蒲州刺史上程
平却財舟揚好閑國直以清約
庶羣賢子姪贈贊善大夫李明之靈惟

尔挺生夙操幼德宗廟湖連階庭玉
蘭方憑積每慰人心方期載穀何圖
逆賊閻順宜稱兵犯順爾父常山作郡金
時受命一在平原兄仁愛積我恐

萬世無窮真卿於文書平却雨水荷公西堂

강순복

諱猛龍字神回南陽白水人也其氏
族分興源流所出故已備詳世錄不
復具載盛鬱於帝皇之始德星曜像
於朱鳥之間淵玄万壑之中巍巖千
峯之上卉葉清高爍乎

辛卯新陽松苑

권옥자

魏魚黃雖賴題迂退遊蒸衿裁
長養高軍軌雅第篇讓芳草葉
露青音負賒臨緝聖聲移秀秦
雪震霜郎部鄉禽素終

辛卯花月素亭

고춘길

唯
 子
 脊
 等
 紀
 曰
 子
 是
 親
 既
 多
 受
 祙
 永
 享
 南
 山
 干
 祿
 天
 疊
 共
 享
 天
 和
 億
 載
 萬
 事
 徒
 然
 同
 聲
 債
 賦
 孫
 興
 刊
 石
 立
 表
 故
 史
 示
 車

辛卯春仲月
刻

만그제와양보를나누려면상이기부모인그부모의화례가위의화례상에라
 시베리사상자례이루어진의도는이제시로삼되이하창업업주는그아
 해낼좌한데로가족벌을내리며종이되좌로나그아래로돌을나보니
 동봉지쪽으나시나한직이되한,초령을이그자유안주시그아래나시보니
 울위지근안시나죽고로일체로와총례로멍해로문을나로안나하
 초강은증작죽성의이모는적이내증례로죽증과나증례로죽증례로죽
 진시회.이죽법을나죽례가되좌로나죽누보가여서죽증과나죽증례로죽

권혁선

김옥남

佛道崇虛乘幽控寧弘濟万品興御十
方舉威靈而無上抑神力而無下大之則弥
於宇宙細之則搃於毫髮厘無滅無生塵平
劫而不古若隱若顯運百福而長今妙道深
玄道之莫其際法流湛寂挹之莫測其源
故知泰之凡愚也三窟鄙故辛卯上春高是

김윤혜

김인국

春饗導物嘉會述脩辟雍社稷品制即上
尚書衆以符驗乃敢率祀餘胙賦賜刊石
勒銘并列本奏大漢延期彌歷億萬時長
史盧江舒李謙敬讓又官掾魯孔翊少曹
史曹孔淮戶掾韓東門榮

俊賢文根太

新裝冰冰錠米酒自彌靡
洞飄香蘭風雨歸周鼎
便鋟雀臘潤鏡二喬
辛卯春首 雲亭

김혜림

문근태

백명숙

별록

鑿山學古采金鑿石
 翻洞開深想見懶人
 赤狹翁也咄咄而已
辛卯春首思明

宇十有七年窮塵道邦詢求正教雙林以水味
 道滄風原於鷺岸瞻奇仰異承玉於
 先聖受真教於上賢採贊妙門精窮與業一
 乘五津之道馳豫於心田之藏三篋之久波濤於
 口海爰自所應之國授將三藏要文凡六百五
 十七部譯布中夏宣辛卯新華書院

안미영

오향임

疾走直詣寶山無化城而可息亦後
因靜夜持誦至多寶塔品身心泊然
如入禪它忽現寶塔口宛在目前釋迦
分身遍滿空界行勤聖現業淨感深
悲生悟中淚下如雨遂

辛卯瑞月古潭

題

楨幹禪池畎澗涵巨波濤年甫七歲
居然厭俗自擧出家禮採經法華在
手宿命潛悟如識金環揔持不遺若
注瓶水九歲落髮住龍興從僧錄也
進具之年昇座講法頓

辛卯瑞月美啓

오혜숙

우성옥

唐故祕書省著作郎蔓州都督府長
上護軍顏君神道碑曾孫魯郡開國公
真卿撰并書君諱勤禮字敬琅邪
臨沂人高祖諱遠齊御史中丞梁武帝
受禪不食數日一慟

辛卯孟春 皋元

謨而遊上林問禽狩所有苑令不對更問
毒夫毒夫事對於是進夫毒為令令退為
毒夫釋叱議為不可苑令有公卿才毒
夫喋喋小吏非社稷叱重上從言武時有
騫廣通風俗開塞畿寧南夏八

辛卯孟春 亦勤

유정원

이득자

經幼輿敦雅有醞藉通班漢書左清
道率府兵曹真卿舉進士校書郎舉
文詞秀逸醴泉尉黜陟使王鉉以清
白名聞七為憲官九為省官荐為節
度採訪觀察使魯郡公

辛卯春首德溪識

諸

이명재

禍固惡積福緣善慶尺璧非寶
才陰是競資父事君

月鶴初李智秀

이지수

저뿔도비최시며명울주도는신이
다무죽수가지급기늘어마금
원학초교오고 이지수

月滿天江櫓
 火燒城外山
 舟半鐘聲近
 信使可憐人

辛卯春日
甫林

몬리하산금강에 띠우도 봐를며
 티리이 달리리고 공자로
원주정주인장
이지업

信使可憐人
 欲難里墨悲絲染
 詩讚羔羊景行維
賢元通中一李智暉

이지업

이향자

大唐三藏聖教序太宗文皇帝敕弘福寺沙門懷仁集。普右將軍王義之書。蓋聞二儀有深顯覆載以含生。四時無形。化物是以窺天鑑地。窮愚旨識。其端明陰洞陽。實哲罕其潛寒暑。以數然而天地。營乎陰陽而易識者。以其有像也。陰陽爰乎天地而維窮者。以辛卯孟春魚水行

一磨林慶未

임경래

장남근

勗念作聖德達名立形端表正
空谷傳聲虛堂習聽

元通初張叡珍

화へ「고지」[거]를 셜조[설조]로 대신하였다.
[注] 『한국서예』 1995년 1월호 100면

장영진

장예진

昭恩全游姬

전숙희

君謙遷字公方陳留己吾人也君出先出
自有周周宣王中興有張仲叫做孝文為行善
披覽詩雅煥知其祖高廟龍興有張良善
珪用蕭何在帷幕之内史勝負千里外析
於留文景之間有張釋之建

辛卯上春和若

極孤世孤傷寒車駕犯經榮乃玄翁研剝
鋸破溪伊予佐時河流卷宅曲平流日孤堂柱
公直多清狗於俗跨回漢直說或主丁俊入密
勿多亮兮吾楚次翁鵠紀因橫例連城稀誠
去矣豎口道而泣辭契恆而祀廟躬叔用罕
窮精言威沙洋祀峯丹青九辛卯春首吳鼎

전영옥

정진숙

禮器升堂天雨降澍百姓訴和
舉國蒙慶神靈祐誠竭敬之報
天與厭福永享年壽上極華紫
廟仗皇代刊石表銘

조덕증

천영식

故曰行臺志半九十空言煥若未踰之難也。復古
云今泉我高祖太宗已半未有行此而不踰度
此而不亂者也。前志善提寺行晉僕射指麾寧相
与者。意者已下。勞系官益為一行坐角。角及僕
射率諸軍將為一行坐。蓋一時從權。不移未可。行
況積習更以之。未一服。郭令多以父子之軍。喜堂

喜堂

조정목

한국의 역사에서 전통적인 관습과 신학적·정치적 원칙이 혼재된 특징을 보여주는 문장이다. 이 문장은 고려 시대의 문인이나 정치인들이 종종 사용하는 형식으로, 주로 행정과 군사 분야에서 사용되었다. 문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故曰行臺志半九十空言煥若未踰之難也。復古云今泉我高祖太宗已半未有行此而不踰度此而不亂者也。前志善提寺行晉僕射指麾寧相与者。意者已下。勞系官益為一行坐角。角及僕射率諸軍將為一行坐。蓋一時從權。不移未可。行况積習更以之。未一服。郭令多以父子之軍。喜堂’
- ‘한국의 역사에서 전통적인 관습과 신학적·정치적 원칙이 혼재된 특징을 보여주는 문장이다. 이 문장은 고려 시대의 문인이나 정치인들이 종종 사용하는 형식으로, 주로 행정과 군사 분야에서 사용되었다. 문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皇帝勳血祀斯匱廿八奉
而廟輒歲參豆於山周
歲用原德溢韻諭於醫
亦義著畊陸于復嗣革
歸賛秀而下而復興

최옥연

최옥매

司徒臣誰司空臣亥稽首言魯前相璵書
 百祠事唐幽讚神明故特立廟哀誠又演辭問璵書
 石謹主先春親有家用器財聞王
 將興에嘉祥이로제이太子를하늘하사兄이
 聖孫을내시나이다世子를하늘하사帝命이
 ○나리어스는聖子를내시나이다

辛卯年夏月
李泰洪書

최원영

물금산[金]의 러[廬]寢室[室]이 페인[印].
 枯[枯]풀[木]보[木]수[水].
 將[將]興[興]에[에]嘉[嘉]祥[祥]이[이]로[로]제[제]이[이]太[太]子[子]를[를]하[하]늘[늘]하[하]사[사]兄[兄]이[이]는[는]
 聖[聖]孫[孫]을[을]내[내]시[시]나[나]이다[이다]世[세]子[子]를[를]하[하]늘[늘]하[하]사[사]帝[帝]命[命]이[이]

꽃비 천원영

최태홍

原仁兄愛我恐俾爾傳言爾既歸止
復開土門土門既開光威大戲賊臣不
叔孤城圍逼父陷子死巢傾仰覆
天不悔禍誰為孽姦念尔遺殘百身
何贖豈能承氣哉幸天澤移枝河東

聞泉咽比若再陷穿山捨爾首輞
乃茲日還接念摧切震悼心顛方傷
遠日卜尔幽室魂勿有忘參魂而有
系參望文亥亥以呼之补布召召山東文

鄭熙顏真卿祭姫文稿辛卯至壬辰月書於臨邑

최은희

生滅之機要詞淺道曠尋之者不究其源文顯義
幽履之者莫測其際故知聖慈所被業無善而不
臻妙化所敷緣無惡而不剪力開法網之經紀六度之
正教拯羣有之塗以炭啓三藏之秘牖是以名無翼
而長飛道無根而永固道名流度應遂古而鎮常
赴感應身經塵劫而不朽晨鐘夕梵辛卯孟陽書於

十一月日金紫光祿大夫檢按刑部尚書上
柱國魯郡閔國公頴真節奉寫書于
右僕射定襄郡王郭公閣下蓋太上有立
德其次有立功是謂不朽抑又聞之端揆
考百寮之師長諸侯王太子臣之極地今僕
射挺不朽之功業山高人臣極幸甲辰陽一歲

한길용

한주림

受傳訓入奉母儀諸姑伯叔猶子比兒孔懷兄弟同氣連枝交友投分切磨歲規仁慈隱惻造次弗離節義廉退顛沛匪齶性靜情逸心動神疲守真志滿逐物意移堅持雅操好爵自縻都邑華夏東西二京荀范面涪浮渭擾涇宮殿磬石鬱鬱樓觀飛鷺駕鹹寫禽獸畫綵仙靈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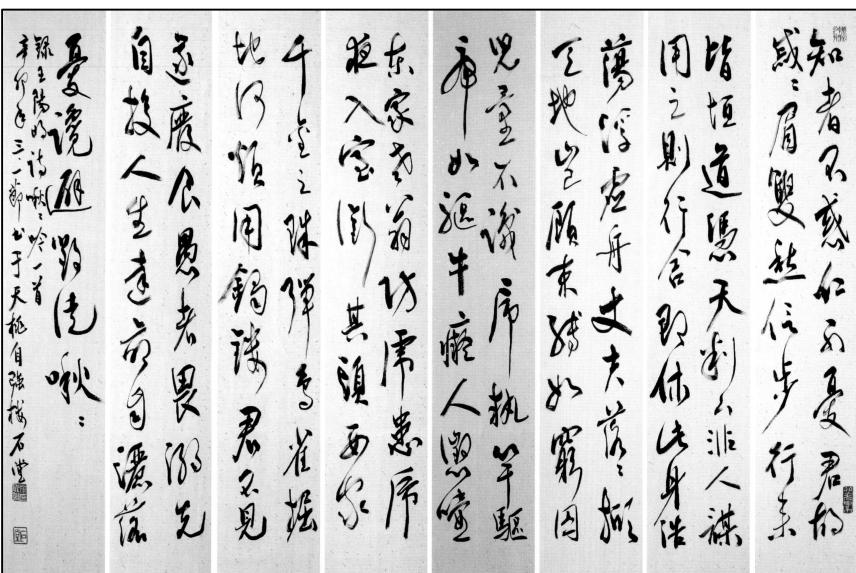
傍晉甲帳對檻肆筵設席鼓瑟吹笙外階納陛弁轉疑星右通廣內左達承明既集墳典六聚羣英杜臺鍾彝漢書辭終府羅牒相跔使根鄉戶封縣家給千兵高冠陪輦車驅轂振纓世祿侈富車駕肥輶榮功濟弱扶傾綺迴漢惠說感武丁
鄭熙始永千字文辛卯孟冬之日於韓歸平林

한순자

현영수

황변주

지도교사 김향



지도교사 서성호

임원현황

연번	직 책	성 명	주 소	연락처(집/핸드폰)
1	원장	남덕우	인제군 인제읍 상동 5리	
2	부원장	정익수	인제군 기린면 현리 469-7	
3	부원장	이공규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362-16	
4	이사	강병덕	인제군 남면 신남 2리	
5	이사	김동길	인제군 북면 원통 2/3	
6	이사	김미례	인제군 기린면 서2리	
7	이사	김은필	인제군 기린면 현1/5	
8	이사	김인국	인제군 기린면 현2리	
9	이사	김진태	인제군 남면 신남3/1	
10	이사	민종식	인제군 인제읍 상동3리 3반296	
11	이사	박기선	인제군 인제읍 남북1리	
12	이사	박화자	인제군 인제읍 합강1/2	
13	이사	백영자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내설약A 102-905	
14	이사	심병관	인제군 서화면 서화2리	
15	이사	용수운	인제군 상남면 상남 1/4	
16	이사	유금실	인제군 인제읍 상동4리	
17	이사	정순덕	인제군 인제읍 상동2리	
18	이사	정시화	인제군 인제읍 합강2리 283-14	
19	이사	정재환	인제군 상남면 하남2리	
20	이사	최영운	인제군 인제읍 상동3리	
21	이사	홍복만	인제군 북면 원통5리 1반	
22	이사	목병후	인제군 기린면 서1리	
23	이사	박효남	인제군 북면 월학1리	

직원현황

직책	성명	주 소	전화번호
사무국장	백창현	북면 원통2리 3반 640번지	461-6678, 010-5371-6996
간사	정승아		010-4116-7536
관장	백계현	상동 4리 7반	010-4736-2375
환경담당	백설애		010-9005-0091

원고모집

인제문화원에서는

「인제문화 제27집」발간을 위한 원고를 모집합니다.

지역주민의 아름다운 이야기와 정서적이고 지혜로운 이야기를,

그리고 향토문화의 발전적인 애향심을 담은 옥고로 꾸며 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모집부문

가. 발굴수기 : 민속놀이, 문화재 소재

나. 시론 및 논단 : 향토문화예술을 위한 시, 시조, 논문, 산문

다. 고향의 정취 : 고향에 대한 정서와 애향심을 담은 이야기

라. 경로효친수기 : 효행수기, 사례담

마. 테마, 기타 : 옛사진, 관광사진, 옛문헌, 사료집, 전설 등

바. 그밖에 자유로이 참여할 수 있으며 채택된 원고는 인제문화 제 27집에 게재하여
우송해 드림.

2. 모집기간

연중

3. 접수처

인제군 인제읍 상동리 인제문화원 사무국

T(033)461-6678 / F(033)461-0220 / E-mail : inje6678@kccf.or.kr

편집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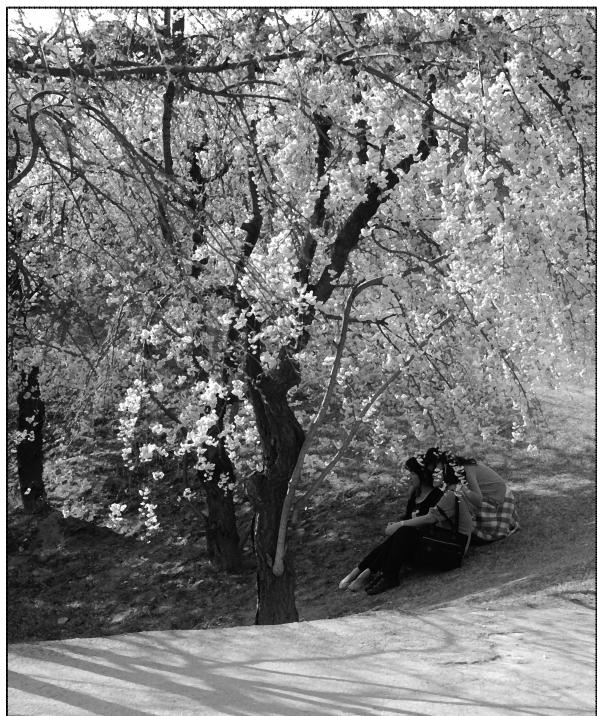
언제 왔는지도 모르게 계절이 가고, 또 봄이다.

하루하루 일상을 살다보면, 문득 꽃이 피었는지 졌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며칠을 애먹었던 원고작업이 끝났다.

수줍은 소녀들처럼 나도 이 봄엔

책 한 권 곁에 끼고 꽃 마중이나 가야겠다.



인제문화

제 26집

발행인 : 남덕우

편집인 : 백창현

편집자 : 정무교

발행처 : 인제문화원

전 화 : (033)461-6678

팩 스 : (033)461-0220

디자인·인쇄 : 마루금기획 031-954-0711

인 쇄 : 2011년 12 월

발 행 : 2011년 12 월

이 책은 국고보조금과 강원문화재단 육성 지원금으로 발간하였습니다 <비매품>



인제문화원